

발간등록번호

71-4140000-000050-01

# 漣川郡誌

5 권

연천의 정치·경제·사회

漣川郡誌編纂委員會



# 漣川郡誌

5 권

연천의 정치·경제·사회

이세진(호서대학교 교수)

漣川郡誌編纂委員會

# | 목 차 |

## 제 5 권

# 연천의 정치·경제·사회

<b>제1장. 연천의 정치와 행정</b>	<b>7</b>	<b>VI. 지방자치행정</b>	<b>55</b>
<b>I. 대통령 선거</b>	<b>9</b>	1. 행정기구	55
1. 16대 대통령 선거(노무현, 2002.12.19.)	9	2. 자치행정	59
2. 17대 대통령 선거(이명박, 2007.12.19.)	10	3. 재무행정	67
3. 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2012.12.19.)	11	4. 문화, 체육행정	75
4. 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2017.5.9.)	13	5. 재난관리	81
5. 20대 대통령 선거(윤석열, 2022.3.9)	14	6. 도시행정	85
<b>II. 국회의원</b>	<b>17</b>	<b>제2장. 연천의 경제와 산업</b>	<b>89</b>
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	17	<b>I. 개관: 연천의 산업구조</b>	<b>91</b>
2.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4.15.)	18	<b>II. 연천의 농업·축산업 및 양곡관리</b>	<b>98</b>
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4.9.)	19	1. 개관	98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2.)	21	2. 농업	99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22	3. 축산업	102
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23	4. 양곡관리	105
<b>III. 정당</b>	<b>25</b>	5. 농업기술센터	107
1. 보수	25	<b>III. 연천의 경제와 장소</b>	<b>111</b>
2. 진보	29	1. 지방물가안정	111
<b>IV. 연천군 지방자치단체 선거</b>	<b>35</b>	2. 중소기업 육성	111
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5	3. 에너지 관리	112
2.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7	4. 일자리 센터	113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115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1	<b>IV. 연천의 도시, 도로, 건축, 토지</b>	<b>117</b>
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3	1. 도시계획	117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5	2. 건축	120
<b>V. 연천군 의회의 역할</b>	<b>49</b>	3. 토지	123
1. 구성과 활동	49	4. 도로 및 교통관리	127
2. 연천군 의회의 기능	50	5. 상·하수 관리	129
3. 의회 운영	54	6. 임업	133



V. 연천의 관광·레저업	136	III.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179
1. 관광지 여건과 현황	136	1. 개요	179
2. 관광객 증가 추이 및 동향	136	2. 연천군과 관련한 내용	179
3. 관광진흥사업 개발방향	137	IV. 경기도 종합계획	181
<b>제3장. 연천의 사회: 복지·위생·환경·</b>		1. 비전 및 목표	181
<b>사회단체·군부대</b>	<b>139</b>	2. 연천군 관련 내용	181
I. 사회복지	141	V. 경기비전 2040	182
1. 주민복지증진	141	1. 목표와 전략	182
II. 의료·보건	151	2. 연천군 관련 사업	182
1. 의료	151	VI. 연천군 중장기 계획	184
III. 환경	158	1.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184
1. 환경보전	158	2. 연천 VISION 2030	186
2. 환경기초 시설	164		
IV. 연천군 사회조직	167		
V. 연천 사회와 군부대	169		
<b>제4장. 대한민국과 연천 그리고 미래</b>	<b>171</b>		
I. 연천군 종합발전계획의 배경 및 목적	173		
1.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	173		
2. 다양한 행정수요에의 능동적 대응	173		
3. 중장기 종합발전 비전 제시	174		
4. 중장기 종합계획의 지향점	175		
II.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76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	176		
2. 연천군 관련 내용	178		





제 1 장

# 연천의 정치와 행정

I. 대통령 선거

II. 국회의원

III. 정당

IV. 연천군 지방자치단체 선거

V. 연천군 의회의 역할

VI. 지방자치행정





# I. 대통령 선거

## 1. 16대 대통령 선거(노무현,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002년 12월 19일 목요일 9명의 입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당별 입후보를 보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통합 21 정몽준, 사회당 김영규,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국태민안호국당 김길수였다. 개혁국민정당추진위원회는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다. 개혁당추진위는 2002년 10월 20일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대선 연대를 선언하였다. 이 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후보는 연대선언을 수락하였다.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박근혜 부총재는 이회창 총재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 2002년 5월 17일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한국미래연합은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대선이 있기 1달 전에 한나라당과 합당하였다. 무소속의 장세동 후보는 2002년 10월 2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지만, 12월 18일 당선 가능성이 없자 후보 사퇴를 선언하였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독주하기 시작하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다. 협상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통 큰 양보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가 46.8%, 정몽준 후보가 42.2%를 차지하였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노무현의 승리로 나타나자 정몽준 후보는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2위였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에 입당하였다. 자민련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인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과 몇몇 자민련 의원들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였다.

정몽준도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밤 10시 긴급발표를 통해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를 파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철회한 이유는 노무현 후보가 한 유세 때문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는 표현을 두고 정몽준은 노무현 후보의 외교안보 의식에 문제를 느껴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진보세력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34,991,529명 중 투표자수 24,784,963명, 무효 223,047표, 투표율은 70.8%였다. 1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2,014,277표, 득표율 48.91%를 얻어 당선되었

다. 2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11,443,297표, 득표율 46.58%를 얻었다. 3위 민주노동당 권영길 957,148표, 3.89%를 얻었다. 4위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후보가 74,027표, 득표율 0.30%를 얻었다. 5위 국민안전호국당 김길수 후보가 51,104표, 득표율 0.20%를 얻었다. 6위 사회당 김영규 후보가 22,063표, 득표율 0.08%를 얻었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6,944,934명, 투표자수 4,798,006명, 투표율은 69.08%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노무현 후보 득표 2,430,193표, 득표율은 50.65%였다. 이회창 후보 득표 2,120,191표, 득표율은 44.18%였다. 권영길 후보 득표 209,346표, 득표율은 4.36%였다. 이한동 후보 득표 26,072표, 득표율은 0.54%였다. 김길수 후보 8,085표, 득표율은 0.16%였다. 김영규 후보 득표 4,119표, 득표율은 0.08%였다.

연천군은 유권자수 38,159명 투표자수 27,034명이었다. 1위 노무현 후보가 12,673표, 득표율은 46.87%였다. 2위 이회창 후보 11,283표, 득표율은 41.73%였다. 3위 이한동 후보가 1,735표, 득표율은 6.41%였다. 4위 권영길 후보가 1,185표, 득표율은 4.38%였다. 5위 김길수 후보가 120표, 득표율은 0.44%였다. 6위 김영규 후보가 38표, 득표율은 0.14%였다.

## 2. 17대 대통령 선거(이명박, 2007.12.19.)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10명의 입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당별 입후보를 보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한국사회당 금민, 참주인연합 정근모, 국민중심당 심대평,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이수성,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이였다. 이 가운데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이수성 후보는 사퇴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80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4명의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이 결집하여 2007년 8월 5일 창당되었다. 창당과 잔여 열린우리당과 동시에 합당하여 143석을 확보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유시민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지만, 유시민 후보는 중도 사퇴하였다. 정동영 후보가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여 새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17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가 각축을 벌였지만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었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37,653,518명 중 투표자수 23,732,854명, 투표율은 63.0%였다. 제17대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지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11,492,389표, 득표율 48.67%를 얻었다.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6,174,681표, 득표율 26.14%를 얻었

다. 3위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3,559,963표, 15.07%를 얻었다. 4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1,375,498표, 득표율 5.82%를 얻었다. 5위 권영길 후보가 712,121표, 득표율 3.01%를 얻었다. 6위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60,708표, 득표율 0.68%를 얻었다. 7위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가 96,756표, 득표율은 0.40%를 얻었다. 8위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96,756표, 득표율은 0.07%를 얻었다. 9위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가 18,223표, 득표율은 0.06%를 얻었다. 10위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가 7,161표, 득표율은 0.03%를 얻었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8,222,124명, 투표자수 5,017,407명, 투표율은 61.02%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이명박 후보 2,603,443표, 득표율은 51.88%였다. 정동영 후보 1,181,936표, 득표율은 23.55%였다. 이회창 후보 득표 670,742표, 득표율은 13.36%였다. 문국현 후보 354,492표, 득표율은 7.06%였다. 권영길 후보 144,830표, 득표율은 2.88%였다. 이인제 후보 30,513표, 득표율은 0.60%였다. 허경영 후보 23,554표, 득표율은 0.46%였다. 정근모 후보 3,378표, 득표율은 0.06%였다. 금민 후보 3,207표, 득표율은 0.06%였다. 전관 후보 3,207표, 득표율은 0.06%였다.

연천군은 유권자수 36,588명 투표자수 23,623명이었다. 1위 이명박 후보가 13,072표, 득표율은 55.33%였다. 2위 정동영 후보 5,441표, 득표율은 23.03%였다. 3위 이회창 후보가 2,865표, 득표율은 12.12%였다. 4위 문국현 후보가 1,111표, 득표율은 4.70%였다. 5위 권영길 후보가 678표, 득표율은 2.87%였다. 6위 이인제 후보가 267표, 득표율은 1.13%였다. 7위 허경영 후보가 125표, 득표율은 0.52%였다. 8위 정근모 후보 25표, 득표율은 0.10%였다. 9위 금민 후보 20표, 득표율 0.08%였다. 10위 전관 후보 19표, 득표율은 0.08%였다.

### 3. 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2012.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7명의 입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정당별 입후보를 보면 새누리당(2012.2.13. 당명 변경)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박종선, 통합진보당 이정희이었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사퇴하였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2012년 2월 13일 당명을 변경하였다. 새누리당은 바뀐 당명으로 제18대 대선 경선을 치렀다. 경선과정에서 경선률에 대한 이견이 많았지만 대의원 20%, 일반당원 40%, 국민참여선거인단 40%를 유지하고 기존의 경선률을 고수하였다. 새누리당 18대 대선 후보 경선은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 5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84.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대통합민주신당으로 2011년 12월 23일 당명을 변경하였다. 민주통합당은 바뀐 당명으로 제18대 대선 경선을 치렀다. 경선에는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후보가 참여하였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후보를 18대 대선 후보로 확정하였다. 안철수는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으며 2012년 9월 19일 무소속 대선출마를 선언하였다. 안철수 교수는 11월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18대 대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18대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심상정 후보도 11월 26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입후보를 포기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경선을 통해 이정희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였다. 이정희 후보도 12월 17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후보를 사퇴하였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40,464,641명 중 투표자수 30,594,621명, 무효 126,838표, 투표율은 75.8%였다. 1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5,773,128표, 득표율 51.55%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4,692,632표, 득표율 48.02%를 얻었다. 3위 무소속 강지원 후보가 53,303표, 0.17%를 얻었다. 4위 무소속 김순자 후보가 46,017표, 득표율 0.15%를 얻었다. 5위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16,687표, 득표율 0.05%를 얻었다. 6위 무소속 박종선 후보가 12,854표, 득표율 0.04%를 얻었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9,364,077명, 투표자수 7,018,577명, 기권수 2,345,500, 투표율은 74.95%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박근혜 후보 3,528,915표, 득표율은 50.43%였다. 문재인 후보 3,442,084표, 득표율은 49.19%였다. 강지원 후보 득표 12,577표, 득표율은 0.17%였다. 김순자 후보 7,476표, 득표율은 0.10%였다. 김소연 후보 3,674표, 득표율은 0.05%였다. 박종선 후보 1,997표, 득표율은 0.02%였다. 허경영 후보 23,554표, 득표율은 0.46%였다. 정근모 후보 3,378표, 득표율은 0.06%였다.

연천군은 유권자수 37,796명 투표자수 27,537명이었다. 1위 박근혜 후보가 17,989표, 득표율은 65.32%였다. 2위 문재인 후보 9,359표, 득표율은 33.98%였다. 3위 강지원 후보가 73표, 득표율은 0.26%였다. 공동 3위 김순자 후보가 73표, 득표율은 0.26%였다. 5위 박종선 후보가 23표, 득표율은 0.08%였다. 6위 김소연 20표, 득표율은 0.07%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실시되었다.



#### 4. 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 5월 9일 수요일 15명의 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실시되었다. 정당별 입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2017.2.13. 개명)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 한국국민당 이경희,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이었다. 남재준 후보와 김정선 후보는 대선후보를 사퇴하였다. 실질적으로 19대 대선은 원내 주요 5대 정당들이 대결하는 구도였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2017년 2월 13일 당명을 변경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바른 당명으로 제19대 대선 경선을 치렀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후보로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28일 당명을 변경하였다. 민주통합당은 2013년 5월 4일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2014년 3월 26일 민주당과 안철수가 창당한 새정치연합과 합당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였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면서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사퇴하였다. 2015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세력이 대거 탈당하였다. 호남계의 박지원 의원도 탈당하였다. 당지도부는 201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하였고 원내 제1야당이 되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19대 대선후보로 선출하였다.

2016년 2월 2일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국민의 당이 창당되었으며,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비주류 세력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였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를 19대 대선후보로 선출하였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각각 19대 대선후보로 선출하였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42,479,710명 중 투표자수 32,672,175명, 무효 135,733표, 투표율은 77.2%였다.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3,800표, 득표율 41.08%를 얻었다.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7,852,849표, 득표율 24.03%를 얻었다. 3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998,342표, 21.41%를 얻었다. 4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208,771표, 득표율 6.76%를 얻었다. 5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7,458표, 득표율 6.17%를 얻었다. 6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42,949표, 득표율 0.13%를 얻었다. 7위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33,990표,

득표율 0.10%를 얻었다. 8위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27,229표, 득표율 0.08%를 얻었다. 9위 국민통합당 장성민 후보가 21,709표, 득표율 0.06%를 얻었다. 10위 흥익당 윤홍식 후보가 18,543표, 득표율 0.05%를 얻었다. 11위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가 11,355표, 득표율 0.03%를 얻었다. 12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9,140표, 득표율 0.02%를 얻었다. 13위 경제애국당 오영국 6,040표, 득표율 0.01%를 얻었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10,262,309명, 투표자수 7,887,645명, 투표율은 76.86%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문재인 후보 3,319,812표, 득표율은 42.08%였다. 안철수 후보 1,807,308표, 득표율은 22.91%였다. 홍준표 후보 득표 1,637,345표, 득표율은 20.75%였다. 심상정 후보 546,373표, 득표율은 6.92%였다. 유승민 후보 540,023표, 득표율은 6.84%였다. 조원진 후보 10,778표, 득표율은 0.13%였다. 김민찬 후보 6,553표, 득표율은 0.08%였다. 김선동 후보 6,139표, 득표율은 0.07%였다. 장성민 후보 5,058표, 득표율은 0.06%였다. 윤홍식 후보 2,883표, 득표율 0.03%였다. 이경희 2,213표, 득표율 0.02%였다. 이재오 후보 1,858표, 득표율 0.02%였다. 오영국 후보 1,302표, 득표율 0.01%였다.

연천군은 유권자수 38,909명 투표자수 28,450명이었다. 1위 홍준표 후보가 9,557표, 득표율은 33.59%였다. 2위 문재인 후보 8,384표, 득표율은 29.46%였다. 3위 안철수 후보가 6,805표, 득표율은 23.91%였다. 4위 유승민 후보가 1,901표, 득표율은 6.68%였다. 5위 심상정 후보가 1,581표, 득표율은 5.55%였다. 6위 김민찬 후보가 50표, 득표율은 0.17%였다. , 7위 조원진 후보가 41표, 득표율 0.14%였다. 8위 윤홍식 후보가 33표, 득표율 0.11%였다. 9위 장성민 후보가 28표, 득표율 0.09%였다. 10위 이재오 후보가 21표, 득표율 0.07%였다. 공동 10위 김선동 후보가 21표, 득표율은 0.07%였다. 12위 이경희 후보가 18표, 득표율 0.06%였다. 13위 오영국 후보가 10표, 득표율 0.03%였다.

## 5. 20대 대통령 선거(윤석열, 2022.3.9)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14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당별 입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2020.9.2. 개명)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노동당 이백운, 새누리당 옥은호, 새로운물결 김동연,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이었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대선후보를 사퇴하였다. 실질적으로 20대 대선은 원내 주요 양당의 대결 구도였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미래통합당에서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하였다.<sup>1)</sup> 미래통합당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체제로 전환하였다. 김종인 비대위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후보가 각각 57.50%, 62.67%의 득표율을 보이며 승리하였다.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를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sup>2)</sup>은 제 20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를 확정하였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확정하였다.

선거 결과 유권자수 44,197,692명 중 투표자수 33,760,311명, 무효 307,542표, 투표율은 77.1%였다. 1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4,815표, 득표율 48.56%를 얻었다.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6,147,738표, 득표율 47.83%를 얻었다. 3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803,358표, 득표율 2.37%를 얻었다. 4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281,481표, 득표율 0.83%를 얻었다. 5위 진보당 김재연 37,366표, 득표율 0.11%를 얻었다. 6위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25,972표, 득표율 0.07%를 얻었다. 7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18,105표, 득표율 0.05%를 얻었다. 8위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가 17,305표, 득표율 0.05%를 얻었다. 9위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가 11,708표, 득표율 0.03%를 얻었다. 10위 노동당 이백윤 후보가 9,176표, 득표율 0.02%를 얻었다. 11위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가 8,317표, 득표율 0.02%를 얻었다. 12위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가 4,970표, 득표율 0.01%를 얻었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11,433,288명, 투표자수 8,691,376명, 투표율은 76.01%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1위 이재명 후보 4,428,151표, 득표율은 50.94%였다. 2위 윤석열 후보 3,965,341표, 득표율은 45.62%였다. 3위 심상정 후보 득표 205,709표, 득표율은 2.36%였다. 4위 허경영 후보 63,207표, 득표율은 0.72%였다. 5위 김재연 후보 8,768표, 득표율은 0.10%였다. 6위 조원진 후보 5,897표, 득표율은 0.06%였다. 7위 오준호 후보 4,151표, 득표율은 0.04%였다. 8위 김민찬 후보 3,192표, 득표율은 0.03%였다. 9위 김경재 후보 1,990표, 득표

1) 한나라당(1997~2012.2.13)-새누리당(2012.2~2017.2.13)-자유한국당(2017.2.13~2020.2.17)-미래통합당(2020.2.17~2022.4.18)-국민의힘(2022.4.18~)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2) ①새천년민주당(2000.1.20.~2005.5.6.)-민주당(2005.6~2007.6.27.)-통합민주당(2007.2.17.~2008.7.6.)-민주당(2008.7.6.~2011.12.23.)-해산(2011.12.23) ②열린우리당(2003.11.11.~2007.8.5.)-대통합민주신당(2007.8.5.~2011.12.23.)-민주통합당(2011.12.23.~2013.5.4.)-민주당(2013.5.4.~2014.3.26.)-새정치민주연합(2014.3.26.~2015.12.28.)-더불어민주당(2015.12.28.~)

율은 0.02%였다. 10위 이경희 1,927표, 득표율 0.02%였다. 11위 이백운 후보 1,919표, 득표율 0.02%였다. 12위 옥은호 후보 1,124표, 득표율 0.01%였다.

연천군은 유권자수 37,817명 투표자수 28,549명이었다. 1위 윤석열 후보 15,325표, 득표율은 53.67%였다. 2위 이재명 후보 12,013표, 득표율은 42.07%였다. 3위 심상정 후보 득표 604표, 득표율은 2.11%였다. 4위 허경영 후보 402표, 득표율은 1.40%였다. 5위 조원진 후보 64표, 득표율은 0.22%였다. 6위 김재연 후보 50표, 득표율은 0.17%였다. 7위 김민찬 후보 27표, 득표율은 0.09%였다. 8위 이경희 22표, 득표율 0.07%였다. 9위 오준호 후보 17표, 득표율은 0.05%였다. 10위 김경재 후보 13표, 득표율은 0.04%였다. 11위 이백운 후보 7표, 득표율 0.02%였다. 12위 옥은호 후보 5표, 득표율 0.01%였다.



## II. 국회의원

### 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

지난 군지가 발간되었던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6차례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1998.2-2003.2)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00년 4월 13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33,482,387명 중 19,156,515명이 투표에 참여 하여 투표율은 57.2%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54.9%였다. 지역구 227석, 전국구 46석 총 273명이 선출되었다. 16대 총선까지는 1인 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였다. 참고로, 1인 2표제(지역구 의원 1표, 정당 지지 1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였다.

16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역구 112석과 비례대표 21석, 새천년민주당 지역구 96석과 비례대표 19석, 자민련 지역구 12석과 비례대표 5석, 민주국민당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 희망의 한국신당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0석, 무소속 지역구 5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의 비례대표는 사표처리가 되어 비례대표가 있을 수 없었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한나라당 48.7%,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 48.35%, 민주국민당 0.73%, 희망의 한국신당 0.36%, 무소속 1.83%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한나라당 39.0%, 새천년민주당 35.9%, 자민련 9.8%, 민주국민당 3.7%, 희망의 한국신당 0.4%였다. 16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의석수는 새천년민주당 119석, 한나라당 134석, 자유민주연합(자민련) 17석, 민주국민당 2석, 희망의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이었다. 정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9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원내 제 1당은 137석을 얻은 한나라당이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41개의 지역구 가운데 한나라당 18명, 새천년민주당 22명, 자민련 1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지역구는 선거인 수 140,555명, 투표자 수 84,470명, 무효표 수 3,887명으로 투표율은 60.85%를 기록하였다. 연천군·포천군에서는 자민련 이한동과 한나라당 고조흥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자민련의 이한동 후보는 42,687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52.96%였다. 한나라당의 고조흥 후보는 37,905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7.03%였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천군·포천군 지역구에서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이한동 의원이 당선되었다.

〈16대 국회의원총선 연천군·포천시 후보자별 득표상황(2000.4.13.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이한동	자민련	140,555	84,470	3,887	60.85%	42,687	52.96%
고조흥	한나라당					37,905	47.03%

16대 총선에서는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낙선대상자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총선 이 깨끗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2.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4.15.)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2003.2-2008.2)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04년 4월 15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59.7%였다. 지역구 243석, 전국구 56석 총 299석이 선출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의원 투표 1표, 정당 투표 1표)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17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129석과 비례대표 23석, 한나라당 지역구 100석과 비례대표 21석, 새천년민주당 지역구 5석과 비례대표 4석, 민주노동당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8석, 자민련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0석, 국민통합21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0석, 희망의 한국신당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0석, 무소속 지역구 2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열린우리당 50.8%, 한나라당 40.5%, 민주노동당 3.3%, 새천년민주당 3%, 자민련 1.3%, 국민통합 21 0.3%, 무소속 0.7%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열린우리당 38.26%, 한나라당 35.76%, 민주노동당 13.03%, 새천년민주당 7.09%, 기타정당 5.86%였다. 17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이었다.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었다. 원내 제1야당은 121석을 얻은 한나라당이 차지하였다.

경기도 국회의원선거는 16대에 41개에서 17대에는 49개로 8개 선거구가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 가운데 열린우리당 35명, 한나라당 14명 각각 선출되었다. 경기도 연천군·포천시 지역구는 선거인 수 147,386명, 투표자 수 84,830명, 무효표 수 1,263명으로 투표율은 57.72%를 기록하였다. 연천군·포천시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새천년민주당 김유근, 한나라당 고조흥, 자민련 권영백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1위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후보가

36,298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3.43%, 2위는 한나라당의 고조흥 후보가 34,110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0.81%, 3위는 자민련 권영백 후보가 9,070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10.81%, 4위는 새천년민주당 김유근 후보가 4,089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89%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천군·포천시 지역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7대 국회의원총선 연천군·포천시 후보자별 득표상황(2004. 4. 15.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이철우	열린우리당	147,386	84,830	1,263	57.72%	36,298표	43.43%
고조흥	한나라당					34,110표	40.81%
권영백	자민련					9,070표	10.81%
김유근	새천년민주당					4,089표	4.89%

2005년 이철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서 2005년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이철우 후보에 패배했던 고조흥 후보가 2005년 경기도 포천, 연천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36,286표, 득표율 64.60%로 당선되었다.

17대 총선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교차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17대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 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한나라당(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으로 변경) 이명박 대통령(2008.2-2013.2)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인 2008년 4월 9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37,796,035명 중 17,451,66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46.1%를 기록하였다. 17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14.5%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에서도 발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43.7%였다.

18대에 경기도의 선거구가 2곳 늘어 전국 지역구는 243석에서 245석으로, 비례대표는 2석 줄여 56석에서 54석으로 총 299석을 유지하였다. 참고로, 18대에 늘어난 경기도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경기 용인시 갑, 을 선거구가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선거구로, 경기 화성시 선거구가 화성시 갑, 을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모든 당은 경선 없이 공천하였다.

18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석과 비례대표 22석, 통합민주당 지역구 66석과 비례대표 15석, 자유선진당 지역구 14석과 비례대표 4석, 친박연대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8석, 민주노동당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3석, 창조한국당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 무소속 지역구 25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한나라당 51.17%, 통합민주당 27.095%, 자유선진당 6.02%, 친박연대 4.68%, 민주노동당 1.67%, 창조한국당 1.0%, 무소속 8.36%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한나라당 43.45%, 통합민주당 28.92%, 무소속 11.08%, 자유선진당 5.72%, 친박연대 3.7%,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였다. 18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의석수는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무소속 25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이었다.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겼다. 원내 제 1야당은 81석을 얻은 민주통합당이 차지하였다.

18대 경기도 국회의원선거는 17대의 49개에 비해 지역구가 2곳 늘어 51곳이 되었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 가운데 한나라당 32명, 민주통합당 17명, 무소속 1명을 각각 선출되었다. 경기도 연천군·포천시 지역구는 선거인 수 158,217명, 투표자 수 75,197명, 무효표 수 957명으로 투표율은 48.56%를 기록하였다.

연천군·포천시에서는 한나라당 김영우, 통합민주당 장명재, 평화통일가정당 김성규, 무소속 박윤국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1위는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가 36,88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9.68%, 2위는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22,06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29.72%, 3위는 민주통합당 장명재 후보가 13,610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18.68%, 4위는 평화통일가정당 김성규 후보가 1,678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2.26%였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천군·포천시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7대 국회의원총선 연천군·포천시 후보자별 득표상황(2004. 4. 15.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장명재	민주통합당	147,386	84,830	1,263	57.72%	13,610표	18.33%
김영우	한나라당					36,886표	49.68%
김성규	평화통일가정당					1,678표	2.26%
박윤국	무소속					22,066표	29.72%

2008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으로 교체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의 교체 이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두드러진 약진이 있었다.

#### 4.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2.)

19대 국회의원선거는 새누리당(2012년 2월 13일 당면 변경) 이명박 대통령(2008.2-2013.2)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2년 4월 12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40,205,055명 중 21,806,79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54.2%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52.6%였다. 지역구 18대 총선에 비해 1석이 늘어 246석, 비례대표는 19대와 같이 54석 의원정수는 300명이었다. 의원정수도 19대 299명에 비해 1명 늘어 300명이 되었다.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 민주통합당 106석과 비례대표 21석, 통합진보당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자유선진당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 무소속 지역구 3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 50.66%, 민주통합당 42.33%, 통합진보당 4.33% 자유선진당 1.66%, 무소속 1%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새누리당 43.28%, 민주통합당 37.85%, 통합진보당 5.99%, 무소속 9.35%, 자유선진당 2.2%이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었다. 원내 제1야당은 127석을 얻은 통합민주당이 차지하였다.

19대 경기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1곳이었던 선거구가 52곳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를 파주시 갑, 을로 구분하여 1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 21명, 통합민주당 29명, 통합진보 2명 각각 선출되었다.

경기도 연천군·포천시 지역구는 선거인 수 162,947명, 투표자 수 82,269명, 무효표 수 926명으로 투표율은 48.56%를 기록하였다. 연천군·포천시에서는 새누리당 김영우, 민주통합당 이철우, 무소속 박윤국, 무소속 최병훈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1위는 새누리당 김영우 후보가 41,024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50.43%, 2위는 민주통합당 이철우 후보가 27,991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34.41%, 3위는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10,181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12.51%, 4위는 무소속 최병훈 후보가 2,148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2.64%였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천군·포천시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김영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9대 국회의원총선 연천군·포천시 후보자별 득표상황(2012. 4. 12.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김영우	새누리당	162,947	82,269	925	48.56%	41,024표	50.43%
이철우	통합민주당					27,991표	34.41%
박윤국	무소속					10,181표	12.51%
최병훈	무소속					2,148표	2.64%

19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치러진 선거였다.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18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 5.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20대 국회의원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2013.2-2017.3)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6년 4월 13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42,100,398명 중 24,432,53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58.0%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57.5%였다.

20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과 비례대표 13석, 새누리당 105석과 비례대표 17석, 국민의당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4석, 무소속 지역구 11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41%, 새누리당 40.7%, 국민의당 13.7%, 정의당 2%, 무소속 3.7%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37.0%, 새누리당 38.3%, 국민의당 14.9%, 정의당 1.6%, 무소속 7.0%이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였다. 원내 제1야당은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19대 246석에 비해 7석 늘어 253석, 비례대표는 54석에서 7석 줄어 47석의 원정수는 300명 그대로 유지하였다. 20대 총선거에서 경기도는 수원시 1석, 용인시 1석, 화성시 1석, 군포시 1석, 김포시 1석, 광주시 1석으로 7석이 증가하였다. 또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합쳐져 있던 것을 분리하여 양주시가 독립적으로 1석,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합쳐서 1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19대까지 연천군은 포천시와 한 선거구였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분리되었다. 경기도는 총 8석이 증가하여 60석이 되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는 선거인 수 118,608명, 투표자 수 61,723명, 무효표 수 1,086으로 투표율은 52.0%를 기록하였다. 동두천시·연천군에서는 새누리당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유진현, 국민의당 심동용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1위는 새누리당 김성원 후보가 31,84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52.51%, 2위는 더불어민주당 유진현 후보가 18,195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30.00%, 3위는 국민의당 심동용 후보가 10,59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17.47%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김성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19대 국회의원총선 동두천시·연천군 후보자별 득표상황(2012. 4. 12.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김성원	새누리당	118,608	61,723	1,086	52.0%	31,846표	52.51%
유진현	더불어민주당					18,195표	30.00%
심동용	국민의당					10,596표	17.47%

20대 총선은 선거구 조정으로 연천군은 기존의 포천시로부터 떨어져 나와 동두천시와 합쳐졌다. 그 이유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위헌판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구의 인구편차 3:1을 강화하여 2:1을 초과할 경우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현재의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선거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4년 대한민국 제6회 지방선거부터였다.

**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2017.5-2022.5)의 집권기에 치러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직에서 물러났다.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20년 4월 15일 실시되었고, 전국 선거인 수 43,994,247명 중 29,126,39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66.2%를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64.8%였다.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대표 1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 한국당은 84석과 비례대표 19석, 정의당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 국민의당 지역구 0석과 비례대표 3석, 열린민주당 지역구 0석과 비례대표 3석, 무소속 지역구 5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의석 비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60%,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34.3%, 정의당 2%, 국민의당 1%, 열린민주당 1%, 무소속 1.7%였다. 각 정당별 전국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9.91%, 미래통합당 41.45%, 정의당 1.69%, 무소속 3.91%이었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겼다. 원내 제1야당은 84석을 얻은 미래통합당이 차지하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 의원정수는 300명이었다. 21대 총선거에서 경기도는 20대 총선 60석에 비해 1석이 줄어든 59석이었다. 1석이 줄어든 이유는 군포시 갑, 을을 군포시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는 선거인 수 118,961명, 투표자 수 73,433명, 무효표 수 1,102으로 투표율은 61.7%를 기록하였다. 동두천시·연천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원철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1위는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38,777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53.61%, 2위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가 32,562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45.01%, 3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원철 후보가 992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1.37%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21대 국회의원총선 동두천시·연천군 후보자별 득표상황(2012. 4. 12. 시행)〉

	정당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무효	투표율	득표 수	득표율
김성원	미래통합당	118,608	61,723	1,086	52.0%	38,777표	53.61%
서동욱	더불어민주당					32,562표	45.01%
김원철	국가혁명배당금당					992표	1.37%

21대 총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또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처음으로 투표한 선거였다. 둘째, 탄핵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셋째, 2014년 첫 시행 이래 사전투표율은 4월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7%를 기록하였다. 4월 15일 투표율도 66.2%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 투표자수 29,127, 637명, 전국 유권자수 43,994,247명이었고 전국투표율은 66.2%였다.

### III. 정당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많은 정당들이 당명을 변경하며 이합집산한 모습을 보이지만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보수의 맥은 현재 국민의힘이 있고 있다. 진보의 맥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0년대 한국의 정당을 보수와 진보라는 틀로 분류하고 정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보수

##### 1)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민자당)(1990.2.9~1995.12.6)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이 되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만 야당으로 남게 되었다. 3당 합당 과정에서 통일민주당의 노무현, 이기택 등 몇몇 5공 청문회 스타 의원들은 이탈하여 민주당에 잔류하였다.

참고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자당에 맞선 야당이 되기 위해 '신민주연합당'(이하 신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 1991년 야권통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김대중의 '신민당'과 이기택의 잔류 '민주당'이 합당하여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1992년 14대 민자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김영삼이 승리하고 민정계의 이종찬이 패하였다. 이종찬은 1992년 11월 '새한국당'(1992.11~1995)을 창당하였다. 14대 대선에서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등이 입후보하였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낙선한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정주영 후보도 1993년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한 문제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밀려난 노태우 전대통령 세력인 박철언, 김복동 등 민자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김동길 중심의 통일국민당에 합류하였다. 이후 통일국민당의 김동길 대표와 신정치개혁당(신정당)의 박찬종 대표가 1994년 5월 합당하였다.

1993년 민자당으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김종필계의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 이탈했고,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민자당은 민주당에 패배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민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당도 이기택이 동교동계(김대중계)와 불화를 겪게 되자 김대중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동교동계가 대거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은 제2야당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동교동계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은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개혁신당(장을병, 홍성우 중심)과 합당하여 1995년 12월 21일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1996년 6월 13일 통합민주당은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조순 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기도 하였다.

## 2) 신한국당(1995.6~1997.11.21)

1995년 12월 6일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4월 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변경한 것이었다. 신한국당은 이회창, 박찬종, 홍준표,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맹형규, 정의화 등을 영입하였다.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장기표, 이부영은 진보정당이었던 민중당(1990.11.10.~1992.3) 출신들이었다.

참고로, 민중당은 1980년 후반 운동권과 재야진영의 기층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혁신정당을 모색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주협)에도 참가하였으며 1990년 11월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1992년 민중당 소멸 이후 민중당의 인물들은 민자당, 미래통합당, 민주당으로 흩어졌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으로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신한국당은 무소속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국회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1997년 11월 21일 민주당은 신한국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흡수되어 조순, 이기택 등 민주당 출신 지도부조차 16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내 국민통합추진위원회의(통추) 출신의 김정길, 김원기, 노무현 등은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의의 제정구, 이철은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탈당하였다. 장을병 등은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중심의 '국민신당'에 입당하였다.

참고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철은 정몽준의 국민통합21에 참여했으나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를 발표하자 탈당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으나 낙마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냈다.

## 3) 한나라당(1997.11.21.~2012.2.13)

1997년 11월 21일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와 조순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두당이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1997년 15대 대선 후보로 신한국당에서는 이회

창 후보가 선출되어 김대중 후보와 경쟁했지만 김대중 대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새천년민주당(2000.1.20.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 당명 변경)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는 15대, 16대 대선에서 모두 패하였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이었지만 탈당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내 정당 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2004년 5월 20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잔류 세력은 새천년민주당으로 남았고, 후일 당명을 민주당(2005.6), 통합민주당(2007.2), 다시 민주당(2008.7)으로 있다가 2011년 12월 23일 해산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이념은 자유주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건설, 한반도평화통일 등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측근정치, 경제파탄,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다. 전국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탄핵사태로 민심을 잃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패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패하자 박근혜를 당대표최고위원으로 하고 당을 전면 쇄신하였다. 2006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에서 성공하였다.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4) 새누리당(2012.2.13.~2017.2.1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2012년 동시에 치러졌다. 2011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근혜가 되었다.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새누리당은 보수적인 친박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0대 국회의원(2016.4.13.)선거의 공천 갈등이었다. 비박계가 대거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총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이라고 불린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2017년 3월까지 대한민국을 엄청난 파장으로 몰아갔던 사건이다. 친박계는 비박계의 김용태와 유승민 의원을 지도부와 비대위원장 선임을 부결시켰다. 이에 비박계에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였다.

## 5) 자유한국당(2017.2.23 ~ 2020.2.17)

새누리당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신당 창당과 당명 변경이 도미노처럼 일어났다. 첫 신호탄은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가 2017년 1월 11일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하였다. 김무성, 유승민 등은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새누리당도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친박계의 보수 정당이었다. 극렬 친박계는 당명 변경과 박근혜를 출당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2017년 4월 5일 ‘새누리당(2017년)’을 창당하였다. 또한 강성 친박계의 조원진을 중심으로 한 ‘대한애국당’이 2017년 8월 30일 창당되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하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2017년 5월 19대선에서 바른정당의 김무성계의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유승민 후보가 대선 완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김무성계의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 대선 패배 이후 바른정당은 간신히 교섭단체를 유지하지만 당내 갈등은 계속되었다. 바른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분리된 김한길, 호남계 중심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여 2018년 2월 13일 통합되어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다. 바른미래당은 보수 정당이었다.

보수성향의 정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 당 모두 참패하였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은 손학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나 당내 갈등은 여전하였다. 바른미래당은 분당되어 하나는 2020년 1월 5일 ‘새로운보수당’이 창당되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당하여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였다.

## 6) 미래통합당(2020.2.17.~2020.9.2.)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였다. 미래통합당의 이념은 경제자유주의, 반공주의, 사회보수주의였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과정에서 공천 문제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선거결과에서도 참패하였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김종인을 선택하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위임받아 활동을 전개하였다.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민정당의 과거 잘못을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신당준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가치는 혁신, 확장, 미래라고 하였다. 이는 2020년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를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7) 국민의힘(2020.9.2.~현재)

2020년 9월 2일 미래통합당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2022년 5월 3일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흡수하였다. 국민의힘의 가치는 여전히 북핵위협억제, 자유주의, 사회보수주의이다. 또한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2021년 6월 11일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8일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문제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원권 2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당대표직은 권성동이 대행하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이 맡고 있다.

## 2. 진보

### 1) 신한민주당(신민당)(1985.1.18.~ 1988.4.29)

진보정당의 뿌리는 1980년대로 올라갈 수 있다. 5공 당시 제1야당은 민한당이였다. 민한당은 관제야당이였기 때문에 5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정치활동금지가 1984년 12월 풀리면서 민한당을 탈당하여 만든 당이 신한민주당이다. 신한민주당은 1985년 1월 18일 창당되었다. 당시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이였다. 창당된 지 한 달만에 선거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차지하였다. 김영삼은 원로 이민우를 신한당 총재직과 종로, 중구 출마를 제의하였다. 이민우는 당선되었고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이 되었다. 민한당을 탈당은 의원들이 신한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신한민주당의 의석수가 103석으로 증가하였다.

신한민주당은 오래 갈 수 없는 정당이었다. 신한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김영삼의 당이라고 볼 수 있었다.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상도동계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동교동계는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을 결성하였다. 김대중-김영삼이 민추협의 공동대표였으나 양 김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김상현이 대표를 맡았다. 이후 민추협의 김대중, 김영삼은 1987년 4월 21일 통일민주당(민주당)을 창당한다. 창당과정에서 1987년 4월 용팔이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 김 세력은 갈등하면서 김대중계가 탈당하고, 1987년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3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도 김대중 후보도 모두 노태우 후보에게 패하였다. 1988년 노태우의 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 2) 평화민주당(1987.11.12.~1991.9.16.)

김대중계의 평화민주당(평민당)은 1987년 11월 12일 김대중을 당 총재 및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1988년 4월 26일 국회의원에서 민정당 124석, 평민당은 70석, 통일민주당 59석을 확보하였다. 김대중의 '평민당'도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자당에 맞선 야당이 되기 위해 1991년 4월 15일 신계륜, 장영달 등 재야 인물들을 영입하여 '신민주연합당'(신민당)으로 당명 변경과 함께 확대 개편하였다. 김대중은 외부인사 영입, 당명 변경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야권 통합을 서둘렀다.

한편, 이기택 중심의 민주당은 통일민주당의 잔류파였다. 이기택, 노무현 등 통일민주당 잔류파와 무소속 박찬종, 이철 등이 합쳐 1990년 6월 15일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사람들은 이당을 꼬마 민주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김대중의 '신민당'과 이기택의 잔류 '민주당'이 합당하여 1991년 9월 16일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 3) 민주당(1991.9.16.~1995.12.21.)

1991년 9월 16일 김대중 중심의 신민당과 이기택 중심의 민주당이 합당하여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대표는 김대중과 이기택이 공동으로 맡았다. 1992년 12월 18일 14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게 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김대중은 아태재단을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민주당 대표는 이기택이 맡았다.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김대중의 영향력이 작동되고 있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민정계 출신 이종찬을 공천했고 이기택은 장경우를 공천하였다. 이 문제로 김대중과 이기택은 갈등이 생겨났다. 당내 경선에서 장경우 후보가 승리했지만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인제 후보에게 패하였다.

김대중은 1995년 7월 17일 정계복귀를 선언하자 김대중계 의원들은 대거 탈당하였다. 김대중은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민주당에 잔류한 세력들은 시민운동세력과 함께 1995년 12월 21일 조순과 이기택을 중심으로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신한국당 합당하여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을 창당하였다.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 조순과 이기택이 배제되자 이에 반발한 노무현, 김원기, 김정길은 새정치국민회로, 일부는 이인제의 국민신당으로 입당하였다.

## 4) 새정치국민회의(1995.9.5.~2000.1.20.)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14대 대선에서 패하고 정계은퇴를 한 상황이었지만,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순 서울특별시장,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84명 등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이기택과 당내 갈등을 겪으면서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를 창당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이념은 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였다.

1996년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299석 중 79석을 차지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 자민련과 공조하여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시작부터 여소야대의 한계 상황을 만났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5대 대선에서 이미 김종필의 자민련과 공조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했고 1998년에는 이인제의 국민신당과 합당을 추진하였다.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기도 하였다.

### 5) 새천년민주당(2000.1.20.~2005.5.6.)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한 공동정부로 출발하였다. 2000년 4월 13일 치러질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 권한대행, 서영훈 전kbs 사장, 김운용 대한체육회회장,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유삼남 전해군참모총장 등을 영입하여 이인제 국민신당과 합당하여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한나라당은 133석을 차지하였다.

2002년 16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국민통합 21의 대선 정몽준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였다. 양측은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대선캠프를 만들었으며 최종 후보로 노무현 후보를 확정하였고, 양측은 공조를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대선 하루 전 정몽준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지만,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천년민주당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비주류의 불만이 드러나면서 계파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개혁세력은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으로, 비주류 새천년민주당세력은 2005년 5월 6일 이인제를 받아들여 새천년민주당을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2007년 6월 27일 민주당은 김한길의 중도개혁통합신당과 합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 6) 열린우리당(2004.5.20.~2007.8.5.)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29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한 세력은 2004년 5월 20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었다. 2004년 한나라당, 자민련, 새천년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탄핵소추와 결정 사이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9석 차지했지만,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기각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열린우리당 수석당원으로 입당하였다.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연기군과 공주시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7) 중도통합민주당(2007.6.27.~2008.7.6)

2007년 2월 12일 김한길 열린우리당의 전 원내대표 등 23명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였다. 중도개혁신당은 김한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중도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2007년 6월 27일 중도개혁신당은 새천년민주당이 당명을 변경한 민주당과 합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2007년 8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었다. 중도통합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민주당계의 이낙연, 김홍업 등 지역구 의원들이 중도통합민주당을 탈당하여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하였다. 2007년 12월 17대선에 이인제 후보가 나섰지만 낮은 지지를 받았다. 잔류파들은 2008년 7월 6일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2011년 12월 23일 해산하였다.

### 8) 대통합민주신당(2007.8.5.~2008.2.17.)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8월 5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계, 김근태계, 김한길계, 천정배계, 민주당세력, 한나라당 손학규계, 시민단체 세력인 미래창조연대 등의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고 2008년 2월 17일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되었다.

### 9) 통합민주당(2008.2.17.~2008.7.6.)

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새천년민주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2008년 7월 6일 통합민주당의 당명을 '민주당(2008)'으로 변경하였다.

### 10) 민주당(2008)(2008.7.6.~2011.12.16.)

2008년 7월 6일 민주당(2008)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당 대표는 정세균 의원이 되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효과로 승리를 거뒀다. 2011년 10월 26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나왔고, 제1야당인 민주당(2008)은 후보를 내지 못하였다. 한나라당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를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정세균, 손학규는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대통합을 둘러싸고 민주당(2008)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어 2011년 12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인분을 퍼붓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2008)과 시민통합, 한국노총, 시민단체, 창조한국당 등이 통합하였다. 임시 명칭은 민주진보시민통합정당이었지만, 2012년 1월 15일 전당대회를 갖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정하였다.

### 11) 민주통합당(2011.12.16.~2013.5.4.)

민주통합당은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2008),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창조한국당의 탈당파, 국민참여당의 탈당파 등이 합쳐져서 민주통합당을 창당하였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를 당의 강령으로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렸고, 후보자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고 하였다. 공천과정에서 열린우리당만 공천한다는 비난, 호남권 의원들은 홀대받았다며 탈당하였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도 2012년 3월 10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진보당은 16곳을 양보하고 73곳에서 양당 후보가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선거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을 확보했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로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하였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복잡한 갈등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 12) 민주당(2013)(2013. 5.4~2014.3.26.)

2013년 5월 3일 통합민주당에서 다시 민주당(2013)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다. 민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전체적으로 민주당(2013)은 우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 경제민주화는 고수하지만, 경제성장과 안보에도 강조점을 두었다. 2013년 4월 10월의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의 신당 새정치연합의 인기가 상승했고 민주당(2013)은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정계개편 논의가 나왔다.



### 13) 새정치민주연합(2014.3.26.~2015.12.28.)

2014년 3월 민주당(2013)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통합신당 창당을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였다. 2014년 7월 31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8월 4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새월호특별법 협상 실패로 사퇴를 요구받았다. 9월 18일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았다. 2015년 2월 8일 새정치연합은 문재인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2015년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압승하였다. 천정배 의원이 전국적 개혁정당 창당을 모색하자 문재인 대표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탈당하였다. 정동영, 김민석, 박준영, 박주선,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최재천 등 정대철, 권노갑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다.

탈당파는 김민석 민주당, 박준영 신민당, 정동영 국민모임, 천정배 국민회의, 박주선 통합신당,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창당하였다. 잔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 14) 더불어민주당(2015.12.28.~현재)

문재인 대표는 2016년 1월 28일 물러났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면서 공천권과 당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김종인에게 위임하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하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2017년 5월 9일 19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입후보하였고 새누리당은 홍준표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41.1%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하였다. 2020년 5월 13일 합당절차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하였다.

2022년 4월 7일 20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선 이후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였다.



## IV. 연천군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첫 번째 선거가 시작된 이래 1998년 2회, 2002년 3회, 2006년 4회, 2010년 5회, 2014년 6회, 2018년 7회, 2022년 6월 1일까지 8회를 맞이하였다. 2002년 이후 선거만을 살펴기로 한다.

### 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682명, 기초단체장 232명, 기초의원 3,485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자체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한나라당	11	467	140	제3회 지방선거까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없었다.
새천년민주당	4	143	44	
자유민주연합	1	33	16	
민주노동당	0	11	2	
한국미래연합	0	2	0	
무소속	0	26	30	
합계	16	682	232	3,485

한나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1명으로 서울특별시(이명박), 부산광역시(안상영), 인천광역시(안상수), 대구광역시(조해녕), 대전광역시(염홍철), 울산광역시(박맹우), 경기도지사(손학규), 강원도지사(김진선), 충청북도지사(이원종), 경상북도지사(이의근), 경상남도지사(김혁규)였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4명으로 광주광역시(박광태), 전라북도지사(강현욱), 전라남도지사(박태영), 제주도지사(우근민)였다. 자유민주연합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명으로 충청남도지사(심대평)였다.

#### 1) 경기도지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의 입후보자는 한나라당 손학규, 새천년민주당 진

념,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였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손학규 후보가 1,744,291표, 득표율 58.37%였다. 2위 새천년민주당 진념 후보가 1,075,243표, 득표율 35.98%, 3위 민주노동당 김준기 후보가 168,357표, 득표율 5.63%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경기도 도지사로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 2) 연천군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은 총 31명을 선출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각 정당별 기초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24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1명, 무소속이 2명이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한나라당 김규배 후보가 당선되었다.

## 3) 경기도 광역의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지역구 94석과 비례대표 10석, 총 104석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6석 합계 90석, 새천년민주당이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3석 합계 10석, 무소속이 지역구 3석,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0석과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한나라당 심진택 후보, 새천년민주당 연동형 후보, 자유민주연합 임철준 후보, 무소속 이석건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는 한나라당 심진택 후보가 5,562표, 득표율 42.84%로 당선되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적은 총 7명이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4석, 비례대표 1석 합계 5석,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0석 합계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나원식, 한나라당 이원근, 한나라당 윤정환, 열린우리당 유상호, 무소속 이태원, 무소속 이연구, 무소속 안유택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나원식, 이원근 후보 2명과 열린우리당 유상호 후보 1명이었다.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창석, 한나라당 신동진, 한나라당 이성복, 열린우리당 김선기, 민주당 왕규식, 무소속 김

종욱, 무소속 노영호, 무소속 양승권, 무소속 신기수, 무소속 황광일, 무소속 박진훈, 무소속 이봉영이었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김창석, 신동진 후보 2명, 무소속 김봉욱 후보 1명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한나라당 김문자 후보가 당선되었다.

## 2.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자체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한나라당	12	557	155	1,621
민주당	2	80	20	276
열린우리당	1	52	19	630
국민중심당	0	15	7	67
민주노동당	0	15	0	66
무소속	1	14	29	228
합계	16	733	230	2,888

한나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2명으로 서울특별시(오세훈), 부산광역시(허남식), 인천광역시(안상수), 대구광역시(김범일), 대전광역시(박성효), 울산광역시(박맹우), 경기도지사(김문수), 강원도지사(김진선), 충청북도지사(정우택), 충청남도지사(이완구), 경상북도지사(김관용), 경상남도지사(김태호)였다.

민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2명으로 광주광역시(박광태), 전라남도지사(박준영)이었다. 열린우리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명으로 전라북도지사(김완주)였다.

무소속으로 광역단체장은 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태환)이었다.

### 1) 경기도지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의 입후보자는 한나라당 김문수, 열린우리당 진대제였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김문수 후보가 2,181,677표, 득표율 59.68%였다. 2위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가 1,124,317표, 득표율 30.75%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에서 경기도지사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 2) 연천군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총 31명이 선출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각 정당별 기초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27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이 3명이었다.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한나라당 김규배 후보가 당선(재선)되었다.

## 3) 경기도 광역의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회는 지역구 108석과 비례대표 11석 총 119석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108석과 비례대표 7석 합계 115석, 열린우리당 지역구 0석 비례대표 2석, 민주당 지역구 0석과 비례대표 1석, 민주노동당 지역구 0석과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한나라당 심진택 후보, 열린우리당 윤정아 후보, 무소속 연동연 후보, 무소속 이덕구 후보, 국민중심당 이석건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는 한나라당 심진택 후보가 6,179표, 득표율 50.49%로 당선되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적은 총 7명이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4석, 비례대표 1석 합계 5석,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0석 합계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나원식, 한나라당 이원근, 한나라당 윤정환, 열린우리당 유상호, 무소속 이태원, 무소속 이연구, 무소속 안유택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나원식, 이원근 후보 2명과 열린우리당 유상호 후보 1명이었다.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창석, 한나라당 신동진, 한나라당 이성복, 열린우리당 김선기, 민주당 왕규식, 무소속 김종욱, 무소속 노영호, 무소속 양승권, 무소속 신기수, 무소속 황광일, 무소속 박진훈, 무소속 이봉영이었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김창석, 신동진 후보 2명, 무소속 김봉욱 후보 1명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한나라당 김문자 후보가 당선되었다.

###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사체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민주당	7	360	92	1025
한나라당	6	288	82	1247
자유선진당	1	41	13	117
민주노동당	0	24	3	115
창조한국당	0	0	0	1
진보신당	0	3	0	22
국민중심연합	0	0	1	2
국민참여당	0	5	0	24
미래연합	0	1	1	11
친박연합	0	3	0	19
무소속	2	36	36	305
합계	16	761	228	2,888

한나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6명으로 서울특별시장(오세훈), 부산광역시장(허남식), 울산광역시장(박맹우), 경기도지사(김문수), 경상북도지사(김관용)이었다.

민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7명으로 인천광역시장(송영길), 강원도지사(이광재), 충남도지사(안희정), 충북도지사(이시종), 광주광역시장(강운태), 전라북도지사(김완주), 전라남도지사(박준영)이었다.

무소속으로 광역단체장은 2명으로 경상남도지사(김두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우근민)이었다.

#### 1)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유권자 8,761,840명 중 4,534,77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무효표수 183,387표, 투표율 51.76%였다. 입후보자는 한나라당 김문수, 국

민참여당 유시민, 진보신당 심상정이었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김문수 후보가 2,271,492표, 득표율 52.20%였다. 2위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2,079,892표, 득표율 47.79%였다.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경기도 도지사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기도 교육감은 김상곤 후보가 1,846,083표, 득표율 42.3%로 당선되었다.

## 2) 연천군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총 31명이 선출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각 정당별 기초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19명, 무소속이 2명이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규선, 민주당 장기현, 자유선진당 심진택, 무소속 박영철, 무소속 최의순, 무소속 이석권였다. 연천군 선거인 수 36,674명 중 투표자 수 22,657명, 무효 526표, 투표율 61.78%였다. 연천군수 투표결과, 1위 한나라당 김규선 후보가 7,981표, 득표율 36.06%로 당선되었다. 2위 민주당 장기현 후보가 4,189표, 득표율 18.92%였다. 3위 무소속 박영철 후보가 3,784표, 득표율 17.09%였다. 4위 자유선진당 심진택 후보가 3,309표, 득표율 14.95%였다. 5위 무소속 이석권 후보가 774표, 득표율 3.49%였다. 민선 5기 연천군수는 한나라당 김규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 3) 경기도 광역의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회의 선거에서 지역구 112석과 비례대표 12석, 총 124석이 선출되었다. 각 정당별로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42석, 민주당이 76석, 민주노동당이 1석, 진보당이 1석, 국민참여당이 2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한나라당 김광철 후보, 민주당 박충식 후보, 무소속 임세규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은 한나라당 김광철 후보가 의원으로 11,424표, 득표율 52.36%를 얻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적은 총 7명이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4석, 비례대표 1석 합계 5석,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0석 합계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증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종만, 한나라당 나원식, 한나라당 이규득, 민주당 유상호, 무소속 이원근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이종만, 나원식 후보 2명과 민주당 유상호 후보 1명이었다.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왕영관, 한나라당 정찬우, 한나라당 신동진, 민주당 왕규식, 자유선진당 연동현, 자유선진당 이성복, 무소속 김선기, 무소속 김광철, 무소속 연구성이었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 왕영관, 정찬우 후보 2명, 민주당 왕규식 후보 1명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한나라당 조순옥 후보가 당선되었다.

####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자치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9	349	80	1,157
새누리당	8	416	117	1,413
통합진보당	0	3	0	34
노동당	0	1	0	6
정의당	0	0	0	11
무소속	0	20	29	277
합계	17	789	226	2,898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9명으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광주광역시장(윤장현), 대전광역시장(권선택), 세종특별자치시장(이춘희), 강원도지사(최문순), 충청남도지사(안희정), 충청북도지사(이시종), 전라북도지사(송하진), 전라남도지사(이낙연)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8명으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부산광역시장(서병수), 대구광역시장(권영진), 울산광역시장(김기현), 경기도지사(남경필), 경상북도지사(김관용), 경상남도지사(홍준표), 무소속 광역단체장은 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이다.

## 1)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유권자 9,679,317명 중 5,156,69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무효표수 149,886표였다. 입후보자는 새누리당 남경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였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남경필 후보가 2,524,981표, 득표율 50.43%였다. 2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2,481,824표, 득표율 49.56%였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경기도 도지사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재정 후보가 1,661,034표, 득표율 36.5%로 당선되었다.

## 2) 연천군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총 31명이 선출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각 정당별 기초자치단체장은 새누리당이 13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7명, 무소속이 1명이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입후보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규선, 새정치민주연합 이태원, 무소속 정경식, 무소속 이효재였다. 연천군 선거인 수 38,253명 중 투표자 수 22,622명, 무효 515표, 투표율 59.13%였다. 연천군수 투표결과, 1위 새누리당 김규선 후보가 11,592표, 득표율 28.93%로 당선되었다. 2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태원 후보가 6,397표, 득표율 47.77%였다. 3위 무소속 정경식 후보가 2,189표, 득표율 9.90%였다. 4위 무소속 이효재 후보가 1,929표, 득표율 8.72%였다. 민선 6기 연천군수는 새누리당 김규선 후보가 당선(재선)되었다.

## 3) 경기도 광역의회

경기도의회는 지역구 116명, 비례대표 12명, 총 128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의석수는 새누리당 지역구 44석과 비례대표 6석을 합쳐 총 50석,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72석과 비례대표 6석을 합쳐 총 78석을 차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새누리당 김광철 후보와 무소속 박찬홍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철 후보가 의원으로 14,195표, 득표율 64.20%를 얻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경기도 기초의회 의석 수는 총 431석, 연천군의회 의원은 7석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적은 총 7명이며, 가선

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4석, 비례대표 1석 합계 5석,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0석 합계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증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심상금, 새누리당 이종만, 새누리당 서진근, 새정치민주연합 조봉안, 무소속 박영철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새누리당 심상금, 이종만 후보 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조봉안 후보 1명이었다.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서성추, 새누리당 정찬우, 새정치연합의 왕규식이었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새누리당 서성추, 정찬우 후보 2명, 새정치민주연합 왕규식 후보 1명이었다. 나선구의 입후자들 모두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 장애정 후보가 당선되었다.

## 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6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되었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사체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더불어민주당	14	652	151	1,640
자유한국당	2	137	53	1,009
민주평화당	0	3	5	49
정의당	0	11	0	26
바른미래당	0	5	0	21
민중당	0	0	0	11
무소속	1	16	17	172
합계	17	824	226	2,926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4명으로 서울특별시(박원순), 부산광역시(오거돈), 인천광역시(박남춘), 광주광역시(이용섭), 대전광역시(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울산광역시(송철호), 경기도지사(이재명), 강원도지사(최문순), 충청남도지사(양승

조), 충청북도지사(이시종), 전라북도지사(송하진), 전라북도지사(김영록), 경상남도지사(김경수)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2명으로 대구광역시(권영진), 경상북도지사(이철우)이다. 무소속 광역단체장은 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이다.

### 1)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유권자 10,533,027명 중 6,084,95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기권수 4,448,072명, 무효표수 109,428표였다. 입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규였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이재명 후보가 3,370,621표, 득표율 56.41%였다. 2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2,122,433표, 득표율 35.52%였다. 3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287,504표, 득표율 4.81%였다. 4위 정의당 이홍우 후보 151,871표, 득표율 2.54%였다. 5위 민중당 홍성규 후보 43,098표, 득표율 0.72%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경기도 도지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재정 후보가 2,385,336표, 득표율 40.8%로 당선되었다.

### 2) 연천군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입후보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왕규식, 자유한국당 김광철이었다. 연천군 선거인 수 38,497명 중 투표자 수 24,792명, 무효 563표, 기권수 13,705명, 투표율 64.4%였다. 연천군수 투표결과, 1위 자유한국당 김광철 후보가 기호 2번으로 12,655표, 득표율 52.23%로 당선되었다. 2위 기호 1번의 더불어민주당 왕규식 후보가 11,574표, 득표율 47.77%였다. 자유한국당 김광철 후보가 민선 7기 연천군수로 당선되었다.

### 3) 경기도 광역의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회는 지역구 129석과 비례대표 13석 총 142석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28석, 비례대표 7석 합계 135석, 자유한국당 지역구 1석, 비례대표 3석 합계 4석, 정의당 지역구 0석 비례대표 2석 합계 2석, 바른미래당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덕현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 당선된 광역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의원으로 13,036표, 득표율 54.80%를 얻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총 44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1석, 자유한국당 144석, 정의당 5석, 바른미래당 4석, 민중당 2석, 무소속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석은 총 7명이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4석, 비례대표 1석 합계 5석,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0석 합계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서희정, 더불어민주당 임재석, 자유한국당 심상금, 자유한국당 정재범, 무소속 조봉안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심상금 1명과 더불어민주당 서희정, 임재석 2명이었다.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최승태, 자유한국당 김미경, 자유한국당 정찬우, 자유한국당 심미영, 바른미래당 윤종영, 무소속 서성추, 무소속 박양희였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최승태 2명, 자유한국당 김미경 1명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애 후보가 당선되었다.

###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8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별로 선출된 지자체장, 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국민의힘	12	540	145	1435
더불어민주당	5	322	63	1384
진보당	0	3	1	7
정의당	0	2	0	17
무소속	0	5	0	144
합계	17	872		2,98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치루는 지방선거였다. 전국 투표율은 50.9%를 기록하였다. 경기도 투표율은 50.6%를 기록하였다.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12명으로 서울특별시(오세훈), 부산광역시(박형준), 대구광역시(홍준표), 인천광역시(유정복), 대전광역시(이장우), 울산광역시(김두겸), 세종특별자치시(최민호), 강원도지사(김진태), 충북도지사(김영환), 충청남도지사(김태흠), 경상북도지사(이철우), 경상남도지사(박완수)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5명으로 광주광역시(강기정), 경기도지사(김동연), 전라북도지사(김관영), 전라남도지사(김영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이다.

## 1)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 11,497,206명 중 5,762,8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무소속 강용석, 정의당 황순식, 진보당 송영주, 기본소득당 서태성이었다.

경기도지사 투표결과, 1위 김동연 후보가 2,827,593표, 득표율 49.06%를 얻었다. 2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818,680표, 득표율 48.91%를 얻었다. 3위 무소속 강용석 후보 54,758표, 득표율 0.95%를 얻었다. 4위 정의당 황순식 후보 38,525표, 득표율 0.66%를 얻었다. 5위 진보당 송영주 후보 13,939표, 득표율 0.24%였다. 6위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 9,314표, 득표율 0.16%를 얻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경기도 도지사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기도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3,081,100표, 득표율 54.79%로 당선되었다.

## 2) 연천군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인 연천군 군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역대 연천군 군수 당선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입후보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덕현,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무소속 김광철이었다. 연천군 선거인 수 37,898명 중 투표자 수 22,797명, 무효 509표, 투표율 60.15%였다.

연천군수 투표결과, 1위 김덕현 후보가 기호 2번으로 10,580표, 득표율 47.56%로 당선되었다. 2위 기호 1번의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가 6,000표, 득표율 26.92%였다. 3위 기호 4번 김광철 후보가 5,708표, 득표율 25.61%였다. 김광철 군수는 민선 7기 현직 연천군 군수로서



〈역대 연천군 군수〉

대수	이름	재임기간	
32대	이중익	1995.7.1~2002.6.30	민선1·2기
33대			
34대	김규배	2002.7.1~2018.6.30	민선 3·4기
35대			
36대	김규선	2010.7.1~2018.6.30	민선 5·6기
37대			
38대	김광철	2018.7.1~2022.6.30	민선7기
39대	김덕현	2022.7.1~현재	민선8기

여당 공천 컷오프에 불만을 품고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 군수로 기호 2번 김덕현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김덕현 군수는 1956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태어난 연천군 토박이다. 김 군수는 젊은 시절부터 연천군 공직에 몸담으면서 지역경제과장, 연천군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등 중요 요직을 두루 경험한 일꾼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후보로 나서기도하였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김 군수는 자신의 연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공약으로 군민들의 마음을 얻어 제39대 경기도 연천군수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덕현 군수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급행전철 GTX 연천연장
- 경원선 전철 1호선 직통화
- 연천읍 전철1호선 종점역 역세권 개발
- 전곡읍 헬스케어센터 건립
- 전곡역 역세권 개발
- 군남면 군자산~옥녀봉 힐링타운 조성
- 미산 왕징면 골프장 유치
- 청산면 초성리역 역세권개발
- 백학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 신서면 사이클 경기장 설립
- 중면 두루미 테마파크 조성
- 장남면 연천 서부권 관광벨트 조성

### 3) 경기도 광역의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선거 결과 총 156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구 8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 78석을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71석, 비례대표 7석을 얻어 78석을 차지하였다. 다른 정당과 무소속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연천군에서는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와 국민의힘 윤종영 후보가 나왔다. 연천군에서 당선된 광역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으로 12,478표, 득표율 57.28%를 얻었다.

경기도 광역의회 비례대표로는 국민의힘 조희선, 이용호, 이서영, 최승용, 이채영, 양우식, 정경자, 김도훈 총 8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장민수, 최효숙, 김선영, 황세주, 박재용, 김옥순 총 7명이었다.

### 4) 연천군 기초의회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 결과 총 463석(지역구 406석, 비례대표 57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32석을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9석을 차지하였다. 진보당과 무소속은 각각 1석씩 차지하였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연천군 기초의회 의원 재적은 총 7명이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3명, 비례대표 1명이었다. 정당별 의석 수는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가선거구는 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증면이었다.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구, 더불어민주당 서희정, 국민의힘 박영철, 국민의힘 심상금이었다. 가선거구의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영철과 심상금 2명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구 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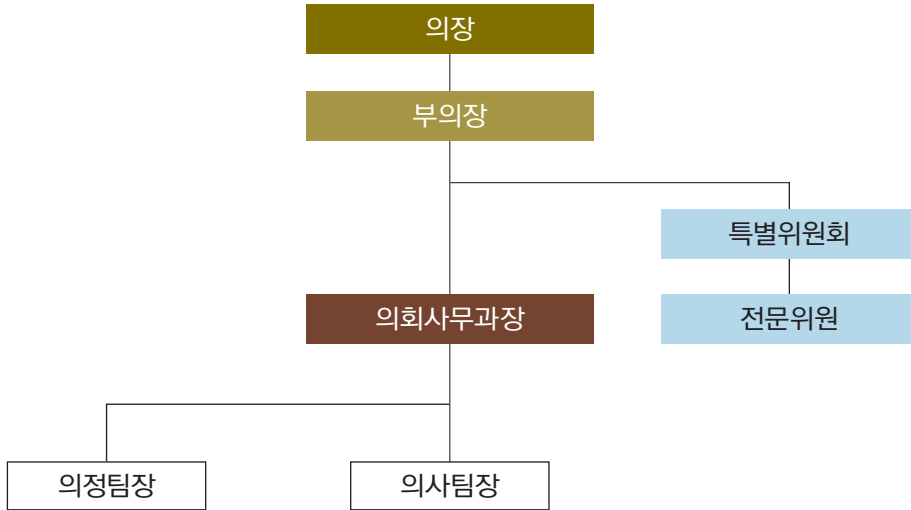
나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이었다. 나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양희, 더불어민주당 최영효, 국민의힘 박운서, 국민의힘 김미경, 국민의힘 최익창, 무소속 양연숙, 무소속 김경식, 무소속 최승태였다. 나선거구의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운서, 김미경 2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양희 1명이었다.

연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로는 국민의힘 배두영, 더불어민주당 유영숙이 참여하였으나 국민의힘 배두영 1명만 당선되었다.

## V. 연천군 의회의 역할

### 1. 구성과 활동

지방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조직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인 의장단이 있고, (특별)위원회, 사무과와 사무직원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권, 회의장내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법 제58조), 위원회에 출석 발언권(법 제44조), 조례안의 이송권(법 제32조 제1항), 확정된 조례의 예외적 공포권(법 제32조 제6항),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권(법 제89조) 등을 갖는다.



〈연천군 의회 조직〉

연천군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제8대 연천군의회 의장은 심상금 의원(가선거구), 부의장 김미경 의원(나선거구), 박양희 의원(나선거구), 박운서 의원(나선거구), 박영철 의원(가선거구), 윤재구 의원(가선거구), 배두영 의원(비례대표)이다.

연천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 연천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조례안 제정 및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군의회는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조례안,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지원조례안, 연천군 두루미 보호조례안,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3년에 심상금 의장은 AI 방역초소를 격려방문하였다. 군의회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였고, 관내 군부대를 격려 방문하였고, 설연휴에는 전국전통시장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 의회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열린광장을 통해 군민, 언론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 언론인(『경도신문』, 「신임연천군 의원께 바란다」, 2022년 7월 18일)은 연천군 의회에 대한 진심어린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적기도 하였다.

“의장으로 당선된 심상금 의장은 우선 의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의회 통합을 위해 의회 운영에 익숙한 의회 분위기를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장은 우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의장의 당선 소감처럼 군정 발전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천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수장으로서 의장은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참 정치와 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기대하게 된다.

그것은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이 분명하기에 그러하다. 진정한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정서와 이해가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화학적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은 아끼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천군을 꿈이 있는 희망의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회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의원으로서 품위와 신의를 저버리고 알뜰한 타산에 의해 이합집산을 한다면 훗날 주민들이 다시 표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연천군의회 의원님들도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2. 연천군의회 기능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다.

### 1) 의결권

지방의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2) 입법권

헌법-법률-명령-조례, 규칙의 법체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의 범위 내에서 군의회는 조례제정 및 조례의 개·폐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다. 조례와 규칙의 제안은 재적의원 1/5 이상,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3) 재정에 관한 권한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 밖에도 결산심사권,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이 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재정입법권이 있다.

#### 4)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 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은 자치단체 업무 전반이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본회의의 의결로 실시한다. 행정감사와 달리 행정조사는 특정 사항에 대해 제한적이며,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5) 자율권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6) 선거권 및 선임·추천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도 의사를 결정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대상은 의장·부의장, 임시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기관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청 또는 법령·조례 규정)이다.

#### 7)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8)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이외에 법령 규정이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



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와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법령 근거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형식으로 발의하여 의결한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의견제시는 일반적으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발의된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이 되는 것이다.

### 9)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자료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10)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또는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 11) 보고 요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집행기관의 보고대상은 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보고받을 사항은 인력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이행상황 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부담원인행위(총사업비 10억원 이하 범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보고 등이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보고 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업무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보고 요구권」은 지방자치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보고일시, 형식, 보고자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의회의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3. 의회 운영

#### 1) 회기 및 집회

의회 내의 선거는 정례회와 임시회는 구분 없이 연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집회는 정례회의 경우 1차 회기는 매년 6월 1일(단, 지방선거 실시연도는 9·10월 중) 개최하며, 2차 회기는 매년 11월 18일 개최한다. 임시회의 경우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15일 이내 소집할 수 있다.

#### 2) 본회의

본회는 발언자유, 회의공개, 회기계속, 일사부재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 정족수는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한다. 일반 안건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특별한 안건은 군의회 규칙에 별도 규정한다. 의원은 군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의회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무기명투표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특별위원회의 기능은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할 경우, 예산결산처리, 행정사무감사 경우 등이다.

#### 3) 청원 및 진정

연천군 주민으로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천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진정의 경우 진정서는 군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Ⅵ. 지방자치행정

제 5 권

연 천 의  
정 치 와  
행 정

연 천 의  
경 제 와  
산 업

연 천 의  
사 회

대한민국관  
연천군  
미 리 관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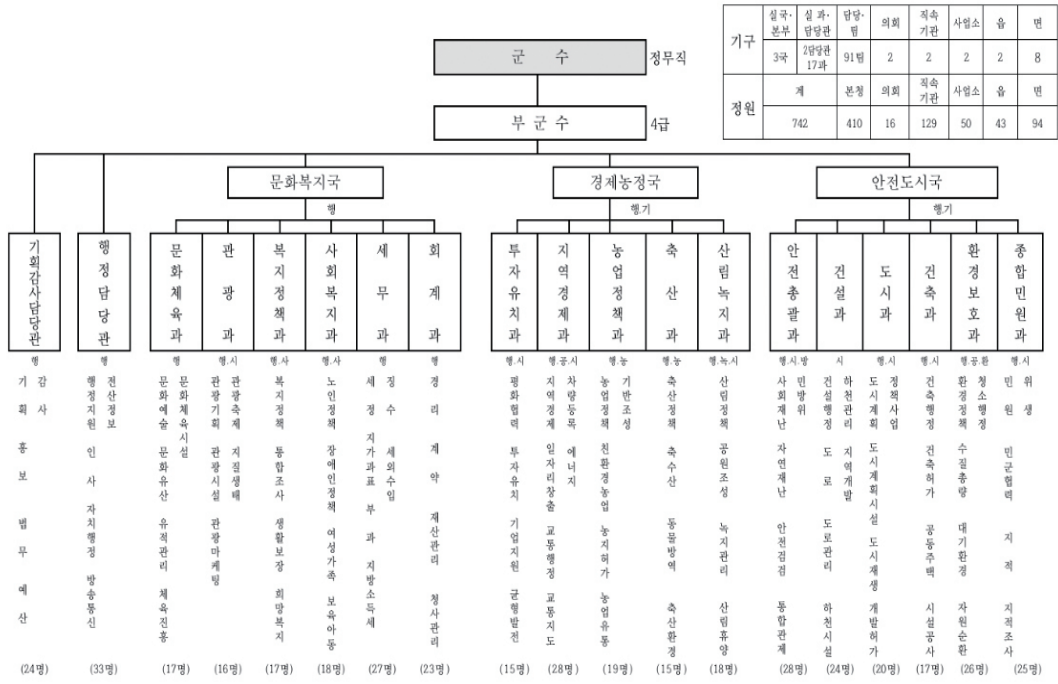
### 1. 행정기구

#### 1) 연천군 행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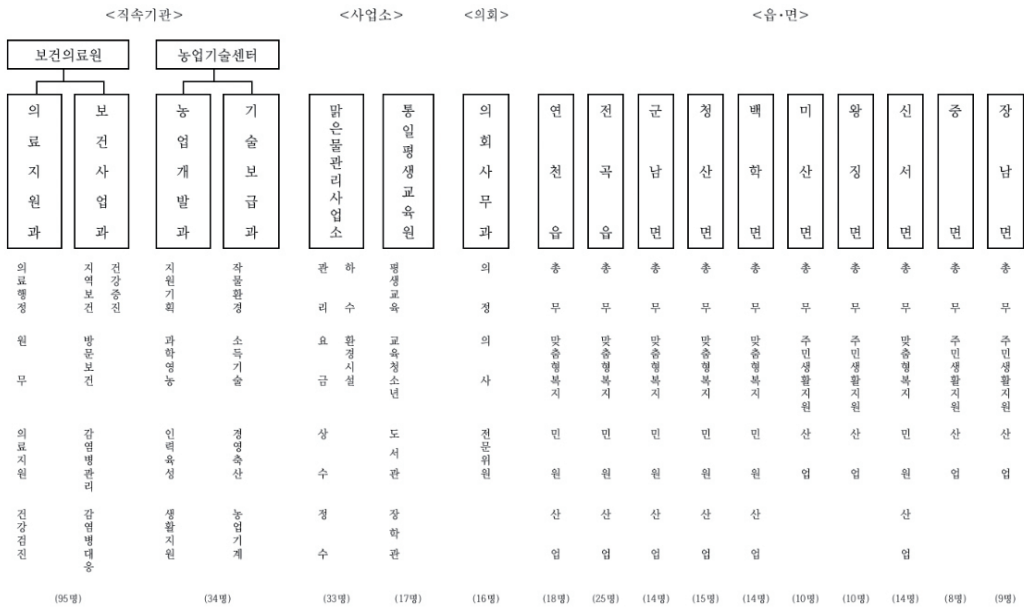
2022년 6월 1일 민선8기 연천군수로 당선된 김덕현 군수는 ‘yes, 연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차고 독심 있게 군정을 이끌고 있다. 현재 연천군은 김덕현 군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날이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연천군은 2020~2023 연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생태,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산업기반구축과 SOC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 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립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 신서 도시권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국도 3호선, 국도 37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연천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북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덕현 군수를 중심으로 연천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연천이라는 비전 아래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을 군정의 기본 운영 방침으로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쉬 없이 전진하고 있다.

연천군의 군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된 연천군의 행정기구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다.



〈2023년 연천군 행정 기구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기구표〉

## 2) 군수 및 간부 명단

〈역대 군수 명단(민선 3기~8기)〉

역대	성명	재직기간	비고
34	김규배	2002.7.1.~2006.6.30	민선3기
35	김규배	2006.7.1.~2010.6.30	민선4기
36	김규선	2010.7.1.~2014.6.30	민선5기
37	김규선	2014.7.1.~2018.6.30.	민선6기
38	김광철	2018.7.1.~2022.6.30.	민선7기
39	김덕현	2022.7.1.~현재	민선8기

〈부군수 명단(2000~2022)〉

역대	성명	재직기간	비고
9	박광석	2000.2.17.~01.7.22	
10	김정한	01.7.28~03.2.14	
11	유재우	03.2.15~04.2.8	
12	이병만	04.2.9~05.2.10	
13	김인규	05.2.11~05.5.20	
14	조경행	05.5.21~06.9.20	
15	박광일	06.9.21~07.12.23	
16	한용각	07.12.24.~09.12.31	
17	윤항덕	10.1.1~11.12.30	
18	손경식	12.1.6~13.1.6	
19	신남현	13.1.7~13.6.30	
20	김한섭	13.7.1~14.10.1	
21	연제찬	14.10.2~16.1.4	
22	김정기	16.6.5~17.1.1	
23	정의돌	17.1.1~18.12.31	
24	박성남	19.1.1~20.12.31	
25	황영성	21.1.1~21.12.24	
26	박종민	22.1.1~현재	

〈간부명단(2023.1.1.)〉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군 수	정 무 직	김 덕 현	
부 군 수	지방기술서기관	박 종 민	
연구정책사업실장	지 방 서 기 관	김 남 호	
행정복지국장	지 방 서 기 관	지 영 철	
산업도시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규 환	
보건의료원장	지방기술서기관	최 병 용	
농업기술센터장	지방농촌지도관	이 경 현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 관 섭	
행정 담당 관	지방행정사무관	황 영 섭	
미디어컨텐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영 민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재 구	
관광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원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계 은 석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오 릴 리	
종합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순 미	
세 무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석 준	
회 계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승 원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남 상 규	
안정총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학 송	
건설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임 재 신	
도시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최 종 오	
건축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한 회 영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박 영 선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선 규	
축 산 과 장	지방농업사무관	정 화 일	
산림복지과장	지방녹지사무관	김 종 훈	
의료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부 성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임 영 국	
농업개발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 경 현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 원 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오 행 근	
통일평생교육원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재 범	
의회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주 연	
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임 재 봉	
연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만	
전곡읍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수 철	
군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동 선	
청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석 휘	
백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종 희	
미산면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용 희	
황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국 현	
신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승 주	
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유 미	
장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인 순	



## 2. 자치행정

이 장에서는 본청 기구에 속한 각실, 과, 소가 담당하는 자치행정 업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중 사회복지, 보건, 위생에 대한 서술은 연천의 정치와 행정 편에서 이미 수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군수의 군정, 기획감사,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관광체육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군수의 군정 및 장기발전구상

#### - 군수의 군정 지표(방침)

김덕현 군수는 2023년 2월 1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야심찬 연천군 발전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8기 연천군수로 취임 이후 10개 읍면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현장을 살피며 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만난 군민들의 상황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들 낙후된 지역경제를 걱정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연천군수로서 군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연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군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을 위한 교통, 문화, 관광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둘째, 김덕현 군수는 민선8기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슬로건 ‘Yes 연천!’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선8기 연천군의 슬로건인 ‘Yes, 연천!’은 군민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연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관행을 깨고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연천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핵심적으로 담았다.”

셋째, 김덕현 군수는 ‘10만 명 거주하는 연천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례군’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기초단체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특례 시·군·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련 사무가 이양되고 이에 따라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김덕현 군수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22년 기준 연천군의 예산은 약 5700억원이다. 이를 매년 20%씩 늘려 2026년에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이 예산을 연천군을 살리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지정했다. 여기에 연천군도 포함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

응기금으로 연간 총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연천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다섯째, 김덕현 군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GTX-C 연장, 서울~연천 고속도 착공 등 교통망 확충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교통망이라고 생각한다. 민선8기 연천군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1호선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연천 구간은 총 20.9km로 복선 전제 단선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사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연천간 고속도로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남북5축으로 명명됐다. 고속도로의 길이 50.7km, 총사업비는 2조8051억원 규모다.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천 연장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GTX-C노선을 전곡역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섯째, 연천군은 유네스코(UNESCO) 2관왕 지역으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이러한 생태관광 자원과 역사유적 자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다. “연천은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청정도시’이다. 이러한 청정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2024년까지 임진강 주상절리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부권 역사문화 관광상품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부권에는 송의전, 경순왕릉, 호로그루, 당포성 등 문화유산들이 있다. 이를 임진강 주상절리 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임진강과 한탄강 수변구역 개발도 계획 중이며, 연천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일곱째, 내년 7월 열리는 ‘UN군 참전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행사 유치의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연천은 6·25전쟁 당시 UN병력지원 16개국 모두가 전투를 벌인 유일한 지역이다. 또한 6·25전쟁 막바지 UN군의 코만도 작전으로 사수한 경계를 정전협정까지 지켜낸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접경지역으로 70년 넘게 희생한 지역의 상징성을 더하면 UN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의 상징이자 희망의 땅으로 참전용사와 전우 모두의 기억이 함께하는 장소인 만큼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연천군에서 열릴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70주년 기념

행사 개최를 통해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연천군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 청소년의 교류와 화합을 비전으로 설립된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합수머리의 유려한 자연경관과 국가통일원점인 중부원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정전 70주년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여덟째, 김덕현 군수는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4만2000여 명의 연천군민들께서 처음으로 행정인 출신을 연천군수로 선택해 주셨다. 행정인 출신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클 것으로 생각한다. 주어진 4년의 시간, 연천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관행을 과감히 깨고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군민이 ‘Yes’라고 할 때까지 군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 2) 군청 기구 및 정원

연천군청의 기구는 실국·본부 3국, 실과·담당과 2담당관 17과, 담당·팀 91팀, 의회 2팀, 직속기관 2팀, 사업소 2개, 읍 2곳, 면 8곳이다. 군청 정원은 본청 410명, 의회 16명, 직속기관 129명, 사업소 50명, 읍 43명, 면 94명 총 742명이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천군청 기구〉

기구	실국·본부	실과·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3국	2담당관 17과	91팀	2	3	2	2	8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742		410	16	129	50	43	94

## 3) 자치행정 사무분장

### (1) 군 본청

군 본청에는 문화복지국,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 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농정국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통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군 본청의 사무분은 기획감사,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관광체육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기획감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관리업무, 홍보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감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기획관리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추진실적평가, 공약사항관리,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운영, 군수지시사항 관리, 통계관리이다. 예산운영은 세입예산의 구성, 세출예산의 구성, 특별회계이다. 법무관리는 법제관리, 송무관리이다. 감사관리는 자체감사활동, 외부감사활동, 군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이다.

기획업무의 추진은 행정에서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과 추진과정의 관리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및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기획업무는 최선의 기획에 의한 군정 전반의 업무 추진으로 재정, 인력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연천군의 기획은 행정전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과 군의 장, 단기 계획의 조화를 이끌어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획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부서의 주요 업무인 주요업무계획과 자체평가만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 업무계획은 연천군에서 1년간 추진할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각 부서원소별로 수립하여 보고회를 갖고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보고기간은 10월 중순 혹은 하순이다. 실시부서는 2021년 기준 총 26개 부서, 원, 소, 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한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사업성과 및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이다.

기획부서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체평가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군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관역량 등을 평가한다. 2022년 최우수 부서는 세무과, 건설과, 신서면이었고, 우수 부서는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미산면이었고, 장려 부서는 통일평생교육원, 보건사업과, 왕징면이었고, 노력 부서는 투자유치과로 각각 나타났다.

## (3) 자치행정

자치행정은 크게 자치행정과 민원행정으로 대별된다. 자치행정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 계각층에서 분출하고 있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의 담당부서별 기능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업무는 일반행정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자치행정, 통신·전산관리로 구분되어 군정 업무의 실효를 높일 수 있게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의 자치행정은 민주화, 정보화로 날로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군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된 불요불급한 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사회복지의 실현과 미래

를 위한 생산적인 부서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업형 공직사회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 조직관리의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2022년 현재 3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0개 읍·면 742명의 공무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개편〉

개편일	2021.1.4	2022.1.13
개정이유	○정책기능과 사업기능 분리를 통해 능동적 정책 결정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안전망 강화	○2021년 조직진단, 분석결과 및 기준 인건비 반영
주요내용	○기구조정(3국 2담당관 2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2읍·명) -분리: 도시주택과 →도시과, 건축과 -폐지: 선사관리사업소 -정원조정: 699 →724명	○기구조정(증감없음) -정원조정: 724 → 742명

〈연도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

	2021		2022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724	722	742	703
본청(의회포함)	413	413	426	401
직속기관	126	125	129	121
사업소	50	50	50	48
읍·면	135	134	137	133

연천군 본청은 주요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수요 증가로 2022년 426명을 유지하고 있다.

〈본청공무원 현황〉

연도별	계	지방공무원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지도직	연구직
2021	413	1	4	21	107	125	92	58	1		4
2022	426	1	4	21	110	129	97	59	1		4

읍·면은 행정의 다양화로 주민의 욕구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읍·면 공무원 현황〉

연도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2021	135	10	36	35	31	23
2022	137	10	36	39	36	16

연천군의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인력의 확보나 시급한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임용현황〉

	계	행정직				기술직					연구, 지도직	기타
		6급	7급	8급	9급	4급	6급	7급	8급	9급		
2021	76	1	4		31			2	6	17	1	14
2022	70		3		29		1	1	6	10	6	14

공직사회의 승진제도는 공무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한다. 승진기회는 조직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직렬별, 직급별로 모든 공무원이 대상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다. 승진대상자는 경력, 직무능력을 평가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연천군에서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능력, 신뢰도에 비중을 두어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승진임용현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지도직
2021	126	3	8	34	27	53	1
2022	120	2	11	25	29	53	-

연천군에서는 기록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를 말한다.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의 수집, 보존, 폐기 및 활용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연천군의 기록물관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천군은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활용하고 있다. 군에서는 2009년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연천군의 귀중한



역사자료로 남을 공공기록물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보존문서현황(비전자 기록물)(2022.6.30. 현재, 단위: 철)〉

구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총계(권)	53,636	10,992	18,177	2,909	5,072	9,614	6,872
문서(권)(대장포함)	44,791	4,376	17,469	1,933	4,544	9,597	6,872
카드(권)	8,256	6,495	571	735	455	0	0
도면(권)	589	121	137	241	73	17	0

〈기록물 생산현황(전자기록물)(전자-비전자 혼용 포함, 단위: 건)〉

구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020	980,772	26,107	140,657	16,680	116,967	534,788	141,993	3,580
2021	841,733	24,842	88,888	19,151	84,554	477,413	141,070	5,815

(4) 민원행정

연천군의 민원행정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에서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편의 위주의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였다. 군 민원행정에서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시켜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현황〉

		2021	2022. 6.30
총계		225,182	145,702
군청민원	유기민원	67,732	34,711
	제증명	15,891	34,487
읍·면 민원	제신고	15,414	6,272
	제증명	126,145	70,225

연천군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서비스행정부서에서는 수요자 편의 위주로 민원창구 운영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성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한 물론 민원처리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사전방문상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연천군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감동의 대민봉사를 실천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원서비스행정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면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주민등록현황〉

	총인구	유형별 인구수		세대수
		남	여	
2021	42,721	22,399	20,322	22,002
2022.6.30	42,625	22,394	20,231	22,099

연천군에서는 부정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증명제도를 보완하여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자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및 인감과 비교〉

구분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인간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신분증 및 무인확인	신분증 및 무인확인
확인방법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 증명서의 인영 일치여부 비교	-확인서에 기재된 용도, 위임받은 사람과 관련서류의 내용비교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 무관
서식	-용도: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 용도, 기타 -위임받은 사람: 미기재	-용도: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 용도, 기타 -위임받는 사람: 기재(성명, 주소)
시행일	1914.7.7	2012.12.1

연천군에서는 민원행정의 일환으로 민·군(軍) 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 운영

중이다.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8%에 해당되어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의 군대부대와의 갈등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군 관련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5년 1월 14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종합과에 <민군협력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군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군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협의 추진실적〉

구분	협의건수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동의률
2021	265	123	97	45	75%
2022.6.30	137	50	62	25	62%

연천군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주요 도로변 및 유희 군사시설 주변 등 군사적 활용이 미미하나 기존 위탁지역 내라도 고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작전상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위탁을 확대함으로써 군사협의로 주민피해와 군사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3. 재무행정

#### 1) 세무행정

민선8기로 접어들면서 군민들은 지역발전과 복지편익에 대해 그 어떤 때보다도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연천군은 각종 지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정의 효과적인 응용과 안정적인 자주세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납세자는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과세자료를 조사 관리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납부 방식에 있어서도 납세자들은 편리하고 쉽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시급한 과제는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과 과세누락 없는 공평한 과세부과이다. 군 세무행정은 이를 통해 자주재정을 확충하여 개발 및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수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산화된 지방세 업무의 고도화 사업, 누락세원의 발굴 추진,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 (1) 지방세법의 변화

지방세법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군 세무행정에는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였다. 군 세무행정은 사업소 등에 대해서 부과하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2022년 군 세무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군 세무행정에서는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연천군은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개정을 이루었다.

### (2) 지방세 확충

연천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인근 시군의 택지개발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펼친 재정확대정책으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을 유발했다. 정부정책의 결과로 1인당 담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적용비율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방세 추이〉

	2021	2022년 6월
지방세 징수액	35,294,611	21,166,941
1인당 담세액	826	496
연말인구	42,721	42,629

※1인당 담세액과 관련 없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군세 징수액임

〈지방세 징수 현황(단위: 백만원)〉

		2021	2022.6월
합계		96,916	45,313
도세	소계	35,495	13,960
	취득세	25,403	9,937
	등록면허세	2,490	1,342
	레저세	-	11
	지역자원시설세	812	64
	지방교육세	6,571	2,492
	과년도	219	114
군세	소계	61,421	31,353
	담배소비세	5,472	10,602
	주민세	578	139
	지방소득세	7,743	4,922
	재산세	7,022	16
	자동차세	29,774	12,428
	-자동차세	3,647	10,186
	-유가보조금	26,127	10,186
	과년도	642	613

연천군의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지방세 징수 현황은 표와 같다. 지방세 징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경우 연천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신축건물, 생산시설, 상가 등이 적어 거래세인 취득세가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급변하며 상당한 폭으로 증감하고 있으며, 2022년 들어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나, 2022년에 한정하여 1세대 주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어 주택 재산세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9% 상승에서 이후 매년 5~6%가 증가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7% 상승에서 매년 2~3%씩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재산세가 5,817백만 원에서 2021년 7,022백만 원으로 1,205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향후 공정시작가액비율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변동에 따라 매년 5~6억 원씩 재산세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2018년 3,396백만 원에서 2021년 3,647백만 원으로 351백만 원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후 인구유입에 따라 차량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세액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 중 납부 시 10%의 세액이 할

인됨에 따라 2018년 연납세액이 1,127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서 2022년 1,482백만 원으로 연납세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할인율이 6.4~2.7%로 감소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8년 5,410백만 원에서 2021년 7,742백만 원으로 2,332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으로 양도소득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하여 약 900백만 원 증가, 특별징수분이 관내 주요 법인의 영업 활성화로 약 800백만 원 증가하였다. 그 밖의 요인으로 관내 건설현장의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500백만 원 증가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제약을 받는 지방세와는 달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증대가 가능하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독자적 노력으로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세외수입은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세외수입의 지방재정상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경영화로 경영수입이 개발, 확충되는 등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율(C/B)
합계		40,377	44,744	41,970	94%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15,033	16,195	16,048	99%
	재산임대수입	207	212	137	65%
	사용료수입	3,399	3,539	3,502	99%
	수수료사업	5,547	6,014	5,981	99%
	사업수입	3,306	3,666	3,666	100%
	징수교부금	1,274	1,387	1,387	100%
	이자수입	1,300	1,377	1,375	100%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24,382	27,111	24,903	92%
	재산매각수입	7,359	7,496	7,496	100%
	보조금반환수입	1,700	1,685	1,685	100%
	기타수입	13,573	14,060	14,040	100%
	지난연도수입	1,750	3,870	1,682	43%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소계	962	1,438	1,019	71%
	과징금	81	103	70	68%
	이행강제금	507	690	541	78%
	변상금	18	22	21	95%
	과태료	220	356	220	62%
	환수금	12	12	12	100%
	부담금	124	255	155	61%



## 2) 회계행정

### (1) 결산관리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 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 세출결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결산은 1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익년도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위촉된 결산 감사위원(5인)의 결산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인 결산 검사(4월중)를 한다. 연천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와 승인 절차(6월 1차 정례회기)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결산의 기능은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성과목표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사무처리와 사업시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시행 등에 대한 신증을 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확인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게 된다.

이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 (2) 2021년 회계연도 결산

#### - 예산회계 결산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은 87,493백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이며, 총세출은 695,240백만 원으로 집행율은 80%이다. 잉여금은 총세출을 공제한 175,253백만 원으로서 이월금 129,877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98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8,178백만 원이다.

회계별 결산상황은 일반회계는 세입 759,357백만 원, 세출 626,45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111,136백만 원, 세출 68,784백만 원이다.

〈예산회계결산(단위: 백만원)〉

세입				세출			
구분	결산액	비율	구분	결산액	비율		
총계	870,493	100.5	총계	695,240	80.27		
일반회계	일반회계합계	759,357	100.4	일반회계	일반회계합계	626,456	82.80
	지방세	61,421	103.1		일반공공행정	77,354	96.82
	-보통세	60,779	103.2		공공질서 및 안전	22,097	73.38
	-목적세	642	96.5		교육	6,528	97.34
	-지난과연도수입	41,970	103.9		문화 및 관광	23,976	70.13
	세외수입	16,048	106.8		환경보호	43,872	87.97
	-경상적수입	24,903	102.1		사회복지	94,798	95.21
	-임시적수입	1,019	106.0		보건	10,671	88.6
	지방교부세	182,174	99.7		농림해양산업	60,575	83.3
	조정교부금 등	126,596	99.9		산업, 중소기업	12,627	91.82
	-시군조정교부금	126,596	99.9		수송 및 교통	64,158	81.93
	보조금	178,861	99.9		국토 및 지역개발	145,705	69.25
	-국민보조금	44,029	99.9		예비비	0	0
	-도비보조	168,335	100.1		기타	64,096	93.7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2,335	100.1				
	-보전수입등	6,000	100.1				
	-내부거래						
특별회계	특별회계 합계			특별회계	특별회계합계		
	공기업 특별회계	111,136	101.5		공기업 특별회계	68,784	63
	-상수도공기업	108,669	101.6		-상수도 공기업	66,579	62
	-하수도공기업	57,798	99.6		-하수도 공기업	35,448	61
	기타 특별회계	50,871	103.9		기타특별회계	31,131	64
	-의료급여기금	2,467	100.2		-의료급여기금	2,205	90
	-주차장사업	852	101.5		-주차장사업	830	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3	9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97	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605	100.0		지원사업	68	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605	100.0		-장기미집행지원사업	605	1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68	1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05	76

- 재무회계 결산(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

202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연천군의 총자산은 2,592,713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17,809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574,904백만 원이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연천군의 사업순원가는 220,269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68,517백만 원), 비배분비용(18,133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30,883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76,036백만 원으로서 2021회계연도(연천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05,141백만 원이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인건비 79,897백만 원(15.82%), 운영비 195,980백만 원(38.81%), 정부간이전비용 8,1436백만 원(1.61%), 민간 등 이전비용 179,636백만 원(35.57%), 기타비용 41,379백만 원(8.1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은 -105,141백만 원이다.

(3) 연천군 재정자립도

2022년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61.1%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본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해결되나,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text{재정자립도}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times 100$$

〈2022년 경기도 도시별 재정 자립도(단위: %)〉

시군명	재정자립도	시군명	재정자립도
오산시	31.5	수원시	44.2
김포시	32.8	하남시	44.7
고양시	32.8	성남시	62.2
광명시	33.9	용인시	48.7
광주시	36.0	화성시	58.6
의왕시	36.3	동두천시	13.1
안산시	36.8	의정부시	21.1
시흥시	37.7	포천시	22.6
과천시	38.2	양주시	24.6
안양시	38.9	연천군	14.5
평택시	41.6	가평군	16.8

(4) 계약관리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이 종료되어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완료된다.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원인행위로 추진과정에 합리성과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 종류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을 나라장터(인터넷)로 진행하는 전자입찰제(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가

시행되어 업체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연천군은 2009년부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모든 발주사업을 상반기에 70%이상을 집행하고, 선금은 30~70%를 지급함으로써 연천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계약현황〉

건수		계		공사		용역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21	소계	1,960	131,101,135	1,153	101,770,973	807	29,330,162
	경쟁입찰	126	78,187,058	64	61,945,737	62	16,241,321
	수의(2인)	440	32,204,040	348	28,085,743	92	4,118,297
	수의(1인)	1,394	20,710,037	741	11,739,493	653	8,970,544
2022.6.30	소계	958	53,789,135	532	38,448,433	426	15,340,702
	경쟁입찰	48	29,360,152	23	21,131,320	25	8,228,832
	수의(2인)	198	12,967,446	145	10,782,872	53	2,184,594
	수의(1인)	712	11,416,517	364	6,534,241	348	4,927,276

(5)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

연천군의 공유재산현황, 정수물품관리현황, 청사관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현황(2022.6.30. 현재)(단위: 필, 동, 주, 천㎡, 백만원)〉

구분	수량	면적	평가액	비고
합계	331,696	10,975	1,117,803	
토지	10,002	10,105	500,419	
건물	533	870	331,853	
입목죽	49,490	-	9,985	
공작물	7,344	-	269,557	
기계기구	55	-	804	
선박	2	-	13	
무체재산	461	-	1,886	
유가증권	263,799	-	2,534	
회원권	10	-	752	

〈공유재산 연도별 증감내역(단위: 천㎡, 동)〉

구분	토지	건물
2020	9,316	491
2021	10,003	503

물품의 정수관리는 연천군에서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 목표수행을 위하여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책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 보유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정수물품의 보유 현황〉

	정수물품	
	수량	금액
2020	1,111	12,067,878
2021	1,226	12,952,698

〈청사관리〉

계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7	50,424.6	3	12,162	4	25,569.2	10	12,693.4

## 4. 문화, 체육행정

### 1) 문화행정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 공연문화, 유통관련업소관리, 문화예술, 종교시설에 대해 문화행정을 펼치고 있다.

첫째 공연문화의 경우, 군에서는 건전한 공연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미풍양속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민오락을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유통관련업소관리의 경우, 군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을 함양에 힘쓰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의 경우, 연천군의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지방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각종 예술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연천 수레울 아트홀 전경

## 2) 문화재

연천군은 지방향토문화의 육성발전과 민족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산을 발굴,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정 문화재 목록〉

구분	문화재명	지정별	지정일자	소재지
국가지정	연천 송의전	사적 제223호	71.12.27.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연천 경순왕릉	사적 제244호	75. 6.25.	장남면 고랑포리 산18-1, 산18-2
	연천 전곡리 유적	사적 제268호	79.10. 2.	전곡읍 양연로 1510 일원
	연천 은대리물거미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12호	99. 9.18.	전곡읍 은대리 693-18 일원
	연천 호로고루	사적 제467호	06. 1. 2.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연천 당포성	사적 제468호	06. 1. 2.	미산면 동이리 778 일원
	연천 은대리성	사적 제469호	06. 1. 2.	전곡읍 은대리 577 일원
	연천역 급수탑	등록 제45호	03. 1.28.	연천읍 차탄리 34-373
	연천UN군 화장장시설	등록 제408호	08.10. 1.	미산면 동이리 610, 산77-2번지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569호	22.05.12.	중면 횡산리 1194-1
	연천 재인폭포	명승	23.08.08.	연천읍 부곡리 산235 일원
도지정	정발장군묘	기념물 제51호	79. 9. 3.	미산면 백석리 산34
	연천통현리지석묘	문화재자료 제52호	83. 9.19.	연천읍 통현리 339-1, 88
	오봉사지부도	유형 제131호	86. 5.10.	연천읍 고문리 산73-2
	박진장군묘	기념물 제110호	88.12. 2.	백학면 두일리 산149-2
	연천군심원사지부도군	유형 제138호	91. 4.20.	신서면 내산리 342-1
	연천삼곶리돌무지무덤	기념물 제146호	94. 4.20.	중면 삼곶리 421, 422-5
	연천학곡리고인돌	기념물 제158호	96. 1.18.	백학면 학곡리 273-3, 273-4
	미수허목묘역	기념물 제184호	02. 9.16.	왕징면 강서리 산90번지
	연천차탄리고인돌	기념물 제208호	05.10.10.	연천읍 차탄리 228-3, 228-5
	연천양원리고인돌	기념물 제209호	05.10.10.	전곡읍 양원리 408-4
	연천신답리고분	기념물 제210호	05.10.10.	전곡읍 신답리 17-42, 17-43
	평정공윤호신도비	문화재자료 제137호	05.12. 5.	미산면 아미리 산131-6
	연천학곡리적석총	기념물 제212호	06. 4.24.	백학면 학곡리 20-1,20-2
	연천심원사지	기념물 제213호	06. 8.28.	신서면 동내로 970번길 32-268
	연천 대전리산성	기념물 제226호	20.11.13.	청산면 대전리 산10
군지정	낙선군 묘	향토문화재 제1호	86.04.10	청산면 궁평리 623
	연천향교	향토문화재 2호	86.04.10	연천읍 지혜로 117번길 7호
	북삼리 석조여래입상	향토문화재 3호	12.04.20	왕징면 북삼리 160-4
	운성부원군 묘	향토문화재 4호	86.04.10	장남면 반정리 산55
	팔효문	향토문화재 5호	89.09.22	중면 횡산리 168

군 지 정	영원부원군 묘	향토문화재 6호	87.12.29	미산면 아미리 산132-1
	연천 고인돌공원	향토문화재 7호	12.04.20	연천읍 통현리 199-2 외
	남순하효자문	향토문화재 8호	87.12.29	전곡읍 간파리 230-1
	윤인함 묘	향토문화재 9호	87.12.29	청산면 백의리 산26-1
	아미산울어리	향토문화재 10호	89.09.22	
	미산성주겉이	향토문화재 11호	89.09.22	
	임장서원	향토문화재 12호	01.07.19	연천읍 동막로25번길 170
	강릉 김씨 묘역	향토문화재 13호	12.04.20	연천읍 통현리 산6-1(김시환묘,기계유씨묘)
				미산면 동이리 산23(김상성묘,김노진묘)
			13.11.25	전곡읍 고능리 산77(김양남묘)
	은거당 터	향토문화재 14호	12.04.20	왕징면 강서리 798
	신호 묘	향토문화재 15호	12.04.20	미산면 유촌리 산140-2
	목은 이색 영당	향토문화재 16호	12.04.20	왕징면 왕산로 485-43
	조선 왕가	향토문화재 17호	12.04.20	연천읍 현문로 339-9
	전 기황후릉 터	향토문화재 18호	13.11.25	연천읍 상리 산145
	이진무 묘	향토문화재 19호	13.11.25	군남면 왕림리 산38
	권희 묘	향토문화재 20호	13.11.25	백학면 두현리 산167
	미강서원 터	향토문화재 21호	14.12.09	미산면 동이리 737-2
	홍길민 묘	향토문화재 22호	14.12.09	장남면 판부리 산24
	왕순례 묘	향토문화재 23호	14.12.09	미산면 아미리 산9
	심상우 묘	향토문화재 24호	14.12.09	미산면 유촌리 산123
	연천 승의전 제례	향토문화재 25호	14.12.09	
	김잠 묘	향토문화재 26호	18.01.10	연천읍 읍내리 산1-1
	해주오씨한양종중세장지 표석비	향토문화재 27호	18.01.10	왕징면 북삼리 산131
	노곡2리 산단제례	향토문화재 28호	18.12.13	백학면 노곡리 585-1
	십덕부묘	향토문화재 29호	18.12.13	미산면 아미리 산110
이양소묘	향토문화재 30호	22.05.03	중면 적거리 산21	

### 3) 체육진흥

연천군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로 다양한 체육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읍면에서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계	종합운동장	축구장	체육관	풋살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1	4	2	6	1	18	9	3
56	테니스장	야구장	수영장	궁도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3	2	1	2	2	2	1	

〈민간체육시설〉

	체육도장업	골프(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당구장	무도학원	승마장
45	13	3	6	5	15	2	1

연천군에서는 소득준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향상되면서 지역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 및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예체육회관을 건립하였다. 이를 기회로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문예체육회관〉

	문예회관	체육회관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좌동
연면적	4910.3㎡(지하 1층, 지상 3층)	2,762.43㎡(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오케스트라 PIT등 -지상1층: 대연습실, 사무실 -지상2층: 대공연장(611석) 소공연장(206석) -지상3층: 관람석, 무대제어실	지하1층: 기계실, 전기승강기 등 지상1층: 무대, 관람석, 미팅룸 지상2층: 관람석, 사무실, 공조실 등
광장	11,090㎡(하늘광장, 미래광장, 달의천, 미래쉼터)	

연천군에서는 군민의 각종 체육대회참가 및 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연천을 이루고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연천 공설운동장 전경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계	군대회 개최 및 참가	도대회(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체육교실	생활체육 육성지원
2021	사업량	21	2	4	14	1
	지원액	532,755	19,000	175,000	64,930	273,825
2022.6.30	사업량	23	1	5	16	1
	지원액	537,172	63,000	223,000	111,717	139,455

〈체육회 육성지원현황(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계	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체육 육성지원
2021	사업량	7	2	2	2	1
	지원액	512,319	19,000	90,000	85,000	318,319
2022.6.30	사업량	7	1	2	3	1
	지원액	656,744	63,000	40,000	183,000	370,000

연천군에서는 장애인의 각종 체육대회참가 및 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연천을 이루고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지원〉

연도별	구분	계	군대회 개최 및 참가	도대회(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체육교실	생활체육 육성지원
2021	사업량	15	2	5	7	1
	지원액	338,607	35,000	100,000	21,600	182,007
2022.6.30	사업량	15	2	5	7	1
	지원액	377,070	50,000	100,000	25,100	201,970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지원현황〉

연도별	구분	계	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체육 육성지원
2021	사업량	8	2	3	2	1
	지원액	317,007	35,000	40,000	60,000	182,000
2022.6.30	사업량	8	2	3	2	1
	지원액	351,970	50,000	40,000	60,000	201,970

5. 재난관리

1) 재해대책업무

연천군은 1996년 7월 1999년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무재해 365일 연천을 만든다는 목표와 각오를 세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연천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제정됨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두고 있다. 연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안전본부는 관할구역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본부로부터 지시사항 등을 관장토록 하고 있다.

〈재해대책상황실 반별 임무〉

구분	담당업무	관련부서
상황관리 총괄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상황관리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운영 -위기경보 발령 및 재해위험지역 현장관리관 파견 -재난정보 발령 및 재해위험지역 현장관리관 파견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서 관리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 피해상황 파악 -응급복구 및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상황관리 총괄 인명, 재산피해 현황관리	-안전총괄과
물자관리과	-종합적인 재난 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업무 수행 -방재자원 사전 확보조치 및 동원 협력체계 구축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대책 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해당부서
긴급생활안 정지원	-이재민 구호 상황관리 총괄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관리, 관련기관 전파 공유 -임시주거시설 수용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복지정책과
수색, 구조, 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 실종자 수색 등 소방 총괄관리 -구조, 구급, 소방장비 가동 및 작동상태 유지 -재난규모 변화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 -기타 구조, 구급에 필요한 사항	-연천소방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분야 공공,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사전점검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누출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수집운반시설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환경보호과
긴급통신 지원	-통신분야 공공,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통신시설 피해 및 복구 사항 파악 -긴급통신 지원기관 기술인력 및 지원장비 파악	행정담당관- 유관기관:KT
시설응급 복구	-공공, 사유시설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중앙 및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공공시설별 취약시설, 위험지구, 중점관리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현장사전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 장비확보 및 군병력 장비지원협조 요청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재난유형 소관부서 -건설과 -맑은물관리 사업소
에너지 기능 복구	-에너지분야 공공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에너지 지원 -대규모 전력, 가스 시설물 피해 대비 응급복구체계 확립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침수지역 출입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지역경제과



사회질서 유지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 등 경찰총괄 관리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및 교통통제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각종 여론 청취, 보고	연천경찰서
교통대책	-교통분야 공공,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수송지원 -재해발생에 따른 도로통제 대비 대중교통 대책 -교통두절 예상 취약구간 관리 -시설물 피해 대비 응급복구 인력, 장비 동원태세 점검	-지역경제과 -건설과
의료, 방역	-의료, 방역분야 공공,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의료지원 -응급처치반, 방역기동반 구성 및 운영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보건의료원
자원봉사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 확인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등 추진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행정담당관 -유관기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 방재단
재난수습 홍보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태풍 피해 상황 및 복구에 대한 공보 내용 취합	기획감사 담당관

## 2) 민방위행정

민방위기본법 제2조는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설비, 산업, 문화재 등의 방어와 신속한 복구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으로서 군민방위라고 한다.

### (1) 민방위조직 운영

연천군에서는 민방위 지역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방위 비상동원 등 각종 민방위체제의 내실을 기하여 각종 재난 및 사태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군의 민방위 조직과 체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로 조직되어 있다.

민방위대의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제점검하고 전문분야의 지원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확대 편성하는 등 기능 위주의 조직관리와 자원의 누수 방지는 물론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2022년 1월 현재)〉

구분	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대수	72	66	5	1
인원	1,379	1,184	156	39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연천군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민방위의 생활화를 목표로 1~4년차 편성대원에 대해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하여 연 4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편성 1~2년차 대원에게 집합교육으로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편성 3~4년차 대원은 민방위훈련 참여 등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 지원 시설,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비지정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피시설〉

구분	소요량 (㎡)	확보시설				확보율
		계	자치단체	공공지정	비지정시설	
연천군	37,840	48,059	3,554	44,505	-	127%

(3) 을지연습

연천군에서는 을지연습을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시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을지연습추진실적〉

연습기간	참가인원	실제훈련	도상훈련	핵심, 연구과제토의
10.27~10.29	20	-국지도발 대비 주민대피 및 주민이동 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주민 및 관서이동 훈련	메시지 5건	-주민이동 우발계획 이동 -포격도발 피해 사건 대응

## 6. 도시행정

### 1) 연천군 도시계획의 특성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연천, 전곡, 군남, 신서 4곳이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30.645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때문에 도심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에서는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여건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농촌전원도시적,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방향 및 도시발전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족적 지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선진적 도시 형태를 지향한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계한 문화, 역사, 생태관광개발과 정주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토지이용

연천군에서는 시가지의 발전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한 토지의 용도배분과 적정규모의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토지수요와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편익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용도지역현황〉

구분	계획면적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제3종 주거	준주거	소계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자연녹지
연천군	695.21	4.27	3.62	0.58	0.02	0.05	0.52	0.46	0.06	20.26

### 3) 연천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개는 공

급 주체가 공공기관인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사업의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52종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시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이다. 이 단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사업자의 지정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주어져 있다.

둘째,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경제, 사회적 상황이 최초의 지정 당시와 차이가 나서, 그것을 바꾸려 하더라도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셋째,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되는 효과이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행위 제한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 등의 일부를 제외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즉 기존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도시계획시설현황〉

시설명	개소	면적(연장)	시설명	개소	면적(연장)
일반도로	441개노선	2,956,845(217,538)	수도공급설비	10	151,876
주차장	28	66,262.4	보건위생시설	1	32,804
철도	8	818,354(53,399)	공용청사	5	57,173.5
광장	7	30,319.3	학교	22	419,361
공원	38	834,461.8	체육시설	5	2,667,505.7
녹지	49	237,319.2	사회복지시설	3	14,852
시장	1	1,005			

#### 4) 지구단위계획

연천군의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 새로 도입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는 계획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구단위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정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이 가능

둘째, 3차원 형태의 계획으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물의 높이, 색상까지 수용한다.

셋째, 필지별 개별 행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건물용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까지 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제 5 권

연 천 의  
경 치 와  
행 정

연 천 의  
경 제 와  
산 업

연 천 의  
사 회

대한민국과  
연천군  
리  
미







## 제 2 장

# 연천의 경제와 산업

I. 개관: 연천의 산업구조

II. 연천의 농업·축산업 및 양곡관리

III. 연천의 경제와 장시

IV. 연천의 도시, 도로, 건축, 토지

V. 연천의 관광·레저업



## I. 개관: 연천의 산업구조

역사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합을 벌이던 전략적, 지리적 요충지였다. 고려시대에는 개경을 수도로 삼기도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은 1945년 해방 무렵까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휴전선으로 가로막히면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대립과 대치가 심화되었던 냉전시기에는 지역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김동성,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2018).

경기북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계획에 의한 발전이 더뎠던 곳이다. 연천군 지역은 안보적 차원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sup>3)</sup>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이 서울과 경기남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고려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이 억제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와 제반 도시 중추 관리기능이 서울과 경기남부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었고,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의 운명을 겪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은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또한 서울에 종속적인 저발전과 난개발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올바른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박희봉 외, 「경기북부 지역개발 전략과 과제」, 2002).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도로, 철도 교통 인프라 건설, 일산, 운정, 양주, 다산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의 저발전 낙후성은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 격차도 더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중은 82.7% 대 17.3%이고, 근로자의 임금도 294만 원 대 263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영성 외,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발전전략」, 2022).

이들 접경지역들 중 경기북부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

3) 국방부의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민간인 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구역의 명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구역, 군지(軍地)라고도 한다.

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10개 시, 군의 총면적은 4293.01km<sup>2</sup>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503km<sup>2</sup>), 군사시설보호구역(1,893km<sup>2</sup>), 팔당 특별대책 지역(386km<sup>2</sup>)이다(김갑성 외,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15). 경제적으로는 2018년 경기도 지역내총생산 총 479조 8,222억 원 중에 남부지역 64.7%인 310조 3,550억원 (1인당 GRDP 4,257만원), 북부지역 17.3%인 83조원(1인당 GRDP 2,482만원), 동부지역 18%인 86조 4,680억원(1인당 GRDP 3,884만원)으로 북·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부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17년 기준 1조 3133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지만, 1인당 GRDP는 2,908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 3,531만 원보다 낮으나 경기북부지역평균 2,401억 원보다 높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단위: 백 만 원, 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평균 증감율
경기도	GRDP(백만 원)	381,978,306	407,437,529	451,426,420	
	1인당 생산액(만 원)	3,075	3,234	3,531	
북부	GRDP(백만 원)	68,447,652	73,554,838	79,477,827	
	1인당 생산액(만 원)	2,118	2,243	2,401	
연천군	GRDP(백만 원)	1,313,318	1,285,750	1,311,552	
	1인당 생산액(만 원)	2,919	2,841	2,908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면적비교 조성할 전**경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서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과 동부지역 7개 시·군의 산업특화도(NOHI) 분석, 9대 신성장산업 집중도, 산업단지 업종 특성 분석 방법을 통해 산업경계 낙후 요인, 산업 현황과 특징, 혁신할 수 있는 동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경과원, 「경과원, <경기도 북동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연구보고서」, 2021). 경과원은 내부동력이 약한 북동부지역 산업혁신방안으로 지역과 산업단지를 하나의 혁신단위로 설정하여 혁신을 추진하되, 인근의 미래산업 성장동력(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단지-고양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과 연계하여 혁신을 추진하자는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천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연천군의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천군 총생산액과 업종별 비중(단위: 백만원, %)〉

구분 GRDP		2015		2016		2017	
		비중	GRDP	비중	GRDP	비중	GRDP
1차산업	농림어업	97,947	7.9	96,683	7.8	102,230	7.8
	광업	10,582	0.9	16,185	1.3	20,710	1.6
2차산업	제조업	128,948	10.5	130,252	10.5	150,870	1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	-	-
	건설업	140,667	11.4	116,186	9.4	80,416	6.2
3차산업	도매 및 소매업	35,841	2.9	36,248	2.9	37,813	2.9
	운수업	19,145	1.6	17,945	1.5	17,706	1.4
	숙박 및 음식점업	20,003	1.6	21,515	1.7	22,232	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22	0.3	1,193	0.1	5,119	0.4
	금융 및 보험업	14,900	1.2	13,559	1.1	12,920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997	4.3	55,483	4.5	55,555	4.3
	사업서비스업	37,668	3.1	24,761	2.0	22,338	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516,427	41.9	542,781	43.9	601,054	46.1
	교육서비스업	44,942	3.6	46,100	3.7	49,269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8,768	4.8	63,457	5.1	72,093	5.5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51,735	4.2	54,726	4.4	52,720	4.0
총부가가치		1,233,692		1,237,074		1,303,045	
지역내 총생산		1,313,318		1,285,750		1,311,552	

2017년 기준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2,88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921명, 도매 및 소매업이 1,72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895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천군의 현대 산업단지는 4개이며, 연천 BIX, 통현산업단지는 조성중에 있다.



〈연천군 산업단지 현황(단위: 천㎡)〉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 구역	기타
조성 완료	백학일반산업단지	467	260	2	108	69	
	백학통구일반산업단지	86	66		18		
	장남일반산업단지	188	62	3	1	33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84	127	8	53		
조성 중	연천BIX(은통일반산업 단지)	600	394	23			
	통현산업단지	169					빙그레 단독

연천군의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의 세대수와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경지면적 또한 감소세에 있다. 연천군의 논과 밭의 면적 비중은 논보다는 밭이 더 높다.

〈농가 및 경지면적〉

구분	농가		경지면적(ha)			가구당 면적(ha)
	세대	인구(명)	계	논	밭	
2016	8,322	20,465	8,367	3,966	4,401	100.5
2017	7,810	19,788	8,133	3,756	4,377	104.1

정부는 2019년 '바이오 핵심전략 2025'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하여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5)을 세웠다.

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전자,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 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연천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전략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시장은 2013년 약 8조 8,979억 원에서 연평균 7.25%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11조 7,719억 7,300만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에도 전년도 대비 9.8% 증가하였다.

연천군에서는 4차산업혁명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 흐름 및 연천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바이오산업(농축식품 및 환경분야)을 집중 육성, 경기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거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및 강서리 일원(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에 2021~2030년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연천 바이오산업집적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하여 국비 1,000억 원과 민자 1,000억 원 총 2,000억원을 투자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연천군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천군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천군은 2017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경제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천군과 경과원이 도내 생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둘째, 이 협약을 통해 연천군과 경과원은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생물자원산업발전과 도내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 양측은 ▲생물자원 확보 보존 및 이용 관련 사업 기반구축,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수립, 추진, ▲바이오 소재 분야 자문 및 정보 교류, ▲관련 분야 최신 정보 및 자료 공유, ▲생물자원을 활용한 과제 발굴 및 협동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연천군과 경과원은 양 기관이 가진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기업 공동지원과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바이오 기업 육성에 힘을 쓸 계획이다(보도자료, 「경과원-연천군, 생물산업 육성 위해 맞손」, 2017.4.5).

또한 연천군은 경과원과 손잡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가치발굴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식물에서 천연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과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의 지원

으로 ‘남북 천연소재 공동활용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접경지역 131종의 식물에서 천연물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기능성 화장품 시제품 7개를 제작 완료했고, 15종의 천연물의약품 소재에 대한 효능평가도 완료했다.

먼저, 바이오센터는 천연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로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3종과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3종, 보습 마스크시트 1종 등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정향풀 추출물을 이용한 항알러지용 조성물’은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이를 이용한 마스크시트 제품 개발을 완료해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센터는 정향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연천군 농가와 연계를 통한 계약 재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센터는 항암과 면역 기능을 갖춘 접경지역 천연물질 소재 15종에 대한 효능평가도 완료했다.

효능평가가 완료된 접경지역 천연식물은 간암 분야 3종, 유방암 분야 3종, 면역조절 분야 4종, 폐섬유화 분야 3종, 항염증 분야 2종이다. 이중 돌나무과 식물인 낙지다리에 대해서는 인체 체적화를 위한 유도체 합성 및 대량합성법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출물을 이용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접경지역의 천연식물은 그간 야생상태에서 잘 보존돼 왔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해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며, “접경지역 식물의 천연물질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 남북 천연물질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노력들은 친환경시대의 연천군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천군의 지역산업구조는 지금까지 낙후된 상태로 있었다. 향후 연천군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 II. 연천의 농업·축산업 및 양곡관리

### 1. 개관

연천군은 천혜의 자연인 임진강과 한탄강의 풍부한 수원을 갖고 있지만 재래경종농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전국, 군남, 백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협곡지로, 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수도작 기업영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농가 대부분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23%인 10,387명 3,822 농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천군에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생산과 공급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WTO 가입에 따른 쌀 시장 개방으로 단위당 생산량 제고 위주의 농업에서 고품질미 생산과 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생산에 농업행정의 주안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의 2022년 농업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 안전한 식량 작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 친환경농법(우렁이)지원사업: 240ha, 325백만 원.
- 양곡건조기 지원사업: 5대, 30천만 원.
- 벼 못자리상토지원: 110,282포, 484백만 원.
-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123ha, 200백만 원.
- 추석용 고품질 조생종 벼 재배 시범사업: 20ha, 15백만 원.
- 벼 품종비교 채종포 시범사업: 2ha(개소당 1ha 내외), 10백만 원.
-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콩): 1개소, 250백만 원.
-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명품 연천콩 브랜드화): 1개소, 200백만 원.
- 울무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시범: 1개소, 5백만 원.
- 귀리(대양·조양) 실증재배시범: 1개소, 5백만 원.
-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산업 고도화 단지육성: 1개소 1,000백만 원.

※ 2년 연속사업(21년: 5백만 원, 22년: 5백만 원)

#### - 축산경쟁력강화사업

-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150농가): 480백만 원.
-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4개소: 560백만 원.

- 축산농가 부속제 지원(400농가): 800백만 원.
-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4종): 952백만 원.
- 축산환경개선(3개분야): 537백만 원.
- 축산ICT융복합사업(5개소): 1,786백만 원.

〈경지면적 및 농가수〉

연도별	구분	경 지 면 적(ha)			농 가 농가수
		계	전	답	
2018		8,417	4,735	3,682	3,242
2019		8,284	4,730	3,554	3,142
2020		8,150	4,850	3,300	3,079
2021		7,556	3,692	3,864	2,926
2022		7,556	3,692	3,864	2,879

2. 농업

1) 농업 발전 추진

연천군에서는 식량생산을 위해 다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천군은 국민식량인 쌀생산의 안정적 공급과 쌀 자급 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토환경 보호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연도별 식부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종류별	생산량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식부면적		5,093	5,070	4,971	4,653	4,789
	생 산 량		26,659	25,316	24,218	25,352	26,050
미곡	식부면적		3,174	3,119	3,180	2,926	3,062
	생 산 량		21,742	20,240	20,052	21,152	21,850
두류	식부면적		1,097	1,196	1,150	1,067	1,067
	생 산 량		1,706	1,843	1,874	1,601	1,601
서류	식부면적		35	35	31	31	31
	생 산 량		691	725	279	524	524
잡곡	식부면적		692	650	610	629	629
	생 산 량		2,283	2,145	2,013	2,075	2,075

### (1) 농업기계화

연천군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 기피 현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사인력을 보충하고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며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 개선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타
2018	5,067	1,101	1,350	269	735	1,612
2019	5,137	1,111	1,367	279	750	1,630
2020	5,039	1,116	1,357	271	740	1,555
2021	5,076	1,121	1,363	271	744	1,577
2022	5,076	1,121	1,363	271	744	1,577

### (2) 토양개량

연천군에서는 토지개량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토양 가운데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 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살포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공급 (단위: 톤, 백만 원)〉

연도별 종류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계	12,111	1731.6	2,573	358.6	2,289	322	2,325	329	2,624	386	2,300	336
석회	4,288	665	837	123	771	130	1006	150	952	149	722	113
규산질	7,746	1,058	1731	235	1506	191	1306	178	1637	232	1566	222
패화석	77	8.6	5	0.6	12	1	13	1	35	5	12	1

### (3) 병충해 방제

연천군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의 방제면적은 38,329 ha 가운데 군에서 지원하는 면적은 38,329 ha이고, 해당작목은 벼(2회), 콩, 배추, 무(봄, 가을), 인삼, 과수, 기타 작목 등이다. 연천군에서는 병해충 방제와 작물보호제 공급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516.6백만 원이다. 또한 군에서는 병해충 예찰강화 및 공동방제 체계 구축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벼물바구미, 도열병, 흑명나방, 멸구류, 콩노린재류,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을 방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해충에 대한 약제도 확보하고 있다.

〈방제 실적(단위: ha)〉

작목 연도별	계	벼	콩	배추, 무	인삼	사과, 배	기타
2018	9,626	8,400	966	200	-	60	-
2019	9,057	7,676	1,112	185	-	84	-
2020	6,953	5,458	1,010	227	189	69	-
2021	6,702	5,475	758	217	192	60	-
2022	5,991	4,638	740	187	202	139	85

## 2)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연천군은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화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이렇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실적〉

연도별 구분 식부면적	계		2018		2019		2020		2021		
	생산량	식부 면적	생산량	식부 면적	생산량	식부 면적	생산량	식부 면적	생산량	식부 면적	
채소 생산	계	943	37,681	219	9,654	265	9,928	209	8,460	250	9,639
	배 추	217	13,478	52	3,392	53	3,239	55	3,362	57	3,485
	무	59	3,297	13	612	15	880	16	910	15	895
	시금치	4	61	1	14	1	16	1	15	1	16
	오 이	269	9,154	69	3,207	76	2,245	52	1,567	72	2,135
	호 박	203	6,974	54	1,704	65	2,281	34	1,301	50	1,688
	파	191	4,717	30	725	55	1,267	51	1,305	55	1,420
과일 생산	계	325	2,535	79	524	82	677	83	679	81	655
	사 과	229	1,052	52	179	59	294	60	304	58	275
	포 도	51	722	14	114	12	198	13	210	12	200
	배	45	761	13	231	11	185	10	165	11	180

### 3) 농어민 후계자 양성

연천군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에서는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연도별	계		경 종		축 산		과 수		채 소		복합영농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계	31	3,204	2	283	12	1,550	6	651	7	738	4	235
2018	7	1,405	1	30	3	780	1	195	2	400	0	0
2019	6	338	1	253	0	0	0	0	5	338	0	0
2020	7	371	0	0	3	370	3	0	0	0	1	1
2021	4	634	0	0	2	400	0	0	0	0	2	234
2022. 6.30	7	456	0	0	4	0	2	456	0	0	1	0

연천군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융자금의 사업계획외 타용도로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교육, 컨설팅 등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은 종료되지만, 격년으로 개최되는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 활동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화합을 꾀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농업전문인으로 육성코자 지속적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시책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 중에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추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3. 축산업

### 1) 축산진흥

축산업은 연천군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인근 시군의 대규모 축산 농가들의 관내 이전과 기존 축산 농가의 현대화 및 시설규모 확대로 축산업은 연천군 최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2018년도 축산농가 현황과 최근(21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연천군은 현재 한우의 경우 234농가에서 206농가로 감소했으나 사육두수는 오히려 8,658두에서 9,861두로 약 1,000두가 증가했다. 젓소의 경우 169농가 10,406두에서 174농가 10,595두로 증가했고, 돼지는 88농가 137,985두에서 56농가 117,294두, 닭은 189농가 4,154,903수에서 107농가 4,407,360수로 사육농가 수는 줄었으나 사육 마리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연천군에서 무허가 축산농가를 단속하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었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규모 농가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육기술이 발달해 사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사육 마리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돼지의 경우 군에서는 2019년 9월 관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살처분을 진행하였다. 연천군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8대방역시설을 완비해 중앙기관 입식허가를 받은 농가에 한해 입식을 재개하여 현재 65농가 약 12만 두 양돈을 입식 완료하여 사육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을 위해 급이시설 및 다용도축분처리장비 및 부속제 등을 지원했다. 또한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 지원 및 이미지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축산농가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또한 연천군은 폭염 및 전염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재산 보호 및 안전한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및 냉방시설과 면역 증강제를 지원했다. 또한 낙뢰 피해방지기 및 비상발전기 지원을 통해 화재 및 정전을 통한 피해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진강과 한탄강의 내수면을 갖고 있는 연천군은 어민의 소득증대와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00백만 원을 투자해 쏘가리, 대농갱이, 참게, 다슬기, 뱀장어 등 치어 9,479천미를 임진강, 한탄강 각 지천에 방류했다.

〈축산농가 현황 (단위: 호, 두)〉

구분	한(육우)		젓 소		돼 지		닭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2018	234	8,658	169	10,406	88	137,985	189	4,154,903
2019	226	9,066	159	10,686	0	0	120	4,939,395
2020	220	8,968	137	9,431	8	2,180	138	4,734,827
2021	206	9,861	147	10,595	56	117,294	107	4,407,360

(1) 가축방역

2019년 9월 17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18일 연천군 백학면의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 3km 이내 4농가

사육돼지 10,400여 두를 즉시 살처분 매몰했다. 이후 3주간 관내에 전파 없이 방역을 유지하다가 연천군에서도 2019년 10월 9일 신서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차로 발병했다. 그 즉시 군에서는 3km 이내 4농가 7,800여 두를 즉시 살처분하였으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유례없는 연천군 전역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연천군에서는 11월 10일까지 79농가 144,800여 두를 추가적으로 살처분하게 되었다. 연천군 전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 종료 후 양돈농가에 더 이상 추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경기북부에서 경기남부 및 강원북부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확산세는 종식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철원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현재까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상위단계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권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충북, 경북까지 전파되어 전국적 확산추세에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가축차단방역이 절실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17년 1월 12일 연천읍 상리의 산란계농가에서 발생한 이래로 연천군 관내에서는 발병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파주시 적성면의 한 산란계농가에서 발생하자 연천군은 인근 3km 방역대 내에 존재하는 산란계 1농가에 대해 45,500수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연천군은 도로차단방역 2개소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관내에서는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 없이 종식된 바 있다. 경기도 내 최다 산란계 사육지인 포천시와 연천군은 항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질병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철두철미한 가축방역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계속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 결과 2006년 이후로 관내에서는 광견병의 발생이 없다.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연천군에서도 전 두수 검사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초기 진단 및 살처분으로 농장 간 전파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연천군은 기타 소, 돼지 및 양계의 주요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접종약품 지원으로 기타 주요 가축전염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2) 가축분뇨 처리

연천군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육성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연천군에서는 가축분뇨를 액비, 유기질비료, 연료화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2009년도 국비 3,000백만 원을 지원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2015년에는 국비 7,000백만 원을 지원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가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천군은 군남면 남계리에 1일 150톤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180톤 추가하며 1일 330톤 처리규모로 증설했다. 이에 따라 관내의 낙농가들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처리용량	수혜가구	비고
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군남면 남계리	330톤/일	400여 농가	
연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군남면 옥계리	81톤/일	20여 농가	퇴액비
	군남면 왕림리	70톤/일	20여 농가	에너지

## 4. 양곡관리

### 1) 양곡수급

연천군의 논 면적은 3,181ha로서 총생산량 23,856톤 중 5,227톤을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하고 연천, 전곡, 임진농협 등 3개 지역농협에서 13,005톤을 매입했다.

〈양곡수급 현황(단위: 톤)〉

구분 연도별	수요량			공급량					
	계	쌀	보리쌀	정부양곡			자가생산 및 시장유통		
				계	쌀	보리쌀	계	쌀	보리쌀
2018	17,979	17,979	-	4,182	4,182	-	13,497	13,497	-
2019	14,701	14,701	-	4,470	4,470	-	10,231	10,231	-
2020	12,772	12,772	-	3,987	3,987	-	8,785	8,785	-
2021	16,893	16,893	-	5,226	5,226	-	11,667	11,667	-

### 2) 공공비축미곡 매입

연천군에서는 2021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를 40kg 매입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TRQ 수입 물량 확대와 공공비축매입량 증가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 등 쌀 수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으로 지역쌀의 고품질 미질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 3) 정부양곡보관

연천군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특급 300평 규모 5동을 포함해 총 10동으로 14,200톤을 보관할 수 있다. 연천군은 창고에 시설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곡의 안전보관에 힘쓰고 있다.

### 4)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

연천군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곡 유통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원산지 등 양곡 표시사항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연천군이 지향하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의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의 대상사업은 마을내·마을간 도로, 농로 및 농수로, 소규모 교량 등이며, 농촌환경개선 대상사업은 수변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복지시설로 마을회관 등이었다.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은 2018년 ~ 2022년(5년 간), 사업비는 43억 원(연 8억 원)규모이다.

〈사업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소계			17,235	
2018년	농업기반시설정리	마을안길정비 등 3건	3,146	
	농촌생활환경개선	노곡2리 마을회관신축 등 6건	1,500	
2019년	농업기반시설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5건	5,494	
2020년	농업기반시설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4건	4,101	
	농촌생활환경개선	원당2리 마을회관옹벽설치	80	
2021년	농업기반시설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4건	2,914	



## 6) 농·특산물 큰 장터

연천군에서는 매년 10월 농산물 수확 시기에 연천군의 각종 농특산물을 집결하여 직거래 하고, 다양한 무대 공연과 농촌체험, 관광객 이벤트를 겸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농가 판매수의 창출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흥겨운 가을잔치로 자리매김할 농·특산물 큰 장터 개최 하고 있다.

〈농산물 개최현황 (단위: 천명, 백만 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객	판매액	방문객	판매액	방문객	판매액	방문객	판매액	방문객	판매액
100	517	100	517	-	-	-	-	-	-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행사 취소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한 행사 취소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농·특산물 큰 장터는 매년 10월 중 3일간 전곡리 유적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관내 생산자 120여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품목은 쌀, 인삼, 울무, 축산물 등 300여 농축산물 등이다. 연천군은 행사를 통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5. 농업기술센터

### 1) 기구 및 기능

#### □ 농업개발과

구분	주요 업무
지원기획팀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농촌 지도 시범사업 계획 수립, 지도공무원 교육 및 능력 개발, 서무, 문서, 관인관리, 예산 및 회계, 차량 및 물품관리, 신문보도, 지역사회개발 사업지도, 직원보수에 관한 사항, 기타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팀	지적재산권관리(특허관련),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농업인 개발과제 기술개발,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토양검사, 토양비료 연구시험포 관리, 국화전시회 운영
인력육성팀	귀농·귀촌 지원 및 교육, 4-H 조직 및 육성, 전문경영인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관리,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대학운영
생활자원팀	농촌가정관리지도, 노인생활지도, 소비자농업지도, 생활개선회 조직운영,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육성, 농촌생활 문화지도 및 의생활지도,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육성, 농촌여성직업교육, 생활과학관운영, 농작업환경 개선지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지도

## □ 기술보급과

구분	주요 업무
소득기술	채소원에 기술지도, 과수원에 재배기술지도, 화훼원에 재배기술지도, 시설원에 재배기술지도, 도시농업 기술지도, 야생화재배 기술지도, 산채류 재배 기술지도, 특작분야 기술지도, 수출농업육성 지도, 소득기술분야 병해충 방제지도 및 공동방제 약제지원, 소득작물분야 연구회 육성지도, 소득작물분야 전업농육성지도, 원예분야 지도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및 육성
작물환경	식량작물 기술지도, 농업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 식량작물 시범사업, 농약안전 사용법지도, 기상관측시설 운영, 환경보존농업지도, 병해충 공동방제약제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직파재배기술, GAP·PLS 교육, 콩·울무 연구회 육성지도,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 벼예찰포운영, 기상관측장비 운영, 벼·콩·감자·보리 등 정부보급종자 공급, 콩·울무 친환경 육성, 논타작목 재배기술, 웰빙잡곡특성화, 벼·밭작물 현장민원처리, 영농상황실 운영
경영축산	농업경영개선 및 지도, 농업경영정책에 관한 사항,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 우량가축보급지도, 가축사양관리기술 지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지도, 가축위생기술지도, 친환경유용미생물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축산분야 연구회육성지도, 고품질 축산물, 축종별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지도, 청년창업컨설팅지도, 사이버연구회 육성 근층, 양봉기술 지도
농업기계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및 현장교육, 농기계임대장비 관리,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교육 훈련 장비 관리, 세외수입,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장비

## 2) 농촌지도 업무추진

### 1) 농업인 교육

연천군은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환경친화 농업, 자유무역협정(FTA) 대응기술, 수출농업 촉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및 건강한 농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 결과 지역의 농업발전과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농업·농촌 핵심 인력 양성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2) 농업인 조직체 육성

연천군은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연천군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과 농촌지도자 육성은 물론 농촌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으로 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농업인 지도자의 육성,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명되고 있다.

둘째, 4-H회는 관내 4-H회원들의 자율적 학습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4-H회의 회원 상호간의 활동 정보를 교환하여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연천군 생활개선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기술과제 선도실천 및 지도력 배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여성을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며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도시소비자와 연계한 도·농 교류 사업추진을 통한 농촌 고유 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넷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에서는 농업인 지도방법을 개별지도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하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기술보급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품목별 지역경제활동 중심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얼굴 있는 농산물의 지역특산품화를 정착·유도한다.

(3) 농업기술 보급(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과 지역 맞춤형 신기술을 확대보급하고, 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4) 발명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 출원현황

특허등록·취득 30종, 발명 특허 14종, 디자인 등록 3종, 상표 등록 13종이다.

(5)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액

연천군은 인구 유입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마련 지원, 교육지원 등 정착 지원을 실시한다.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액〉

연도별	귀농		지원액(천원)	귀촌		지원액(천원)
	가구수(호)	인원수(명)		가구수(호)	인원수(명)	
2018	47	87	4,200	50	103	34,219
2019	32	63	4,000	42	91	26,436
2020	30	45	3,450	50	63	25,496
2021	55	100	4,000	61	113	89,251
2022	36	69	4,000	49	83	62,430

(6) 농기계 임대사업

연천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III. 연천의 경제와 장시

#### 1. 지방물가안정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천군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등)의 가격안정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서에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요금현실화 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주민경제를 감안하여 전년수준의 요금동결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방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내에서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4, 개인서비스요금 46, 생활필수품 등 42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연 2회 이상 물가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군에서는 가격동향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물가관리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총괄반(지역경제), 농축산물반(농축산과), 위생점검반(종합민원과)에서는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설 및 추석절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방공공요금의 과다 인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을 두어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동향조사를 월 1회씩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지도 단속반을 두어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2. 중소기업 육성

현재 연천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기도 자금, 중소기업센터 지원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많은 종류의 지원 방책이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평균 17업체 약 50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금 지원결과 많은 업체들이 도산 또한 부도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저금리 혜택을 줌으로써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건실한 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서울근교 및 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을 관내로 이전토록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역주민들의 취업난을 일부 해소할 전망이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과밀억제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의 공장

을 이전 유도토록 하고 있다. 연천군은 각종개발법(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건축법 등)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한 결과, 현재 신규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총 139개 업체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규모가 500㎡ 미만의 공장까지 합하면 약 150여 개의 공장이 운영 가동 중이다. 앞으로 산업단지조성 등이 완료되면 더 많은 공장(중소기업)이 입주계약, 이전 승인 등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은 관내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업유치활동 및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3. 에너지 관리

연천군은 난방용 연료, 유류, 가스 전기 등 산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및 산업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주민과 공장이 에너지 수급의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 가스, 유류관리

군민 생활패턴이 개선되어 조리용과 난방용으로 많은 양의 가스와 유류가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스 및 유류의 특성상 많은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연천군에서는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가격변동이 심한 유류의 매점매석 등의 사례를 없애고, 유류와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체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연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사용층인 주부, 요식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각종 안전교육과 계몽에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도시가스 보급 확대

연천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연차별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연도별 도시가스 추진실적 및 보급(단위: 개소)〉

	추진실적(km)	보급가구(주택용 기준)	보급가구(주택+일반용)	비고
2014 이전	37.1(28.3)	6,011(5,957)	6,011(6,315)	
2014	22.3(34.4)	206(1,361)	206(1,408)	
2015	6.1(2.18)	2,023(1,760)	2,023(1,835)	
2016	-(0.54)	-(275)	-(321)	
2017	-(0.1)	-(111)	-(143)	
2018	-(0.08)	-(204)	-(228)	
2019	0.28	71	102	
2020	1.56	810	835	
2021	12.37	240	282	
2022	4.6	409	443	
누 계	84.31(84.41)	9,770(11,198)	9,902(11,912)	

#### 4. 일자리 센터

연천군에서는 관내의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다양한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고용문제 해소와 고용률 향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자리 센터 취업실적 현황〉

연도	구인 등록	구직 등록	상담 실적	취업실적			일자리 알선	일자리 발굴 (구인/ 구직)	동행면접	
				계	상용	민간 입시/ 일용			건	명
2028.7.~12.	676	760	3,749	347	347		1,852	5회	40	31
2019	1,183	1,163	2,441	563	563		2,441	5회	31	21
2021	1,114	965	2,578	606			2,578	코로나	15	8
2022.6.30	625	419	787	258	258		787	코로나	6	3

연천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욕구를 고취시키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단위: 명)〉

구분	대상(나이제한)	기간 및 기수	참여인원	실적
	4개 운영		70	
전산회계1급 자격증취득과정	청년층	2022.4.4.~5.6(120시간)	15	4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과정(이론)	중장년층	2022.2.21.~3.22(120시간)	20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과정(실기)	중장년층	2022.4.20.~5.3(80시간)	20	6
정리수납 전문가양성과정	중장년층	2022.6.20.~7.15	15	2

연천군에서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한 기업체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만남을 통해 면접에서 채용까지 한번에 이루어지는 ONE-STOP 채용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용행상 운영 현황〉

구분	구인업체	구인수	현장면접	채용	채용률	장소
18.10.18	18	62	146	29	47%	연천군 종합복지관
19.6.4	21	42	198	15	36%	연천군 종합복지관
22.8.24	12	70	45	14	20%	연천군 종합복지관

연천군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지정 및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현황〉

구분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인증일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지정)	(주)해피트리	김용택	청산면 학담로 177	제조업, 체험	2014.9.19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지정)	(주)클링	이항아	전곡읍 은전로 92번길 17	청소, 소독	2022.9.16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	김나현	군남면 땀골길 154	에너지, 태양광	2022.1.1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일반현황〉

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명	전곡전통시장		
시장구분	인정시장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72번길 4-19일원		
대표자	홍한기	관리자(상인회, 조합)	전곡전통시장상인회
개설일자	1963	건축일자	1963
건물구조	지상1층	점포수	67
대지면적	8,516	건물연면적(m <sup>2</sup> )	4,560
매장면적	4,560	부대시설	
취급품목	음식, 생필품, 잡화, 농산물		
전화번호	031-832-2981	팩스번호	031-832-4111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민간	비고(사 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2014~ 현재	군비	전기안전점검(연2회) 소방안전점검(월1회)	5,400	-	-	5,400	-	계속
2019	국비	아케이드 리모델링 공사	850,000	500,000		350,000		완료
2019	국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58,400	40,880		17,520		완료
2021	도비	영상감지장치 CCTV 교체	92,000		46,000	46,000		완료
2022	도비	아케이드 보수공사	280,000		168,000	98,000	14,000	계속
2022	도비	공용화장실 리모델 링. 시장 바닥도로 포장공사	350,000		210,000	140,000		계속



연천읍 전통시장과 주변모습

## IV. 연천의 도시, 도로, 건축, 토지

### 1. 도시계획

#### 1) 도시계획의 특성과 전망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며, 그 면적은 30.645km<sup>2</sup>이다. 연천군은 연천, 전곡, 군남, 신서의 4개 도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발전저해요소로 인하여 도심 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여건 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농촌전원도시를 가꾸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방향 및 도시발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연천군은 자족적 지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선진적 도시 형태를 지향한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연천군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계한 문화, 역사, 생태관광개발과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연천군은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토지이용

##### (1) 용도별 현황

연천군은 시가지의 발전상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고려한 토지의 용도배분과 적정규모의 계획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토지수요와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편익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현황 (단위: km<sup>2</sup>)〉

구분	계획 면적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제3종 주거	준주거	소계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자연녹지
연천군	695.21	4.27	3.62	0.58	0.02	0.05	0.52	0.46	0.06	20.26

(2)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

먼저 용도지역 구획과 관련하여 연천군은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도시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계획을 적절히 지정하였다. 연천군에서는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다.

연천군은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과밀화되면서 시가화구역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도시장기발전구상에 접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연천군은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생활원계획체계를 근간으로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상호관련성, 지형조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연천군은 상업지역을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하고 도시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규모의 적정성과 지역의 입지를 고려해 도시의 경제 활용공간이 체계화하고 있다. 연천군은 공업지역은 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당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의거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연천군은 녹지지역을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계획을 감안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계획과 더불어 공원, 유원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도시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원칙 역시 세우고 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으로, 연천군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구지정을 계획하는데,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군에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자연취락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를 도입했다. 연천군



에서는 녹지지역 안에서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취지와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천군은 입지조건인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지구 내 주거환경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며 질서 있게 정비했다. 연천군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대를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연천군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설치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복합개발진흥지구설치에 발맞추어 자연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천 옥계지구를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천군 도시계획시설현황〉

시 설 명	개 소	면적(연장)	시 설 명	개 소	면적(연장)
일반도로	441개노선	2,956,845 (217,538)	수도공급설비	10	151,876
주 차 장	28	66,262.4	보건위생시설	1	32,804
철 도	8	818,354 (53,399)	공 용 청 사	5	57,173.5
광 장	7	30,319.3	학 교	22	419,361
공 원	38	834,461.8	체 육 시 설	5	2,667,505.7
녹 지	49	237,319.2	사회복지시설	3	14,852
시 장	1	1,005			

(3)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새로 도입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 같다.

첫째, 특정지구단위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정 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가능하다. 둘째, 3차원 형태의 계획으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물의 높이, 색상까지 수용하고 있다. 셋째, 필지별 개별 행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건물용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까지 계획 내용에 포함 가능하다.

(4) 도시공원

정부는 도시에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도 법률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 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 확보와 더불어 자연경관보호 및 주민의 건강, 휴식, 정서생활의 함양과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계획을 하고 있다.

먼저 공원현황을 살펴보자. 연천군은 공원을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으로 수립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녹지현황을 보자. 연천군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녹지를 지정하고 있다. 연천군은 완충녹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부에 대해 경관녹지를 지정하고자 한다. 연천군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있다. 연천군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녹지설치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연결녹지를 도입하여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선형을 띠는 녹지를 지정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현황을 보자. 연천군은 관내에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어 보행자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차량 통행이 많아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현대 시가지에 깨끗한 거리,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다.

## 2. 건축

연천군은 건축 및 주택행정에서 건축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농가 주택 및 상가건물 등 소규모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연천군에서도 수도권 1호선 전철 연장 개통 및 국도우회도로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으로 인해 대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다양한 건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 행정 운영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 행정 건실화를 추진해 연천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1) 주택현황

연천군은 단독가구를 제외한 보통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0% 이상 주택보급실태를 보이고 있다. 연천군의 도시지역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주류이고, 도시 이외 지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되는 추세이다.

〈주택현황 (단위: 인, 호, %)〉

연도별	인구	주 택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18년	44,633	17,453	12,332	2,938	1,052	1,131
2019년	43,824	17,525	12,388	2,926	1,080	1,131
2020년	43,516	18,418	12,558	3,490	1,080	1,290
2021년	42,721	18,622	12,690	3,490	1,080	1,362
2022년	42,625	18,715	12,758	3,515	1,080	1,362

## 2) 주택관리

### (1)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부합되도록 건축물을 선별하는 대물적 행위이다. 그 종류로는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허가(신고) 등이 있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부서로 통보되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착공신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검사에 합격된 경우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연천군에서도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자재비 인상 등 건축경기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 (2) 공동주택관리

연천군에서도 공동주택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문제, 다수인 거주에 따른 입주자간 마찰 및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원하는 입주자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군민들도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연천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개 단지 2,125세대가 있다. 연천군에서는 군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공동주택 관리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아파트단지별 관리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사 등의 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주택관리의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3) 건축관련 조례정비

연천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유도로 건축물의 미관과 토지의 이용률을 증진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연천군 건축조례를 제정했다. 연천군은 199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건축조례를 2022. 4월 19일 개정 시행하고 있다.

### 3) 주택건설 현황

연천군은 소규모 및 저층의 주택에서 최근 아파트 및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택이 전곡읍 및 연천읍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해 양질의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도별 주택건설 현황(단위: 호)〉

연도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상복합
2018	156	-	-	-	-
2019	120	-	-	-	28
2020	143	557	-	135	-
2021	129	-	-	48	-
2022. 6. 30.	36	-	-	-	-

### 4)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건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는 신고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법규를 위반해 건축행위를 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및 재산상 피해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건축법규를 위반 건축물은 단계적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며, 건축법과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성화(추인)해 위반사항이 조속히 해소되

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재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정비하고 있다.

### 3. 토지

#### 1) 지적행정관리 및 토지현황

지적이란 사람에 대한 신분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호적사무와 주민등록사무가 있는 것과 같이 토지에 대한 각 필지별로 조사해 공적장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토지소유자 등을 등록·공시해 관리하는 사무이다. 토지에 대한 등기 평가, 과세, 거래, 국토이용계획 등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 정보자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천군의 총 면적은 677.412km<sup>2</sup>이며, 필지 수로는 173,996 필지(22. 6. 30.현재)이다.

#### 2) 지적민원행정

##### (1) 지적민원 처리

연천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제 증명(토지·임야대장등본, 부동산계약서검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신속·정확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군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지적전산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종 지적공부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 (2) 토지이동정리

연천군에서는 토지이동정리를 위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에 의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라 이동사항을 수시로 정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 (3) 지적측량 성과검사

연천군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 측량과 측량성의 정확도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이런 유지·관리가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는 제도적으로 실

제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이를 검사하는 소관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4) 지적 전산관리

연천군에서는 정보화 사회로 도약을 위한 국가기관 전산망 계획에 따라 행정전산망 우선 사업으로 지적전산화관리 시스템을 추진했다. 연천군에서는 토지기록 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개선해 전국 ONLINE 서비스로 민원행정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 3)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추진

연천군은 토지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므로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도 부동산 실명법을 실시해 1995년 7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 등기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게끔 했고, 명의 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처리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 및 경제 정의를 실현토록 홍보하고 있다.

#### 4)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표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 공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준지 선정 및 지가조사 평가 의뢰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조사 평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이의신청접수(30일)

#### 5)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다.

지가 산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지가검증 ⇒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개별지가 결정·공시

단,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후에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검증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과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도 한다.

##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연천군에서도 토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사업 시행자,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자이다.

## 7) 국·공유지 관리

연천군에서는 국·공유지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재산으로 구분되며 건설부문에서는 공동의 구거, 하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 (1)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연천군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하천을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 등 하천 및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점용허가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도로를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구거 및 기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점용허가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보상업무 추진

연천군에서는 군민 생활 향상과 더불어 차량의 증가, 도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신설 도로의 필요와 기존 도로의 확장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 등을 공공용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천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취득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하고 있다.

## 8) 하천관리

연천군에는 지방하천 24개소(227.59km)와 소하천 140개소(224.98km)가 있다. 연천군에서는 하천의 치수·이수 및 생태를 복원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1) 지방하천

연천군에는 24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다. 연천군은 20개소의 지방하천을 지방하천 지정·고시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한탄강, 영평천, 간파천, 수동천, 신천 등을 인접 시·군과 연결된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지방하천 현황〉

구 분	하천수	연 장(km)	개수율(%)	비고
지방하천	24	227.59	86.9	

※ 진행 중인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 (2) 소하천

연천군에는 140개소의 소하천이 있다. 연천군은 각종 공사 등으로 변경된 지형, 지물 및 소하천 환경을 반영하고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완료해 효율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 〈소하천 현황〉

구 분	하천수	연 장(km)	개수율(%)	비고
소하천	140	224.98	74.9	

※ 진행 중인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 (3) 주요사업 실적

연천군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 홍수 시 제방 유실과 붕괴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4. 도로 및 교통관리

### 1) 도로 및 현황

연천군은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 정주의식 고취와 새로운 교통망 관리 및 교통소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의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행이 빈번한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관내에서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일부가 비포장인 상태이며, 국도는 100%, 지방도는 67.79%, 군도는 63.40%, 농어촌도로는 68.4%가 포장되어 있다. 연천군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도 3호선(연천-신탄, 상패-청산)이 구축되면 수도권 및 타 시군과 접근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2) 교통관리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해 남으로는 동두천시와 동서로는 포천시, 파주시와 인접하고, 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연천군에서는 3번국도 4차선 확장 및 경원선 전철연장사업 확정 등 통일을 앞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질서 함양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 대중교통수단

연천군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 100개 노선에 73대, 법인택시 12대, 개인택시 49대와 경원선 대체버스 12대 등이 있다. 연천군은 자가용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약자·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의 보유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택시의 권역별 배치를 통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 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수단 이용률〉

기준연도	계	기차 (대체버스)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도보	기타
2022년 06월 30일	100%	15	30	5	40	5	5

〈대중교통수단(2022. 06. 30. 현재)〉

계		버 스					
노선수	운행대수	경원선 대체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수	운행대수	노선수	운행대수	노선수	운행대수
102	87	1	12	100	73	1	2

〈택시운행 현황(2022. 06. 30. 현재)〉

계	회사택시	개인택시	지역별 개인택시
61	12	49	-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전경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연천군은 개인택시 및 회사(법인)택시를 연천, 전곡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지역의 모든 택시는 관내 인구 감소로 전곡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향후 전곡권을 중심으로 백학, 장남권, 군남권, 청산권, 신서권 등 4개 권역을 집중 개발해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공헌코자 한다.

## 〈면허 자격 요건〉

구분	사업용 여부 구분						기 타	
	사 업 용		비 사 업 용		사업용+비사업용			
	운전 경력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	무사고 경력	사업 구역내 운전 경력	사업 구역내 거주 경력
자격 기준	5년	5년	10년	10년	5년	5년	-	2년 이상

※ 사업용+비사업용 중 자가용운전경력은 1/2환산 적용.

### 3) 주차장 시설 관리

연천군에서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및 자동차 문화의 생활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가 부족해 이면 도로 등에서 주정차 위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천군에서도 도시 성격을 띤 지역일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차량 소유자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향후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내 집안 주차장 만들기 및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함께 추진해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 5. 상·하수 관리

### 1) 상수도 기본현황

연천군은 1969년 10월 전곡상수도 시설용량 2,400톤/일로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군에서는 1996년까지 전곡상수도 외 3개 상수도로 18,000톤/일을 공급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취수원의 오염으로 양질의 수원 개발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와 4개 상수도로 분산되면서 상수도 유지관리비 증대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천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임진강을 수원으로 하는 연천군 통합 상수도사업을 1996년 9월 준공했다. 연천군은 관내 전 지역에 1일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50,000톤을 공급하고, 동두천 63,000톤/일, 청산공업용수 20,000톤/일을 공급하고 있다. 연천군은 향후 은통산업단지공업용수 13,000톤/일 최대 146,000톤/일의 취수시설 확충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 2) 상수도 관리

연천군에서는 급수관리를 위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수지역의 확대로 급수전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로 총 사용량 증가폭이 작아지고 1인당 사용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연천군의 최근 4년간 급수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급수현황(단위: 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사용량	1인당 사용량	총 사용량	1인당 사용량	총 사용량	1인당 사용량	총 사용량	1인당 사용량
사용량	12,736,159	285.6	12,604,849	287.8	11,831,437	270.1	11,446,314	261.3
전년 대비 증가율(%)	39.5	-50	-1.04	0.76	20.1	-6.13	-3.25	-3.25

### □ 급수전 현황

상수도의 급수전은 1995년 7,550전에서 연평균 362전씩 증가해 2022년 7월 28일 현재 16,755전에 이른다.

〈급수전 증가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급수전 (전년대비증가율)	15,167전 (3.3%)	15,230전 (0.4%)	15,526전 (1.9%)	16,161전 (4.0%)	16,618전 (2.8%)	

## 3)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연천군은 1993. 1. 1.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지방공기업에 의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영분석지표에 따른 차기 연도의 목표설정 및 영업수지 개선 등으로 활용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연천군에서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치중하는 수도사용요금 지역 실정 등에 의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경영합리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은 고지 사무의 자동화, 우수율 제고, 예산 절감 등의 목표 설정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노후관로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총 사업비 30,517백만 원, 2018-2023년)'을 추진 중이다. 연천군은 이를 통해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

관망 운영 최적화 및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한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수입액		비고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2018		26,707	18,312	11,469	962	
2019		32,010	20,087	11,937	1,133	
2020		37,397	24,245	12,426	1,410	
2021		39,873	25,758	12,623	1,265	

#### 4)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시설확충

상수도 사용료는 급수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용가에 부가되는 요금이다. 연천군은 물가, 사용자의 가계 부담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도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2021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의하면 생산 원가가 톤당 1,441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료는 톤 당 952원을 징수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상수도 사용료 관련 현황〉

연도별	구분	급수수입 (백만원)	수도료 (톤당)	생산원가 (원)	결손액 (톤당)	결손총액 (백만원)	비고
2018		9,659	765	1,365	600	7,577	
2019		10,422	827	1,441	614	7,741	
2020		10,624	911	1,441	530	6,178	
2021		10,906	952	1,441	489	5,604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

시설명	현황	확충계획
생산용량	30,000톤/일	20,000톤/일
배수지	11,000톤	15,000톤
가압장	14개소	6개소
관거	600km	21.7km

## 5) 하수도 관리

연천군은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개발에 따라 도시화 지역 확대 등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도 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96.3%를 계획하고 있다. 연천군은 이처럼 하수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2.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했다. 연천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를 위해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병행 추진해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수도 현황(단위: km)〉

구분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	합류식			분류식						비고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	오수관거			우수관거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	
하수도	756	597	78.9	206	199	96.6	399	301	75.4	150	79	52.6	

연천군은 시가지 내에서 발생된 하수를 우수와 오수로 분류해 처리함으로써 생활 환경의 개선과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우수관개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개량해 집중호우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등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2001년 7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으며, 2018-2021년도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구분 연도별	수입 (백만원)	사용료 (톤당)	생산원가 (원)	결손액 (톤당)	결손총액 (백만원)	비고
2018년	3,346	656	5,270	4,614	23,536	
2019년	3,300	657	5,657	5,000	25,099	
2020년	3,533	685	6,041	5,356	27,641	
2021년	3,962	711	5,705	4,994	27,835	

연천군에서 연천군개발계획과 연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하수관거의 정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추진 일정〉

구분	위치	추진 일정	사업 물량	비고
노후관로 정비 사업 (1단계)	연천군 일원	`18. 3. - `20. 12.	8.82km	
차집관로 개선 사업 (2단계)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신서면 일원	`18. 10. - `20. 12.	10.72km	
연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군남면 일원	`18. 3. - `20. 12.	4,000(m <sup>3</sup> /day)	

공공하수 처리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연천군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향후설치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시설용량(톤/일)	사업비	비고
계		400	11,745	
내산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2021 - 2024	400	11,745	

연천군은 하수관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연천 비전개발전략과 연계해 ‘연천군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또한 연천군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주민 편의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식을 혐오시설에서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6. 임업

### 1) 산림보호

연천군은 임야 면적이 36.954ha로, 군 전체 면적의 55%이다. 면적에 비추어볼 때 연천군은 산림유전자원을 적극 육성하고 보호하는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 경관이 다른 어느 곳보다 빼어난 연천군은 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 매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불 방지 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ha)〉

계	국 유 립			공 유 립	사 유 립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36,954	12,468	7,488	4,980	282	24,204

(1) 보호수 지정

연천군은 천혜 자원의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령이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숲 가꾸기 사업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수종이 건강하게 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연천군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조림사업

연천군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산불 예방, 산림자원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4) 산림 병해충 방제

연천군은 조림지 및 천연림에 발생하는 산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 입목의 원활한 생장을 도모하며 수목의 피해는 물론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연천군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인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열섬 저하 등 주민생활권 보전 함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도로변 가로 녹화사업을 통한 숲의 네트워크 구성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개방해 주민여가·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연천군의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약 35만㎡이다. 또한 쌈지공원, 도시 숲 등 비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면적은 약 11만㎡이다. 연천군은 이미 조성된 약 47ha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쌈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환경숲 등 매년 새로운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연천군은 관내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어 통행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로수를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을 통해 차량 통행이 많아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현대의 시가지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깨끗한 거리와 맑은 공기를 주민들에 제공하고 있다.

## 제 5 권

연 천 의  
정 치 와  
행 정

연 천 의  
경 제 와  
산 업

연 천 의  
사 회

대한민국  
연천군  
미 리

## V. 연천의 관광·레저업

### 1. 관광지 여건과 현황

연천군은 유네스코로부터 2019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지정 및 인증받았다. 연천군에서는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으로서 전국리유적 뿐만 아니라 지질, 생태,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연천군은 임진강 댐싸리 공원, DMZ백학문화 활용소 등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지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광객 증가 추이 및 동향

관광산업에 의한 국내 관광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연천군 방문 관광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관광지 출입제한(전망대 등) 및 축소 운영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하였다. 연천군의 관광자원 확충과 비대면, 소규모 관광 등으로 2021년부터 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연천군은 2022년 6월부터 일부 안보 관광지 재개방으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연천군은 관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개발, 관광명소 정비 및 관리, 관광콘텐츠 개발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2022년 6월 현재 상황(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6.30
총 계	1,229,556	686,790	1,532,036	664,226
한탄강관광지	297,076			
재인폭포	126,152	126,649	140,179	88,523
수레울아트홀	74,224	221,772	406,418	195,446
승의전	19,479	21,430	25,200	14,955
경순왕릉	32,664	13,474	44,674	29,881
조선왕가	5,857	25,263	29,758	14,718
태풍전망대	40,649	1,630	1,578	1,054
열쇠전망대	10,548	-	-	941
상승전망대	3,977	-	-	393
승전전망대	3,278	-	-	-
땅에미소	26,247	22,185	23,162	13,420
나룻배마을	2,614	861	1,050	470
호로고루	25,457	100,374	256,843	66,149
전곡선사박물관	111,657	27,663	53,922	39,149
연천전곡리유적	449,677	57,948	433,848	123,627
고랑포구역사공원	-	8,387	19,490	9,790
세계캠핑체험존	-	12,747	12,649	8,886
세계캠핑체험존	-	46,407	45,014	19,969
평화누리길	-	-	38,251	23,946
고대산자연휴양림	-	-	-	12,909
당포성	-	-	-	-

### 3. 관광진흥사업 개발방향

연천군은 관광산업의 개발 및 발전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진흥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최근 관광객의 추이로 볼 때 화려한 볼거리 위주의 관광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과 여유와 힐링을 추구하는 추세로 이와 같은 사업으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생태·체험, 트래킹, 안보,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과 연천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park area. A wide river flows through the scene, reflecting the sky. In the center, there is a large, grassy mound or hill with a paved path leading to its top. Several people are visible walking on the paths. The background shows rolling hills and some buildings under a cloudy sky.

제 3 장

# 연천의 사회: 복지·위생·환경· 사회단체·군부대

I. 사회복지

II. 의료·보건

III. 환경

IV. 연천군 사회조직

V. 연천 사회와 군부대





## I. 사회복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보다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개발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다.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역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복지로 통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에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활동과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 대상별 분류의 사회복지와 의료복지, 산업복지와 같은 영역별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보조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활동으로 사회복지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된다.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들의 현존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개선과 통합과 관련된 활동,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와 관련된 활동, 셋째, 지역사회의 문제나 이슈와 관련해서 주민집단의 형성과 조직화로 집단능력의 배양과 고유한 지도력을 개발하여 문제나 이슈에 접근하는 활동, 넷째,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계층을 대변하여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실천활동 등이다(황성철,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학문적 동향 및 실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98. 참조).

### 1. 주민복지증진

#### 1) 사회복지

##### (1) 저소득층 보호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연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230가구이며 인원은 2,772명이다.

〈2018~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연도별	계		기초생활자보장수급자		시설수급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	수급권자
2018	1,964	2,599	1,808	2,443	156
2019	2,057	2,704	1,911	2,558	146
2020	2,124	2,713	1,967	2,556	157
2021	2,223	2,782	2,069	2,628	154
2022.6.30.	2,230	2,772	2,071	2,613	159

연천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와 급여기준 등을 책정하고 자립지원금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는 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은 1인 583,444원, 2인은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5인 1,807,355원, 6인 2,072,101원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주민 자녀 중 중, 고등학생으로, 성적 30%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만 12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2) 장애인복지

연천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에서는 장애인등록 사업,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사회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재활작업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 장애인 지원(단위: 명, 천원)〉

연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재활작업운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금액
2021년	2	1,111	494	1,497,600	652	347,866	15	880	113	32,565	39,000
2022년 6.30	-	-	485	640,000	669	184,000	13	420	87	7,985	30,000

(3) 재해구호

연천군은 관내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구호와 시설파괴의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시설의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체계와 비축물자를 준비하였다. 2020년 7~8월 폭우와 재난발생으로 일부 주민들은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연천군에서는 재난구호체계에 따라 이재민들을 구호하고 임시주거시설과 물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연천군에서는 각지에서 들어온 수재의연금을 이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가동시켰다.

2020년과 같은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연천군에서는 각종 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구호체계와 매뉴얼을 정비하고 다듬어 이재민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재해구호현황(단위: 가구, 백만원)〉

	재해발생		구호현황				
	화재	수해	전량기구	감량기구	재난지원금	응급구호비	기타
2020	55	74	-	-	74	4	응급구호세트 (146)
2021	2	2			74	4	응급구호세트 (5)
2022.6.30	0	0	-	-	-	-	

(4) 의료급여

연천군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연천군은 주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연천군의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세대별 소득, 재산 등 생활 상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맞는 주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고, 이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은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주민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1종에 해당하는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이고, 2종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연천군 의료급여대상자현황과 의료급여기금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천군 의료급여대상자 현황(단위: 세대,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계		1종		2종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2020	1,778	2,081	1,550	1,729	228	352
2021	1,722	1,972	1,541	1,703	181	269
2022.6.30.	1,700	1,936	1,546	1,706	154	230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운영현황			
	계	국비	도비	군비
2020	720	139	28	553
2021	775	136	27	612
2022.6.30.	621	101	20	500

(5)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천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이다.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위의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어야 하며, 둘째 일반재산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셋째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가구	지원액(원)	비고
2020	1,453	923,565,310	
2021	1,383	862,201,340	
2022.6.30.		236,780,190	

(6)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원

연천군에서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이다. 둘째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이다. 셋째는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이다. 넷째는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다.

연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의 통합적인 연계,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 모니터링이다.

〈연천군 통합사례관리 지원현황〉

연도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가구
2020	362	368
2021	340	342
2022.6.30	167	169

(7) 이웃돕기 지원현황

연천군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웃돕기 후원품(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에서는 개인, 각종단체, 기관 등에서 매년 기부하는 후원금과 물품을 받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이웃돕기 후원금과 물품을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후원물품(현금) 후원 및 지원〉

연도별	후원내역(천원)		지원대상
	후원기관	후원품(금) 지원금액	
2020	346	94,35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2021	590	114,244	
2022.6.30	507	75,650	

2) 가정복지

(1) 영, 유아복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천군에서는 영, 유아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에서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과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천군에서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부모선택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2022. 6월 현재 연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9.3%로 경기도에서 2위이다.

〈어린이집 현황〉

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25	776	7	305	5	177	7	194	6	100

연천군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연천군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교사,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만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월령별로 10~2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24개월까지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

〈연천군 영유아 지원현황(단위: 천원)〉

구분	시설별지원	아동별지원
2020	5,733,790	6,673,182
2021	5,359,762	5,969,676
2022.6.30.	2,689,186	3,218,488

연천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은 보호대상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위탁보호가정에 양육보조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여성복지

연천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건전한 성문화와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및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 폭력 교육상담 교육 및 상담현황〉

연도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직장내 폭력에 방교육	폭력상담	가정폭력	기타 상담(부부갈등, 학교폭력)
2020	4,273	634	802	409	2,212
2021	3,492	781	1,202	457	1,321
2022.6.30	2,421	1,006	210	608	341

연천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이며, 회원 수는 1,000명에 이른다. 이 단체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매년 양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 캠페인,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추진실적〉

연도	한국어교육 (시간)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 달지원(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회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 원(명)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회기)
2020	505	875	275	42	640	121
2021	465	1,216	590	73	1,305	45
2022.6.30	194	772	292	61	697	29

(3) 노인복지

연천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12,100명이다. 연천군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연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노인복지의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소방안전, 생활, 건축, 위생, 재난 등 안전관리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을 양양시키기 위해 노인의 날 행사, 장수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은 관내 노인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로당마다 매월 20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연료비로 경로당마다 연1,500,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지원실적(단위: 천원)〉

	2020		2021		22.6.30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경로당운영, 난방비	105	433,684	107	498,620	108	300,240
경로당사회활동비	105	94,500	107	96,300	108	0

연천군에서는 관내의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영위와 정신, 육체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 2010년 4월 연천군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 수는 5,145명이고 하루 평균 28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 3) 평생학습

연천군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서관, 장학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분야	과목
자격증분야	네일아트, 미용사,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실버보드게임지도사, 꽃차소믈리에, 미술심리상담사2급, 진로분석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동화연구지도사, 한식조리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국제/제빵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피부미용 자격증
기술분야 (6개 과정)	생활미용, 네일아트, 컴퓨터 기초문서활용, 현대의상, 홈패션, 섬유공예
취미, 교양분야 (13개 과정)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생활요가, 명상 및 호흡기법, 다이어트라인댄스, 트로트댄스, 서예 및 문인화, 사군자, 통기타, 건강빵과 카페디저트, 드럼교실, 생활영어

연천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교육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미라클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관내 유치원과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무상급식지원〉

연도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백만원)
2020	무상급식 지원사업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556
2021			507
2022			563

연천군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역 청소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교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습활동과 구별되는 수련활동이 있다. 연천군에서는 청소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예방교육,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해 연천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연천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서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천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하숙비, 기숙사비 등 부모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乡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향토장학금을 설치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지급인원(명)					지급액(천원)
	계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2020	73	9	25	9	30	129,738
2021	82	11	30	10	35	150,000
2022	88	12	26	12	38	164,000

## II. 의료·보건

### 1. 의료

#### 1) 연천군의 보건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민선8기 연천군수로 당선된 김덕현 군수는 ‘Yes, 연천!’ 슬로건을 내걸었다. ‘Yes, 연천!’ 은 연천군민들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연천군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로써 김덕현 군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담은 슬로건이다. 김덕현 군수는 4대 군정 방침을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으로 정했다. 평생복지는 군민들의 힘들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현장군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김덕현 군수의 의지를 담고 있다. 연천군의 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천군의 의료기관은 2017년을 기준으로 33개이고 병상 수는 281개로, 경기도 내 시, 군 중 최저 수준이었다. 연천군 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은 연천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원)이며, 52개의 입원실과 9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내 의료기관은 연천읍에 6개, 전곡읍에 27로 연천군 중심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관내에 종합병원, 특수병원, 한방병원 등은 없으며 보건의료원 등은 16개소뿐이었다. 연천군 내 의료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단위: 개소, 명)〉

계	병의원				치과	한방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종합	요양 병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33	0	1	0	13	12	0	7	1	1	7	7
계	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일반	치과	한 의사								
164	20	15	8		0	0	9	75	35	2	

출처: 연천군(2019), 2018 연천군 통계연보(2017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를 평균 13.5 병상으로, 연천군의(7.46) 약 2배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천군은 인구에 비해 병상 수가 매우 낮다. 또한 연천군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도 매우 낮다.

〈연천군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단위: 병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천군	8.95	7.06	7.04	7.11	7.46
전국	13.3	13.3	13.3	13.3	13.3

출처: e-나라지표(2020), 건강통계.

〈연천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천군	1.57	1.53	1.48	1.58	1.55
전국	2.62	2.68	2.74	2.82	2.88

출처: e-나라지표(2020), 건강통계.

2) 연천군 보건행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전경

연천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보건행정 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대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업소 관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이다.



장남보건지소 전경

### (1) 보건의료사업

2022년 현재 연천군 의료 서비스체계는 농촌의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병원화 보건소의 개념 도입에 따라 1989년 개원한 <보건의료원>은 의료자원과 보건사업과 및 보건지소(7개소), 보건지료소(7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의료지원과는 업무 대행 의사와 공중보건 의사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내과, 외과 등 전문진료 과목 9개 과를 개설 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각종 보건사업 수행 등 보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천군은 군민들의 보건진료 서비스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천군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의 고혈압, 당뇨, 결핵, 성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보다 높은 진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대민 보건의료행정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자진료실적(단위: 명)〉

연도별	구분	진료인원	비고
2018	보건의료원	28,780	
	보건지소	4,501	
	보건진료소	8,186	
2019	보건의료원	59,446	
	보건지소	5,322	
	보건진료소	7,846	
2020	보건의료원	60,810	
	보건지소	5,841	
	보건진료소	8,845	
2021	보건의료원	54,004	코로나19로 진료중단(백학 제외)
	보건지소	471	
	보건진료소	8,001	
2022(~6.30)	보건의료원	23,776	
	보건지소	182	
	보건진료소	3,458	

연천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장비, 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연중 신속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투입현황〉

연도별	의사	간호사	환자진료실적	후송현황	비고
2018(7.1~)	5	6	4,057	51	
2019	5	6	7,071	104	
2020	5	6	6,996	50	
2021	5	7	7,694	66	
2022	5	7	2,273	10	

(2) 지역보건사업

연천군에서는 여성과 어린 아기의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써 미래의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여성과 어린 아기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지원방안 및 의료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은 임신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교육상담 및 추후관리 등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임신부와 출생아를 위해 엽산제, 철분제, 튜살크림, 마스크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모유수유클리닉과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주간재활, 직업재활,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한서중앙병원과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와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성인,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천군의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사업을 통해 정신적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군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뇌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 표준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 구강관리능력 배양 및 예방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및 칫솔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연천군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확산방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다.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를 발견하고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관리하였다.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연천군의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재택격리치료하거나 병상·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연천군은 법정 전염병에 대한 보건의료행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법정 전염병인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월별 발생현황(단위: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5,039	263	1,469	7,369	3,509	942	819	41	44	55	124	246	134
2020	114	-	-	-	-	-	-	-	12	4	0	73	25
2021	638	1	12	58	5	19	14	41	32	51	124	172	109
2022	14,287	262	262	7,336	3,504	923	805	-	-	-	-	-	-

연천군에서 실시한 PCR 및 신속항원 검사 건수는 2022년 86,464건 총 187,190건이었다. 신속항원검사는 2022.1.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26,122건이 실시되었다. PCR검사 대상은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병원입원환자, 해외입국자 등이었다.

연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은 사람은 일반관리군

12,534명이고, 집중관리군은 2,078명으로 총 14,612명이었다. 재택치료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실시되었다. 연천군의 집중관리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었다. 연천군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주사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먹는 치료제인 파스로비드 등을 사용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은 만60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만12세 이상 기저질환자였다.

연천군은 자가격리자를 키트배송 대상자로 소아 430명, 성인 1,749명, 의약품배송 대상자로 1,210명, 구호물품 대상자로 1,201명, 매칭관리 대상자로 1,050명, 출장검체 대상자로 10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자가치료키트 대상자는 60세 이상 확진자와 12세 미만 확진자였다.

#### (4) 의, 약무 감시

연천군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관내 보건의료 관리단체와 협동하여 감시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자율적 감시활동은 건전한 의료이용질서의 조성과 주민의 보건 향상에 보탬이 되었다.

의료행위와 의약품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천군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받은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였다. 연천군은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 불량한 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에 전략을 경주하였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 실태(단위: 건)〉

	점검대상	위반건수	조치사항				
			계	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	시정지시	기타
2018.7.1	116	-	-	-	-	-	-
2019	108	-	-	-	-	-	-
2020	70	6	6	-	1	5	-
2021	113	0	1	-	1	-	-
2022.6.30	57	0	-	-	-	-	-

#### (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연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군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 미취학 어린 건강교실운영,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노인신체활동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 보건지소와 보건지료소 운영

연천군 관내의 보건지소는 7개이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의 보건사업을 주도하고 주민보건 센터로서 진료업무와 질병예방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건지소 현황〉

	종사자 수			설치연도	진료과목
	계	공중보건의	직원		
계	14	9	5	06	
연천보건지소	-	-	-	06	순회진료
군남보건지소	3	2	1	08	내과, 한방
청산보건지소	2	1	1	04	내과
백학보건지소	4	3	1	06	내과, 치과, 한방
왕산보건지소	2	1	1	06	내과, 치과
신서보건지소	3	2	1	06,21	내과, 치과, 한방
장남보건지소	-	-	-	93	순회진료

연천군 관내의 보건진료소는 7개로, 양원리, 늘목리, 마전리, 동중리, 횡산리 등에 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아픈 주민들에 대한 1차 보건진료 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마을 건강원을 위촉하고 있다. 마을 건강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소정의 보건 기초교육을 매년 받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현황〉

	진료원	소재지	설치년도	진료과목
계	7			
고문리진료소	1	연천읍	09	1차진료
양원리진료소	1	전곡읍	06	1차진료
늘목리진료소	1	전곡읍	02	1차진료
노곡리진료소	1	백학면	06	1차진료
마전리진료소	1	미산면	07	1차진료
동중리진료소	1	왕징면	06	1차진료
횡산리진료소	1	중면	13	1차진료

### III. 환경

#### 1. 환경보전

##### 1) 환경관리

현대산업문명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으로 경이로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일찍이 유례없는 문명의 혜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미래의 생존 문제마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업의 유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물질은 적지만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인근 시군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주변지역의 오염물질들이 연천군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연천군도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에서는 동두천 행정협의회 등과 같은 각종 협의를 통해 해당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줄 것과 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영평천과 신천의 오염원 차단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다. 연천군의 노력으로 한탄강의 오염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신천과 영평천에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한탄강과 임진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천군과 인근 시군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과 인근 시군은 한탄강과 임진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 (1) 환경오염원 관리

최근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 소비의 증대, 수자원 이용의 증대에 따라 매연, 오수,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의 배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도시, 공업단지과 인근 농업지대의 주변과 주요 하천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연천군에서도 증가해가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다. 연천군 행정당국에서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경우, 연천군에서는 작업장 환경개선(공장 등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수도 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을 설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는 가축분뇨처리, 163개의 폐수발생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오염도 측정으로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각 가정에 대한 생활오수 줄이기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 연천군에서는 관내의 대기배출업소와 매연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예방단속, 노후된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군에서도 배출가로 인한 CO/HC 등의 오염원과 주거생활개선에 따른 난방연료(유류) 사용증가로 인한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운행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 적발 및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2) 공해배출업소 현황

연천군 관내에는 산재한 공해 배출업소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 업소로서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조업 중인 공장은 2022년 6월 현재 대기 83, 수질 163, 소음·진동 70개 업소이다. 이들 공장은 주로 전곡읍과 청산면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폐수배출업소가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폐수배출공장의 규모는 1~2종의 큰 시설보다는 5종의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은 관내에 159개소이며, 이들 5종사업의 업종은 세차시설, 섬유관련시설로 극히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업종별 현황〉

종별	배출업소 수	분포율(%)	비고
계	207	100	
금속	2	1.0	
화학	4	2	
고무, 플라스틱	3	1.5	
석유정제	0	0	
가죽모피	7	3.4	
목재 나무	0	0	
종이인쇄	0	0	
음식물	13	6.3	
섬유	11	5.3	
기타	167	80.75	

〈읍면별 분포〉

읍면별	계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	장남
업체수	207	26	72	19	42	10	5	6	22	4	1
분포	100	13	35	9	20	4	2	3	11	2	1

〈종별현황〉

	대기						수질						소음진동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20	77			3	30	44	167			3	3	161	70
2021	81			4	32	45	164			3	2	159	70
2022.6.30	83			4	32	47	163			2	2	159	70

〈대기 및 수질의 종별 구분표〉

	대기	수질
기준	오염물질발생량(연간)	폐수 배출량(1일)
1종	80톤 이상	2,000m <sup>3</sup>
2종	20톤 이상~80톤 미만	700~2,000m <sup>3</sup> 미만
3종	10톤 이상~20톤 미만	200~700m <sup>3</sup> 미만
4종	2톤 이상~10톤 미만	50~200m <sup>3</sup> 미만
5종	2톤 미만	50m <sup>3</sup> 미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현황〉

	점검업 체 수	조치내역								
		계	고발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금지	개선명령	기타
			순수	병행						
2020	98	33			11	5		1	2	14
2021	181	16		2	3	1		2	3	5
2022.6.30	60	7			2				3	2

2) 쓰레기 처리

(1) 생활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연천군에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분야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연천군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으로 쓰레기 처리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연천군은 1994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2012년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으로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은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청소업무 분야에 있어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처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기초시설부분의 선진화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는 군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전량을 2012년부터 새로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 자원재활용센터 소각장 및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 현황(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구역(km <sup>2</sup> )	인구수(명)	배출량(톤)	1인당쓰레기 배출량(kg/일)
2020	676.19	43,516	9,887	227.20
2021	676.19	42,712	9,672	226.40
2022.6.30	676.19	42,625	5,265	123.52

쓰레기 배출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과 소각 처리되고 있어 악취 및 침출수의 발생으로 토양, 대기, 수질, 지하수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전문 처리 업체가 100% 사료용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은 종이류와 공병 등 재활용품을 각급 단체와 해당 읍면 전담 재활용품 수거반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 현황〉

	계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	병류	기타류
2020	735	200	189	38	165	117	26
2021	696	93	283	30	147	107	36
2022.6.30	347.24	36.14	148.06	11.35	59.14	81.55	11

3)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연천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중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생활오수 발생량〉 ※2020년 하수도 통계자료 참고

구분	오수량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세대수	인구수(천명)	오수량(m <sup>3</sup> /일)	세대수	인구수(천명)	오수량(m <sup>3</sup> /일)
2018	27,291	18,403	39	26,204	2,831	6	1,087
2019	25,302	19,188	40	24,136	2,354	4.9	1,166
2020	24,216	19,843	41	23,075	1,611	3.3	1,141

연천군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개별처리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발생하는 분뇨들과 소량의 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들이 분뇨공공처리시설에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다.

〈분뇨발생현황〉 ※2021년 하수도 통계자료 참고

구분	면적(km <sup>2</sup> )	인구(천명)	발생량(m <sup>3</sup> /일)			처리대상제외(m <sup>3</sup> /일)	
			계	수거식	수세식	오,벽지	정화조등처리
2019	676	43	22.92	0	22.92	-	22.92
2020	676	43	20.21	0	20.21	-	20.21
2021	676	42	22.17	0	22.17	-	22.17

연천군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 액비 무단방치 또는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이 하천의 수질악화, 부영양화, 악취, 해충 등 생활환경을 위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발생현황〉

구분	축산농가수		사육두수					
	허가	신고	계	소,말	젓소	돼지	닭	기타
2020	277	358	4,830,092	8,968	9,431	2,180	4,734,827	74,686
2021	290	322	4,619,676	9,861	10,595	117,294	4,407,360	74,566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구분	대상	위반	처분사항				고발	과태료
			계	개선명령	폐쇄	기타		
2020	635	22	9	1		8	3	10
2021	612	43	18	4	5	9	13	12

#### 4) 각종 공해 관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공해관리 항목에 대해 대기환경, 수질환경관리,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한다.

첫째, 대기환경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또는 재산상에 해를 미치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말하는데, 산업화로 인해 배출시설의 증가로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천군에서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천군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살수차와 청소차를 이용해 월 1회 <Dust Clean Day>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조치건수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치내역			
					부과금	고발 (병행고발)	폐쇄명령 (조업정지)	기타
2020	21	8	8	1			2	5
2021	66	6	6	1		1	1	3
2022.6.30	14	2	2	1				1

둘째, 수질환경관리의 경우, 연천군은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수많은 실개천들이 있어 이러한 물의 관리가 지역 환경관리의 기초이며 식수원의 관리와 맞물려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연천군에서는 관내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거나 하천과 인접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 곳의 폐수 상태를 관찰하고 무단방류 여부를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최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자원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조치건수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치내역			
					부과금	고발 (병행고발)	폐쇄명령 (조업정지)	기타
2020	77	25	25		9,700	2		23
2021	115	10	10	2	6,660	1	1	7
2022.6.30	46	5	5	2	1,100			3

셋째, 폐기물관리의 경우, 연천군에서는 각종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군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의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 연천군은 2012년 4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청산면 일대에 2028년까지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갖출 것이며 군의 환경보전과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1일 평균 처리)〉

	배출량(톤)	처리내역			
		계	매립	재활용	자가처리
2018	21,56	15,79	13,84	2,13	-
2019	21,70	17,57	15,40	2,17	-
2020	27,09	17,29	15,04	2,25	-
2021	26,50	24,23	21,90	2,33	-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계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계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2020	19	7	0	5	7	0	20	0	20
2021	19	7	0	5	7	0	20	0	20
2022.6.30	19	7	0	5	7	0	20	0	20

## 2. 환경기초 시설

### 1) 운영

연천군은 생활하수, 분뇨, 가축분뇨, 생활폐기물,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관내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연천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은 연천군 환경기초시설을 200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2021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코비트위터(주), 일주종합건설(주)), 백학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더존환경기술(주), 2014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티에스케이워터(주))을 추가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청과 청소행정팀, 오염총량팀,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에서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다.

연천군은 연천군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오염원들을 합리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 공중보건위생, 한탄강과 임진강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우리군은 오염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지역제활성화의 기술,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2) 현황

### 〈시설개요〉

구분	연천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위치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청산면 대전리 459
부지면적	55,338㎡			119,197㎡
시설면적	6,840㎡	702㎡	1,617㎡	37,500㎡
처리용량	12,000톤/일	90톤/일	150톤/일	650,000㎡
처리방법	Denipho	전처리	액사부식법	준호기성매립법
처리지역	연천읍, 전곡읍	연천군 전역	연천군전역	연천군전역, 군부대

### 〈수질관리 (단위: ppm)〉

구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백학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치	청산면 대전리 459	청산면 대전리	백학면 통구리
부지면적	119,197㎡	14,111㎡	4,364㎡
시설면적	1,188㎡	6,922㎡	455.4㎡
처리용량	40톤/일	19,000톤/일	500톤/일
처리방법	스토카	A <sup>2</sup> O, 펜톤산화공법	KSMBR기법
처리지역	연천군전역, 군부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백학일반산업단지

구분	신서공공하수 처리시설	임진공공하수 처리시설	청산공공하수 처리시설
위치	신서면 도신리 135	미산면 우정리 313	청산면 장탄리 340
부지면적	8,454㎡	92,350㎡	9,110㎡
시설면적	1,619㎡	2,951㎡	1,907㎡
처리용량	2,000톤/일	2,300톤/일	2,100톤/일
처리방법	SBR	SBR	SBR
처리지역	신서면 일원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일원	장탄리, 궁평리, 백의리 일원

구분	백학공공하수 처리시설	원당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중간말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치	백학면 전동리 103	장남면 고랑포리 151	전곡읍 양원리 527
부지면적	8,410㎡	5,767㎡	2,625㎡
시설면적	2,064.75㎡	120.12	369.49㎡
처리용량	1,700톤/일	230톤/일	700톤/일
처리방법	Denipho	BCS	H-SBR
처리지역	백학면 일원	장남면 일원	전곡읍 일원

구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유기탄소 (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방류수 수질기준	10	25	10	20	0.5
최종 방류수 수질계획	5	25	10	20	0.3

〈쓰레기 매립현황 (단위: 톤)〉

구분	매립량	매립량(누계)	잔여매립량	비고
2020	5,488.09	528,364.25	121,635.75	
2021	7,989.93	533,852.34	116,147.66	
2022.6.30	2,991.60	536,843.94	113,156.06	

## IV. 연천군 사회조직

연천군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회단체가 있다. 사회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다. 협조요청을 해보았지만 파악되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음을 밝혀둔다.

### 대한노인회 연천군 지회

2023년 2월 14일까지 대한노인회 연천군 지회는 정남훈 지회장을 중심으로 19명이 활동하였다. 연천군 연천군지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을 맞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대면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현 군수를 비롯한 심상금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6명, 윤종영 도의원과 대의원인 전 경로당회장 109명이 참석하였다. 2월 14일 신입회장으로 이종철 지회장을 비롯하여 김기식, 심대섭 신입 감사가 선임되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2021년 10월 6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자문위원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20기 협의회장으로 이효재 회장이 연임되었다.

###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는 양수정 협의회장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는 관내의 환경운동, 노인회 후원, 사랑의 김장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왔다. 2021년 10월 28일 협의회는 왕징면 노동리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회원 50명은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만든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110가구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 연천군 약사회

현재 연천군 약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김주식, 이종석 약사가 맡고 있다. 연천군 약사회는 2022년 5월 2일 군청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구충제 1000개를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2007년 어린이 종합영양제, 종합감기약 등의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설과 추석명절에 농촌사랑상품권 100장 100만 원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인천일보』, 5.1).

##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회원 수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지역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양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 캠페인,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연천군 새마을회

연천군 새마을회는 회장과 부회장은 이인행 회장, 이춘애 부회장이 맡고 있다. 2023년 새마을운동 53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와 함께', '다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추진역량강화 등 4대 핵심과제운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연천군 지역의 보훈단체〉

구분 (고유번호)	회원수		지회장	사무국장	비고
	관리	공식			
상이군경회 (127-80-18127)	148	181	장기현	신복희	보훈단체 협의회장
전몰군경유족회 (127-80-18151)	58	64	최인섭		
전몰군경미망인회 (127-80-18132)	82	86	허순분		
무공수훈자회 (127-82-08701)	136	263	김대영	손형선	
6.25참전유공자회 (127-82-83224)	114	245	이승복	박성찬	
고엽제전우회 (129-81-59719)	137	101	김정직	표춘수	
월남전참전자회 (127-82-71811)	121	332	배석하	정병은	
재향군인회 (127-82-05193)	3,413	3,375	이상언	유종권	



## V. 연천 사회와 군부대

연천군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접경지역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접경이란 1.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한다)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 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 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안부(이하 행안부)에서는 2011년 7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발전종합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유일의 분단지역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 평화벨트(Eco-Peace Belt) 육성”한다. 둘째, 사회, 지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일원의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간 연계 상생발을 도모한다. 셋째, 국가안보상 각종 중첩된 규제 및 계획적 국토관리의 미흡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불편이 가중된 지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적 범위로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가 그에 해당된다.

규제현황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이 완화, 해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역 이외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의 4.5%에 지나지 않지만,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다른 지역의 10배 이상인 평균 52.6%이다. 행정구역 면적의 90%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은 토지이용 제한으로 앞으로도 정주생활환경과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측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1~2030년(20년)간 5대 전략 165개 사업 총 투자규모 18.8조(민자포함) 사업 규모를 잡고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인근 군부대들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

민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군부대에서는 농번기, 연로하신 농민들, 재난 재해를 입었을 때 군부대에서는 수해복구, 대민지원, 재난복구, 주민대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연천군 장남면, 신서면 '방위협의회'도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부대원들을 격려하였다. 연천군 장남면 방위협의회(회장 유병호)와 장남면 이장협의회(회장 강성철)는 2023년 1월 19일 설을 앞두고 국가안보를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과 TV를 전달하였다(『동두천.연천신문』, 2023.1.23.). 장남면과 군부대는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사회발전을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주민과 군부대 양측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민, 군, 관이 협력하여 연천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와 같이 규제와 금지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 군, 관이 지역의 행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을 내놓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접경지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평화지역 군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국방부와 지자체, 지역과의 국방개혁 관련 소통 및 공유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빠른 속도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병력 감축에 따른 연천지역의 상권침체, 업종폐업, 유희부지 문제, 지방재정 영향, 인구감소 등 지역내 다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연천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즐길거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천군은 군장병 관련 서비스 교육과 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필요도 없지 않다.

연천군에 주둔한 장병을 중심으로 민, 군,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문화복지 및 교육(체험) 복합공간을 조성,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 군,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는 연천군 내의 학교부지 및 유희부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내용은 문화, 정보제공, 교육, 쉼터 등 민, 군, 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와 화합과 회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기대효과는 민, 군, 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접경지역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정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으로 퇴역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 제 4 장

# 대한민국과 연천 그리고 미래

- I. 연천군 종합발전계획의 배경 및 목적
- II.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III.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 IV. 경기도 종합계획
- V. 경기비전 2040
- VI. 연천군 중장기 계획



# I. 연천군 종합발전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

연천군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에서 제시한 정책을 반영하고 미래 연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로 인해 경기북부권의 대표적인 낙후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연천군에서는 남북교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입지와 그에 따른 기대감, 유네스코 3대 크라운 등재 등의 영향으로, 또 은통 BIX 일반산업단지, 수도권 전철의 연장, 연천 국립현충원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에 힘입어 향후 발전 계획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은 2020년을 목표로 ‘연천 VISION 2020’을 수립하였고, 그 실천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은 계획기간이 도래한 ‘연천 VISION 2020’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급변하는 여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상위 기관인 정부와 경기도의 발전 계획과 방향을 참작하여 ‘2030 연천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30 연천군 도시기본계획’은 그에 앞선 ‘연천 VISION 2020’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러 계획과 그 성과를 계승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각각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및 2040경기도 종합발전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연천군은 정부와 경기도의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을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과 법정계획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의 전제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상을 그려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2. 다양한 행정수요에의 능동적 대응

남북경협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천군에서는 민선8기 전환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천군은 군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실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직면하여 연천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문화 및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한 선진적인 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 급변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3. 중장기종합발전 비전 제시

연천군에서는 남북한 평화화해 무드에 따라 접경지역의 중심에는 연천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간의 조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비전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살고 좋은 연천군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연천군은 급변하는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미래 발전에 대한 희망과 도전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위하여 연천군에서는 실용성 있는 전략과 정책이 뒷받침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경기북부권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종합검토하여 연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둘째, 2030년을 목표로 연천군의 도시발전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발전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한다. 셋째, 2030 연천군 도시기본계획 등 부문별 법정계획의 계획내용을 연계하여 종합적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천군은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 및 실천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특화된 비전과 발전 방향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연천군 매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주민체감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 주거, 도로, 교통, 산업경제(농축산업), 일자리, 평화·생태·환경·안전, 문화·관광·예술, 보건·복지·교육·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정책수단을 개발한다.

연천군은 2030 도시미래의 발전전망에 대한 군민과의 합의와 약속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연천군은 중장기적 군정목표와 부문별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주거, 도로, 교통, 산업경제(농축산업), 일자리 등 각 부문별 종합계획 추진의 논리적 근거와 체계를 제공한다. 그다음으로, 연천군은 2030년 도시미래의 발전전망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와 약속을 토대로 계획실행의 실천력을 제고한다.



## 4. 중장기 종합계획의 지향점

### 1) 실천가능성 확보

연천군에서는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군의 여건과 역량, 잠재력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춘 전략적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에서는 본 계획에서 검토, 제시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천군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실천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 2)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연천군에서는 국가 및 경기도 등 상위계획의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 확산 및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사업간 연계성과 파급효과 등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기존 종합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된 사업 및 전략과 업무계획 등 현안사업을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3)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군에서는 계획내용과 정책방향을 대안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성과 객관성에 기반한 최적의 대안으로 정형화하고 현재와 미래상황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과 근거 제시를 통해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4) 주민요구 수렴 및 참여

연천군에서는 주민참여형 2030 종합발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현황, 여건 및 전망, 정책구상,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연천군민의 절대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에서는 전략구상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주민 중심의 계획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 II.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계획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현안 이슈와 발전전략을 제안받아 종합계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 강원권의 경우, 집약적 도시관리, 수도권 내 균형발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이전제도, 노후관광지 재생 강화, 인구감소시대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통일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남북 간 인프라 등을 제안하고 있다.

###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6대추진전략	추진과제
공정사회,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	-토지의 공공성 및 난개발 방지 -국토보유세 및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도입, 산업단지 계획 입지 활성화로 난개발 가능성 최소화
	-수도권, 상수원, 군사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시행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이용
	북보, 도부지역 구시가지 등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
	컴팩트 토지이용을 위한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거점 조성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취약계층 주거서비스 개선
	생활 SOC확충과 균형 배치
	도시재생,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재생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에너지 혁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환경계획의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 목표(SDGs)이행체계 구축
대중교통확충 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의 구축 A노선: 삼성~동탄, 파주~삼성, B노선: 송도~마석, C노선: 덕정~수원 등 3 개노선 건설 -대곡소사선 별내선 개통, 교외선(능곡~의정부)운행 재개 및 의정부~남양 주 철도 건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추진과 BRT 및 트램노선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과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 수소자동차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AV(Auto Vechicle)테스트베드 확대 및 AV시범도로 확충하고, 전기 수소 차 충전소 확충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 산업벨트 조성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 및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추진
	ICT,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 유통체계 혁신
한반도 평화, 경제공동체의 거점 조성	통일경제특구 및 DMZ평화생태벨트 조성
	한반도 유라시아 연결 교통인프라 조성

출처: 국토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토계획연구단

## 2. 연천군 관련 내용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과 관련해 연천군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 통일경제특구 및 DMZ평화생태벨트 조성이다. 연천군은 중앙정부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하여 파주, 김포, 연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정부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한강하구, 임진강 수계를 공동관리하고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둘째, 한반도 유라시아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이다. 연천군은 유라시아 연결철도망 건설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기도 접경지역과 북한 접경지역 연결의 결절점이다. 교통인프라 구축 노선에서 연천의 신탄리역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남북 평화협력을 위한 경평축 메가리전 개발이다. 연천군은 남측의 접경지역과 북한의 여행금지구역을 통합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천군은 DMZ 임진강, 경기만을 대상으로 한 남북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넷째, 임진강 유역 수자원 개발과 DMZ 및 접경지역에 (가칭) 한반도 평화생태 국립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 III.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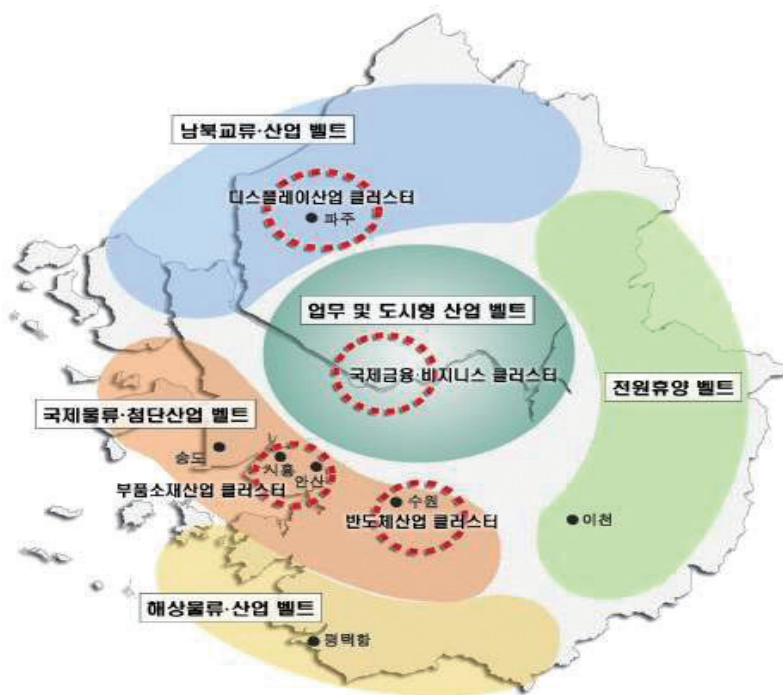
#### 1. 개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 해당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계획기간이 일치한다. 계획의 성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하는 것이다.

#### 2. 연천군과 관련한 내용

연천군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기존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5



출처: 국토연구원(200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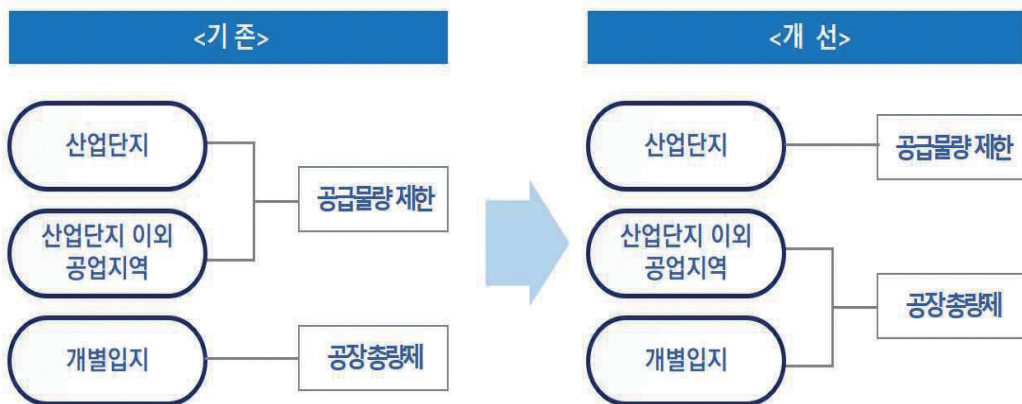
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속하는 연천군도 이러한 산업벨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며, 그런 만큼 정비전략은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연천군에서는 성장관리권역의 계획적 개발 등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으로,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의 집산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 내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신, 증설에 대해 정부는 국민경제에 첨단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허용 검토 및 지방과의 Win-Win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지만 접경지역으로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에 속하며, 그런 만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공업지역 공급시책의 변화

## IV. 경기도 종합계획

### 1. 비전 및 목표

경기도의 발전 비전은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경기도는 종합계획의 목표로서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 4개를 제시하고 있다.

#### 〈4대 목표와 8대 기본과제〉

4대목표	
대한민국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 완성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
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 녹색교통체계 완성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매력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출처: 경기도(2012), 경기도 종합계획

### 2. 연천군 관련 내용

경기도는 기존 특화산업인 섬유, 피혁, 가구산업 의존전략에서 탈피하여, 파주지역의 성장 산업과 연계시키고, 동서간 공간구조 확장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전략을 통해 낙후지역인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벨트를 형성하고자 한다. 경기도에서는 인근 파주 LCD 연관산업 유치 및 이전수요 수용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거점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강관련 R&D 및 생산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하고, 섬유, 가구 등 지역특산업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동서간 공간구조 확장 신성장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국지도 39호선 확장, 제2순환고속도로를 조기 준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및 군부대 이전 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천군에 반환된 구역인 트레이닝 에어리어를 기반산업단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DMZ의 핵심가치인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V. 경기비전 2040



출처: 경기도(2015), 경기비전 2040

### 1. 목표와 전략

경기도는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바라고, 경기도가 가진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로 설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이다. 둘째,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해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셋째,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전략이다.

### 2. 연천군 관련 사업

경기도는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서울-원산축을 잇는 인프라 구축 지점 가운데 연천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는 서울-원산간 철도, 고속도로,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의 일체적 건설과 금강산-마식령-연천 고대산을 잇는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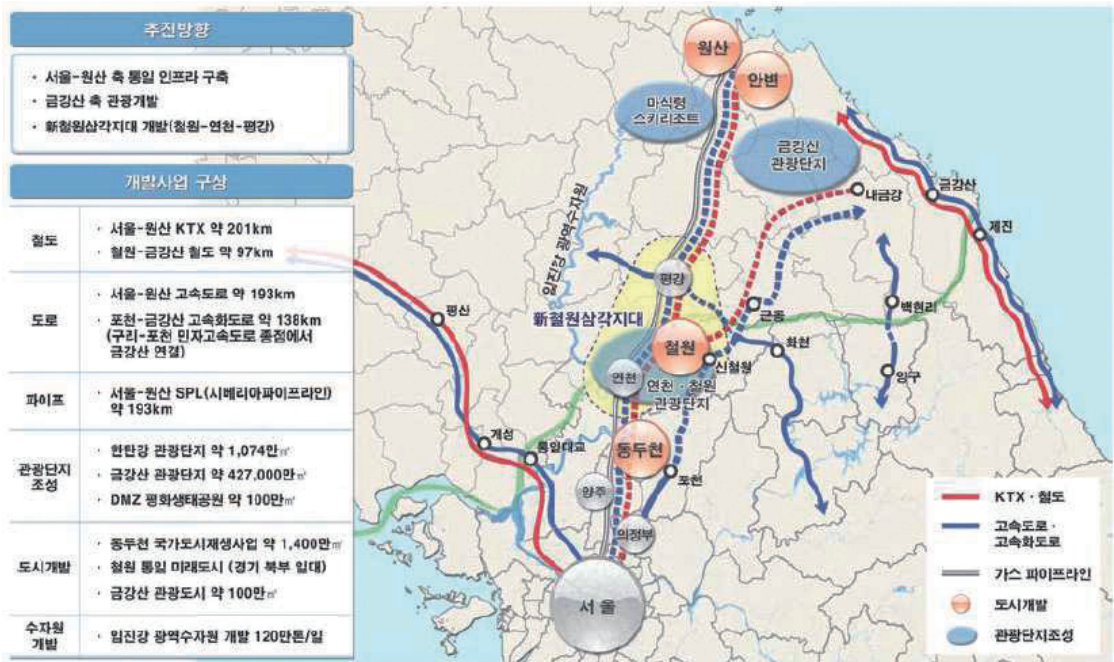
경기도는 섬유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 제조업에 패션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하여 '섬유, 패션,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다. 경기도는 인근 섬유생산업체, 섬유관련 연구소, 섬유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에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적성하고 있다. 경기 북부 특화권역 유망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연천과 관련되어 있다. 경기도는 DMZ에 최첨단 자연생태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DMZ에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연생태 빅데이터 축적 및 생태지도 작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연생태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즉 친환경-디자인 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섬유, 가구산업 등 경기북부의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디자인 및 친환경을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섬유산업은 연천군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는 고속 및 광역 접근교통망 부재로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또 지역경제 침체되어 왔으며, 그 결과 향후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을 낮추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교통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VI. 연천군 중장기 계획

### 1.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연천군은 도시미래상을 연천군의 연원과 특징, 그리고 미래 전망이 함축적으로 표현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천군에서는 대한민국 통일 심장 “한반도의 통일 중심도시 연천”으로 2030 연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다.

연천군의 중장기 계획 및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4대 목표 및 12개의 실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2030년 연천군 계획 목표인 「대한민국 통일심장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4대 계획목표 및 12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남북경제교류 협력 및 접경지역으로서의 “통일교류 협력도시”,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친환경 건강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유하는 “안전한 경제도시”, 사(史), 문(文), 수(水)가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라는 4가지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천군 2030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도시 미래상	「대한민국 통일 심장 “한반도의 통일 중심도시” 연천」	
4대 목표	12개 실천전략	실천방안
통일 교류 협력 도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와 연계한 남북교류 협력단 지 조성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통일한글연구회, 통일지적 공사, DMZ관 광자원 조사 발굴단 등 행정기관 유치 -민간주도 남북연합 통합기구 설치 -이북행정타운, 통일장터 유치
	통일을 대비 남북화합 복 합신도시(산업+주거)조 성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새터민 타운 조 성 -북한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장마당 음식촌 조성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기능 담당
	올바른 통일인식과 민족 화합	-통일과제, 통일정책 연구를 위한 통일대학원 유치 -남북의 대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일대학교 유치
친환경 건강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전원주거 공간조성	-역세권 주변 전원도시 저밀도의 전원주택 건설 -친환경주택 및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커뮤니티를 강조 -전원주거공간 조성
	역사중심의 편리하고 안 전한 생활거점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TOD(대중교통중심) 중심 -생활거점형 도시 조성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 질 의료클러스터구축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홈케어 시스템 구축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의료정책구축
안전한 경제 도시	경기북부 지역균형 발전 을 위한 거점산업 단지 조성	-은통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 조성 -은통산업단지와 연계한 빙그레 산업단지 조성 -백학산업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추진
	친환경 첨단산업 일자리 가 넘치는 도시기반 구축	-청산면 첨단시소재 복합컴플렉스 조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스마트 첨단공장 설립 유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 전하고 편리한 녹색행보 체계 확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대중교통 정보제공 시스템 확충 및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도착 알림 서비스 제공 -천원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역사 문화 관광 도시	임진강의 수경관리 연계 한 체험형 레저, 관광단 지 조성	-임진강-한탄강 낚시 체험 마을, 고대산, 감악산 등 등반 코스 -한탄강 지질공원 베개용암, 재인폭포 등 지질관광코스과 고대산 캠핑장, 한탄강 및 임진강 캠핑장과 연계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
	태풍전망대~DMZ를 연 계한 평화, 안보 체험관 광벨트 구축	-신탄리역을 거점으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 연천 DMZ생태체 험,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누리길 체험
	전곡선사유적지~한탄강 관광지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벨트 구축	-전곡선사유적 박물관과 한탄강 캠핑장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출처: 연천군(2019),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

## 2. 연천 VISION 2030

### 1) 비전의 배경과 목적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북분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산업 등 지역 제반 성장이 정체되고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로 타지역에 비해 성장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은 지정학적 위치, 뛰어난 자연환경, 다양한 지리적 역사적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일 이후의 한반도 지역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에서는 통일 이전과 이후의 비전을 구분하여 제시하되, 통일 이전의 발전구상에서는 그동안 규제의 원인이 되어 왔던 군부대 입지 및 장병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SOC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천군은 레저 휴양시대를 맞이하여 관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 도로시설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도시발전계획에서 연천군은 통일을 예측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향후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 비전의 범위

첫째, 연천군에서는 공간적 범위로 경기도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활권과 접경지역을 고려하여 파주시, 동두천시 등의 연접지역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둘째, 연천군에서는 시간적 범위로 2013~2030(기준년도:2012)로 잡고 있다. 셋째, 연천군에서는 내용적 범위로 국내외 여건변화, 특히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고려하여 지역의 중,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연천군의 주요 비전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비전에 따른 전략을 도출하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연천발전 방안

추진 부문	추진계획	현황	추진방향 및 세부 내용
토지 이용 계획	군훈련장 재배치를 통한 가용용지 확보	-연천군은 총면적 696km <sup>2</sup> 중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 -연천군 내 훈련장, 사격장 수는 39개로 경기도 전체의 33.3%차지	-연천군 내 훈련장 재배치 -연천군 관련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첩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추진과 시행을 용이하게 해야 함
정주 환경	마을중심의 주거지 재정비: 마을만들기	-연천군 주택의 60%이상이 단독 주택이며, 20년 이상된 주택의 비중이 50%이상으로 주택 노후가 심각 -연천군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개별 단위의 주택개보수의 제한이 있음	-정비사업의 범위는 개별 주택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확대하여 주택의 개량과 마을 공동시설의 공급 및개량이 동시 추진
	전원형 생태주거 단지 조성	-교통 확충으로 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연천군내 전원주택 수요 증가 -지역내 추진사업은 노인대상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사업만 있음	-사업자의 생태주거단지 사업 수행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유도 -친환경 주거도시의 이미지 구축 및 관련 인증비용 지원
	경원선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	-관내의 경원선(초성리역, 전곡역, 연천역) -동두천-연천 간 전철화 사업 계획 추진 중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전원의 기능을 갖는 도농복합도시 형태계획 수립 -연천 전곡역세권 상업용지 개발 -초성리 주거용지 개발사업
	군 병원유치를 통한 의료시설 확보	-연천군 내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65개소, 경기도 내 시, 군(31개) 중 최저수준(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1)	-군병원 진료를 주민에게도 개방
산업	군수산업 클러스터조성	-연천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둔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천군 면적의 98%인 660.6km <sup>2</sup> -성장관리권역은 연천군 면적의 100%인 674.52km <sup>2</sup> -연천군 내에 5개 사단, 1개 군수지사 규모의 부대가 주둔하나 군관련 산업 육성은 미미함	-단기적: 부식, 군복, 보급품 등의 검수 및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 -중, 장기적: 부품 소재 산업과 연결된 무기류, 기능성 신소재 군복 제조업 육성 방안 고려 -지역특산물 군납 등 지역 특색을 이용한 군산업 클러스터 형성 -인근 동두천 산업단지의 공장과 연계 -조달 업무 협력제(MOU)를 통한 군수 물자 납품으로 군과 지역의 동반성장과 안정조달 사업확보 -군수산업 기술지원센터 설립
	대학캠퍼스 및 기능 대학 유치	-각종 규제로 종합대학이 없음 -향후에도 4년제 대학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립 한경대학교 제2캠퍼스를 연천군 23만 1천 m <sup>2</sup> 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함	-제도적인 지원 뒷받침(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가하지 않음)

관광	체류형 관광지 조성: 오토캠핑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한탄강 관광지 위치 -관광연계상품 부족 및 침수 피해	-오토캠핑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제반시설 구축, 역사체험 등의 관광루트 개발, 타겟 관광그룹을 세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진행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 -임진강 유원지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 특구 -백학관광리조트 조성 사업
	평화, 생태 관광벨트 조성	-DMZ와 실제로 접하고 있는 시군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임 -DMZ관광은 과거 안보관광 중심	-연천군에 산재한 안보관광자원을 연계개발 -연천군의 안보관련 상품과 생태관련 관광지 원 연계 -민간인 통제구역 활용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존도로 개량 및 도로망 추가 확충	-도로시설 수준이 수도권 중 최하위 -연천군의 도로 포장률이 전국 최하위인 54% 이하	구리~연천 민자 고속도로 건설 -기존 도로 확, 포장 및 선형개량(국도 37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로 공사) -추가 도로노선 확충
	경원선 철도 연장	-통근열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 -전곡역 및 연천역 수요 급감	-경원선 전철 연장 -초성리역 인근 52ASP 지하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접경지역 내 고속 교통 인프라 부재로 지역경제 침체 -북한지역도 마찬가지로 동서방향 교통로 부재	-기존 국도를 활용한 동서평화녹색도로 구축
	훈련용 도로분리를 통한 민군동선분리	-군용차량과 민간차량의 혼재 -군용차량으로 인한 도로훼손과 2차 피해 발생 우려	-도로법 제11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의 군용도로가 없으므로 연천군과 같은 특수 접경지역의 경우의 법 제정이 필요

출처: 연천군(2013), 연천 VISION 2030



## | 편집후기 |

지난 3년여 동안의 연천군지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2021년 5월 편찬 작업에 착수할 당시에는 연천의 자연과 자연유산, 연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연천의 삶과 문화, 연천의 정치·경제·사회 등 통권 4권으로 구성된 군지를 2년에 걸쳐 간행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편찬과정에서 집필과 자료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찬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군지의 전체 분량도 통권 5권(합계 6권)으로 늘어났다. 이번 편찬 작업에 앞서 기존의 연천군지와 최근 편찬된 다른 시·군의 편찬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군지 편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천군지는 1997년 7월에 착수하여 2000년 9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는데, 상·하 2권, 2,27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한편, 345건에 달하는 각급 지자체의 시군구지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연천군지와 비슷한 1990년대말~2000년대 초반에 편찬된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집대성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20여 년 전의 이러한 시군구지들은 방대한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의 서술과 편집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자체로 향토사의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간행된 시군구지들을 분석한 결과 자료의 총량라보다는 지역별, 주제별로 세분된 내용을 시리즈로 간행하고, e-book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향이 확대되었으며, 마을 단위의 지역사를 구축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천군지의 편찬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구석기시대 이래 2021년 현재까지의 연천과 관련된 내용을 집대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군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둘째, 서술 방식과 편집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e-book으로 편찬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셋째, 편찬과정에서 수집된 사료와 자료 일체는 아카이빙시스템을 구축하여 탑재하고, 향후 새로 추가되는 자료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연천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여 보급함으로써 연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마을 단위의 지역사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구술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이상과 같은 편찬 방향을 바탕으로 3년간에 걸쳐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통권 5권(합계 6권)의 군지가 편찬되었으며, 각 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권 ‘연천의 자연과 자연유산’은 지질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는 연천의 지질과 지형, 기후와 환경, 동물상과 식물상, 자연자원과 자연유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진과 함께 김승호(DMZ생태연구소 소장), 김재현·박신영(DMZ생태연구소 연구원) 등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제2권 ‘연천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기존 군지에 비해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고자 하였다. 집필에는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재우(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재훈(경북대학교 교수), 임성수(평택대학교 교수), 서영희(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박종린(한남대학교 교수), 양영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제3권 ‘연천의 문화유산’은 구석기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연천군 문화유산을 일별하였는데, 현지 조사를 통해 2000년 이후 새로 조사된 문화유산을 추가하고, 기존에 확인된 유적의 현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구석기시대 전곡리유적과 청동기시대 고인돌 및 고구려유적 등 연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특질과 역사적 가치를 서술하였는데, 성춘택(서울대학교 교수), 황재훈(충남대학교 교수), 심광주(전 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제4권 ‘연천의 삶과 문화’는 연천의 인문환경을 필두로 민속과 설화, 언어·문학·교육·종교·문화·예술·체육 등을 망라하였으며, 구술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야기를 추가하였는데, 편집과정에서 분량상의 문제로 마을이야기와 지명유래는 별권으로 분책하기로 하여 제4권은 상·하 2권으로 편집하였다. 마을이야기는 호로고루 통일바라기축제로 잘 알려진 장남면 원당리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세진 호서대학교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구술과 집필을 담당하였다. 그밖의 4상권의 내용은 기존 연천군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20여 년 전 군지 편찬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현재에도 자료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군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최근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편집하였으며, 당시 현지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편집하여 아카이빙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요약된 본문에는 기존 연천

군지의 해당 저자를 표기하였는데, 여러 사유로 당시 저자에게 일일이 내용을 확인받지는 못하였으며, 지면을 통해 이에 대한 너른 양해를 구한다. 4-하권에 포함된 연천의 지명유래는 기존 군지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난 20여 년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집필을 담당한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였다.

제5권 ‘연천의 정치·경제·사회’는 2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천의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 그리고 연천의 미래비전 등을 포함하였는데,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호서대학교 이세진 교수가 자료조사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상 5권의 연천군지는 e-book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새로 구축된 아카이빙시스템 ‘연천 문화도시 기억보관소(<https://www.yeoncheon.go.kr/archive>)’에 탑재하였다. 더불어 집필 과정에서 수집된 연천 관련 사료 7,918건도 여기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번역이 필요한 사료는 추후 번역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천군 문화유산 446건을 비롯 자연유산 등의 세부 내용과 사진 자료 역시 위 아카이빙시스템에 탑재하여 누구나 쉽게 현황과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20여 년 만의 연천군지 간행사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연천군사편찬위원들과 넉넉치 못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의 원고를 집필해주신 전문가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군지 편찬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덕현 군수와 김광철 전군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방효숙·이현주 전현직 팀장과 담당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마을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사업 등 새로운 틀의 지역사 구축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7월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 漣川郡誌 (5권)

| 연천의 정치·경제·사회

---

발행일	2023년 7월 30일
발행처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집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제 작	네오이크(02-3143-6092)
ISBN	979-11-979960-3-0(05090) 979-11-951975-9-0(세트)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 031-839-2114(대표번호)



비매품

05090



9 791197 996030

ISBN 979-11-979960-3-0

ISBN 979-11-951975-9-0(세트)